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 ●
CONTENTS

발간사

008



최우수

- 한국 그리고 아시아, 얼마나 아십니까?
 이성희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중국에 작은 도시에서 발견한, 큰 생각
 강성우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영어중문학과

012

019



우수

- Experience Campus Asia Program in South Korea
 Cui Yangyang_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 From Campus Asia to harmonious Asia
 Xu Luping_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 수기
 문영주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캠퍼스아시아 교사 보조 (TA) 보고서
 등우양_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동방어언문화학부
- The Miracle in My Life - My Exchange Life in PNU
 Mengting Niu_Mechanical Engineering master cours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 CAMPUS Asia, 역사의 중심에 서다.
 허 균_대한민국 KDI국제정책대학원 MPP/ED
- An Unforgettable Experience - Life in Korea
 Qian WEN_Mechanical Engineering master cours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030

034

038

049

055

060

066



● ● ●
CONTENTS

-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072
 이현경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ESSAY for CAMPUS Asia 2012 075
 Liu Bin_Peking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 I have learned Japan in Korea 079
 Yuki Fukushima_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체험 수기 083
 차영혜_대한민국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 ‘동아시아 공통법’의 형성과 공존공영의 ‘인식공동체’ 구축을 위한 작은 발걸음 087
 金白暻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박사과정)
- 2012년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체험수기 092
 Gaye Kim_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y Gains in KU and A Few Pieces of Advices for future 096
 He Yu_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 캠퍼스 아시아 체험 수기 -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101
 최혜민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Campus Asia : A good chance to catch two birds with one stones, Study and Chinese culture 108
 정연준_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 Korea, From an Acquaintance to a Dear Friend 111
 Li Weili_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environmental engineering, master course
- Many Thanks to you, SNU 118
 Tingli Zhang_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오다 122
 조유나_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 长春, 吉林大学 126
 안선미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CAMPUS Asia 체험 수기 131
 황진아_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아시아 법 공동체 형성의 첫걸음 무척이나 뜨거웠던 2012년 8월의 나고야 134
 임효준_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ONTENTS

• 동아시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 어승욱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41	• 나의 잊을 수 없는 2012년, 그리고 오카야마 강문희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71
• Summary of life in Kaist Yang Ye_중국 칭화대 기계학과	145	• 캠퍼스아시아 체험수기 김소연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75
• 내 인생의 전환점, Campus Asia 이선국_대한민국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150	• My KAIST Life Ding Guo_중국 칭화대 기계공학과	179
• My life and study as a Member of Campus Asia Students Wang Qianqian_중국 복단대학교 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	153	• Through Campus Asia Program Kazumi NAKATA_일본 고베대학교 국제협력대학원	183
• 일본 동경공대에서 2달간의 교환학생을 마치며. 정광우_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158	• CAMPUS Asia 체험수기 마츠모토 토모야_일본 입명관대학 일본사학과	186
• Following My Pan-Asian Dream Yuto Ono_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163	• CAMPUS Asia Program Essay Fabiana Fong_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189
•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 수기 민경식_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67		

발간사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한중일 CAMPUS Asia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시범 사업은 한중일 대학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간 글로벌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범 사업 첫째 ‘2012년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체험수기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서른일곱명의 열정과 도전이 향후 CAMPUS Asia 시범 사업을 수행하게 될 대학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체험수기집 발간 등은 본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사업단 간 정보교류,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시아판 에라스무스 (ERASMUS: 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로 동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3국 대학에서 학점 상호인정을 받거나 공동·복수학위 취득, 인턴십 등의 교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함인석**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최우수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한국 그리고 아시아 얼마나 아십니까?



이성희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복단대 - 고베대)



복단대학교 정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간의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이 세계 정치와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를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공부하고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 연구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한중일 3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 지역 개발과 성장에 한중일 3국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반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의 리더적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고, 한중일 3국이 구축한 협력관계를 동남 아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중일은 가까운 이웃이자 치열한 경쟁자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자국에 대

한 이해는 물론이고 이웃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실제 그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중일 3국 간 정세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ampus Asia 프로그램이야말로 이웃 국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이웃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나 일본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아시아 지역 발전에 대한 저의 비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복단대학교·고베대학교 컨소시엄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이라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과 중요성도 저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보다 자연 재해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가 적은 한국에게 위기관리 분야는 간과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생했던 대규모 재해 경험을 토대로 위기 관리 메카니즘과 대응 체계가 잘 발전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한국은 물론이고 동남 아시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위기관리 방안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위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별 국가와 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与其等机会来 不如找机会

与其等机会来 不如找机会.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기회를 찾는 게 낫다는 뜻의 중국어입니



복단대학교 내 모택동 동상

다. 중국에서 보낸 1학기 동안 저는 이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깨달음을 얻기 힘들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숨겨진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 9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복단 대학교(复旦大学, Fudan University)에 파견되어 1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생활했습니다. 국제대학원과 유사한 대학원인 SIRPA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ublic Affairs) 소속으로 'Chinese Government and Governance' 프로그램의 수업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대학원은 국제관계와 더불어 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SIRPA에서 중국 정치, 동아시아 정치, 중국 위기관리 수업을 수강하고 공공경제학을 청강하였으며,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중국어 초급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북단대학교 캠퍼스

‘중국 정치’ 수업은 중국을 ‘공산국가’, ‘1당 독재’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저의 (혹은 일반인 대부분의) 생각을 환기시킨 기회였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공산당의 집권과 엄격한 사회 통제를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정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눈에 띕니다. 지방에서는 지도자를 뽑는 직접 선거가 이뤄지고,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을 지방 정부로 분산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및 SNS의 도입과 확산 덕분에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인권, 환경,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밖에서 중국을 봤을 때 엄격한 통제와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뭔가 답답하고 부조리한 체계라고 평가하기 쉽지만 (물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직접 중국에 와서 경험과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중국과 중국 정치는 생각보다 역동적이며 ‘아래로부터의 변화(bottom-up)’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China’s megatrends (John Naisbitt & Doris Naisbitt) 라는 책 역시 중국

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중국 정치’ 수업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중점으로 뒀다면, ‘동아시아 정치’ 수업은 동북아·한중일 3국의 국내 및 국제 정치 현황을 다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던 배경, 권위주의적 정권의 경험, 아시아적 가치 (Asian Value), 동아시아 공동체 등 동북아 3국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정치적 역사와 현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정치 문화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이 수업을 통해 얻은 수확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저 스스로 한국의 정치에 대해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저렇다는데, 일본은 이렇다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걸까?’, ‘한국 정치의 특징은 무엇일까?’ 등 한국인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한국의 정치 시스템, 문화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수업에는 유럽 등 아시아 외(外)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를 보는 아시아 외부 지역의 시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 위기관리’ 수업은 고려대·북단대·고베대 컨소시엄인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수업 중 하나입니다.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및 UN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중국 교수님이 담당하신 수업인데 위기관리에 대해 전무했던 수준의 지식을 한 차원 향상시켜준 고마운 수업입니다. 중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이나 사례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함께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과거엔 위기에 대한 ‘대응’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 이제는 위기 관리의 4단계 즉,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 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해졌습니

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지역사회, NGO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와 취약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proactive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자연 재해 등의 발생 빈도가 적어 행운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행운인 동시에 우리를 나태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과 같은 인재(人災) 역시 국가의 안녕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단대학교에서 열린 Campus Asia Conference는 고려대학교, 북단대학교, 고베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동아시아 위기관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의 통찰력 있는 강의를 듣게 되어 의미 있었으며, 북단대와 고베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위기관리의 현황과 미래는 많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기 전엔 중국의 교수님과 대학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즉, 교수님들과 소통이 자유롭지 않고 다소 권위주의적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들을 통해 만난 교수님들은 모두 매우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린 자세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끊임없이 유도했습니다. 중국 교수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질문하기 위해 저는 자주 교수님들을 찾아가고 이메일을 보내 수업 주제와 중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교수님들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정치와 사회 상황에 대해 저에게 많이 질문하시며 중국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는 중국과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 외에도 중국어 초급 수업과 중국 현지 학생과의 중국어 튜터링을 통해 중국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더듬더듬 중국어를 말하고 쓰고 읽으면서 중국이 가진 오랜 문화와 전통, 그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대인관계의 특징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특징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SIRPA 영어 프로그램 환영식사

제가 속해 있던 SIRPA 대학원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각종 지원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었습니다. 학기 초 환영행사, 크리스마스 및 연말 기념 식사, 상하이 및 근교 여행, 각종 학생 교류 행사 등 외국인 학생들의 정착과 복지를 위해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과 중국, 한국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식견을 함께 공유하고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왜 유럽 등 서양인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는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에 대해 수업 외 행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북단 대학교의 외국인 기숙사는 중국 학생 기숙사 옆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는데 보안과 시설이 중국 학생 기숙사에 비해 훨씬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항상 본인 확인을 하며, 중국 학생들은 공동 샤워 시설을 사용하는 반면 외국인 기숙사는 방 종류에 따라 개인 또는 2명이 공동으로 욕실을 사용하므로 한국과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Campus Asia 프로그램 장학생들에게는 매일 생활비뿐 아니라 기숙사 전기세와 온수 사용료를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는데 전기세의 경우 별도로 돈을 내고 충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며 온수 사용 역시 겨울이 아닌 이상 별도로 충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숙사 내 매점은 한국 음식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기숙사 근처에 한국음식점도 많아서 한국 음식에 대한 향수도 달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기숙사에서 주중에 매일 무료로 배포하는 영자 신문인 China Daily는 중국어로 신문을 볼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의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신문을 매일 챙겨서 보면서 중국 시진핑의 새로운 리더십, 중국의 빈부격차 해소 대책, 노인 복지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북단 대학교는 상하이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없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자주 나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중국보다 더욱 생생한 중국을 알려 주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도 가장 개방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과 볼거리가 다양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심한 빈부격차와 아직은 미숙한 공공질서의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한국과 비교하며 중국의 시민문화가 미숙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저의 오만이고 편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제안 몇 가지

먼저 고려대·북단대·고베대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이 컨소시엄의 테마는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위기'가 좀 더 다양한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과 일본 측의 중점은 '재해 위기 관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3개교 Conference에서 고려대 교수님들은 재정위기, 사회적 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포함하는 주제를 제시하신 반면, 중국과 일본은 자연/인적 재해 관리 쪽을 중심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인적 재해에 대한 위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재정, 안보,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중요하며, 이러한 통합적인 위기 관리가 본 컨소시엄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견대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업들도 재해 관리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위기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내용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북단대에 파견된 Campus Asia 1기 학생들은 한국 학생이 4명, 일본 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속된 대학원은 중국어와 영어 수업이 분할되어 있어서 중국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어 수업을 듣고 외국인과 일부 중국 학생들만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학생들은 모두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공부를 하지만 수업에서 중국 학생들을 만나고 토론하거나 교류하기



기사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영자신문



SIRPA 외국인 학생 여행 (소주)

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온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유럽 등에서 온 학생들을 통해 한중일과 아시아에 대해 자주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수업에서 만난 소수의 중국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거나, 중국어 튜터링을 해줄 중국 학생을 찾거나 (지인 또는 광고를 통해) 하는 방식으로 중국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 학생들을 더욱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대학원생 수준의 보다 심층적인 대화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으로 인해 생기는 특수한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나 뉴스, 학술 자료 등에 대해 엄격한 검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중요한 행사 (중국인민대표대회 등)가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나 검색 엔진을 차단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중국 체류 기간 동안 google, gmail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았고 New York Times

등 일부 서양 언론 사이트는 아예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Google, gmail 등의 사이트와 일부 검색 키워드 등은 석사생으로 논문이나 보고서,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를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VPN이라는 IP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본 고베대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VPN을 무료로 제공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무료 VPN을 찾거나 유료 VPN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VPN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베대처럼 중국에 파견되는 학생들에게 VPN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자료 검색 등에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ampus Asia 전반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고려대·북단대·고베대 컨소시엄 외에도 많은 컨소시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컨소시엄들은 다양한 참여 학교들을 보유하고 있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기술,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Campus Asia 프로그램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컨소시엄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이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트나 SNS 공간을 이용해서 서로의 활동이나 유용한 정보, 수기 등을 자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오프라인 미팅 (conference 등)을 통해 Campus Asia 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문적인 교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수기를 마치며 역사적인 Campus Asia 1기 파견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고려대학교

와 교육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국, 동북아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처럼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 젊은 인재들의 학문적,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고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작은 도시에서 발견된, 큰 생각



강성우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학교 - 오카야마 대학 - 길림대학)

중어중문학과 4학년 Campus Asia를 결심하다.

오늘날 중문 전공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국의 이미지는 무엇일까? '취업'이 지상 최대목표가 된, 현 상아탑의 현실 속에서, 많은 친구들은 중국이란 말에 으레 어학시험,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단어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대부분 대학생들은 말한다. 중국에 한 번 갔다 오면 '새로운 스펙'이 생긴다고, 그 것이 있으면 취직에 유리할 것이라고. 특히 중어 중문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스펙' 이미지는 더 크다. 중국어 고사 한 줄 몰라도, HSK 급수는 높아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해도, 중국 '경력'은 차 있어야 하는게 요즘 중어 중문과 학생들이다. 중국의 기본 사회 구성, 문화, 경제, 아니, 전공인 '문학'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말 할 수 없으면서, 대중 어학만 얼마간 익혀서 '중어 중문학과'라는 명패를 자랑하는 대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나는 중국어를 정말로 못하는 중어중문학과 4학년생이었다. 솔직히 나는, 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암기식 '중국어'교육에 아주 넌더리가 난 상황이었다. 중어중문학과 어학수업을 들어가면, 모든 학생들은 유치원

생 마냥, 주어진 텍스트를 달달 외운다. 시험 질문이, '텍스트'와 접하나 까지 동일한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중국이나, 중문, 중국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없이, 기계처럼 학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중국에서 기 거주한 학생들, 화교 학생들, 외국어고 중문과 출신 학생들은 일부러 중어 중문학과를 선택하여 아주 손쉽게 대학 학점을 취득 하고 있기도 했다. 본인은 '중국'을 알고 싶어 처음 중어 중문학과를 선택했다. 훗날 중국을 누비는 중국 전문가가 되고 싶었기에,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모든 방면에 대한 교양을 쌓기를 바랐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한국의 교육현실은 이를 만족 시켜 주지 못했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 모집 공고를 접하기 전, 나는 사실 중국 교환학생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대부분의 친구들이, 6개월 혹은 1년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고작 했다는 것이 'HSK 5급 취득'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잘 한 친구는 6급) 만약 그 잘난 자격증 취득이 목표라면, 나는 굳이 시간과 돈을 들이는 대신, 집 근처 학원을 택하리라 마음먹었다. 때문에 4학년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나는 종각의 중국어 학원가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런 내가, 캠퍼스 아시아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정해주신 운명'이었다. 동아시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 을 주제로 한 교환학생, 이 얼마나 '고상'하면서도 '다이나믹'한 목표인가?, 나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보며,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서를 작성했다. 사실 4학년 1학기의 시기에 '인문학 공부를 하러' 교환학생을 간다는 것, 그것도 중국의 변방 '장춘'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였다. 그 흔한 '토익 점수'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던 내게,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위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철없는 짓을 하려 한다며 계속해서 만류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고, 아무도 내 결정을 변화 시키지 못했다.

예비반 중국어 꼴찌, '음감이 남다른 강성우' 무작정 출발하다.

타오르는 열정 속에서, 정말 하늘이 도운 덕분에 나는 1기 첫 중국행의 행운아로 선정 되었다. 중국 파

견 까지 남은 기간 2달 여, 나는 내가 궁금했던 수많은 의문들을 중국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중국어 실력을 최대한 끌어 올려야만 했다.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중국어 실력이 팍팍 늘 줄 알았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 말처럼 정말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중어 중문학과 4학년 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암기 형 언어과목'을 지독히 싫어했던 성향 때문에, 어학과목을 다 피해가며 수업 들었던 나는, 당시 중국어 수준 HSK 4급 수준으로, 교환학생 예비반 인원 중에, 첫 test 최하점을 기록했다. 중국 출발 인원 5명, 나를 제외한 대부분이 2,3학년 여학생, 게다가 사학과, 한문학과 등 비 전공생 다수, 나는 이런 핸디캡들을 가득 지닌 동기생들에게 완벽히 뒤지며 '꼴찌'로 학습을 시작했다.

우리 교환학생 예비반을 담당하셨던, 김동건 선생님은, 이런 나를 보며 한 가지 별명을 지어 주셨다. '음감이 남다른 강성우'. 우리 수업시간에 원어 노래 연습 중 '음정만 잘 따라 간다고'지어 주신 별명 이었다. 나는 너무나 스스로가 부끄러웠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국어를 연습했다. 예비 수업 시작 2시간 전부터, 우리가 했던 원어 연극 대본을 해석하고, 반복해서 읽었다. 수업을 마치면, 원어노래는 끊임없이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한편, 중국어 영화를 보며 실전 감각을 추가적으로 익혔다.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앞서있는 친구들과의 격차를 좁혀 나갔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갈 길은 요원했다.

나는 첫날 도착한 장춘 공항에서 '여권 주세요.'라는 말을 몰라 헤매 버렸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었고, 이 특유의 도전성은 이 후 나의 모습을 몰라보게 다르도록 만들어 냈다.

우연히 맡게 된 한국 대표

처음 접한 장춘 풍경은, 내가 어려서 자랐던 경상도를 떠오르게 했다. 외곽은 마치 아직 발전이 덜 진행된, '합천', 이나 '진주' 같았고, 중심지는 잘 정돈된 '창원' 같았다. 중심지나 외곽이나, '옛날'의 냄새가 풍기기는 매 한가지였고, 아무렇게나 차려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유로움마저 느껴졌다. 뿌연게 먼지 낀, 승차감이 특별히 나빴던 택시들은, 그 외모와 어울릴 만한 '푼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도시의 도처에는 시커먼 골목이 널려있었고, 또 그 바로 옆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공존 하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외국에 '살러 나선' 26의 총각은, 부푼 마음에 들떠, 도착 이틀째부터 온 천지를 소다니기 시작했다. 길바닥에 널려 있는 닭 모가지 튀김이라든지, 한식 볶음냉면(한국에는 전혀 없는, 한국식 볶음면이라 정말 신기했다.)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말 한마디 안 통하는 그곳을, 나는 얼마나 용감히 돌아다녔던지, 모르면 용감하다는 그 이야기는 딱 나를 두고 한 말 같았다.

도착 한지 일주일째인가, 그 곳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한 환영행사가 있다가 귀뜸 해주었다. 우리의 멘토이셨던 최선화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기소개와, 목표와 같은 이야기들을 중국어로 짧게 준비하라고 하셨다.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한 자리에 만나는 자리, 특별히 각 나라에서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에서 한마디 해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여학우 4명과 남자 하나, 유일한 26살 4학년생, 모든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내 동기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대표로 지목했다. 줄지에 팀 내 중국어 꼴찌였던 나는, '한국 대표'라는 재미있는 직함 까지 가지게 되었다. 처음에 내가 얼마나 당황했

던가는, 굳이 말 할 필요도 없다. 대표로서 해야 하는 짧은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나절을 고민했다.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해, 동생들과, 중국인 친구의 도움을 빌어야만 했다. 지금에 와서 당시를 돌아보면 작은 웃음이 나온다.

咱们得到更大的理想吧! 었던가?, 어법에도 말지 않는, 이러한 짧은 문장들을 몇시간 동안 만들고 외워, 나는 수많은 중국인 선생님들과, 일본 대표들 앞에서 30초간 쏟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멋쩍게 웃던 나와 내 친구들을 보며 크게 박수 쳐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대표 학생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그 대표를 통솔하는 대표중의 대표가 되었다. 이후 나는 다양한 자리에서, 내 위치의 위력을 알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

본과 2반의 낙제생, 최고 우등생으로

사실 처음에는 장춘에 가면, 무조건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줄로 알았다. '영어 강의'가 있겠지, 혹은 '한국어 강의'가 있겠지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나만의 큰 착각 이었다. 아직 중국의 변두리에 위치한, 장춘의 길림대학교에는, 특별히 외국인을 배려한 인문학 강의를 없었다. 때문에 역사나 문화와 같은 과목을 수강하려면, 모두 현지어 강의를 들어야 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다섯 명의 인원들은, 서로 협동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여 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중국학생들이 듣고 있는 강의에 과감히 도전하기로 했다. 간체가 낫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전 문학 강의부터 청강하러 들어갔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우리 중국어의 한계를 처절히 체험하며, 뒤꽂무니를 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우리 팀은 결국 '대외한어과'의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이 선택한 것은 본과 2학년 반, 외국인을 위한 수업이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에서 생활한지 2년 이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이어서 수업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나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배우지 겨우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엔 수업 내용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이해도 50%, 나는 겨우 모든 수업 내용의 절반정도를 겨우 알아 듣다보니, 클래스를 낫춰 들을까 하는 고민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자꾸 도망가다가는, 인문학은커녕, 중국 친구들과 대화조차 못하고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어려운 수업과 정면 승부를 결정했다.

나는 공부를 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의 딱 두배 만큼만 노력하기, 두 번째, 중국에 온 만큼 중국인과 끊임없이 접하기, 세 번째 복습만큼은 잘하기가 그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두 시간을 공부하면 꼭 네 시간을 공부했다. 주로 남들이 자고 있는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예습, 복습을 했고, 수업시간에 모르는 단어를 찾아 암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열심히 지키려 노력했던 것은, '중국인과 많이 접하기'였던 것 같다. 나는 나의 중국어 역량을 늘리고, 원래 기대했던 인문학적인 대화를 해보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중국인을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그 중 첫 번째는, 개인 과외 선생님 '푸다오'를 구한 것이었다. 대외한어교육과 출신의 여선생님을 과외 파트너로 구했다. 과외비는 한 시간에 5000원정도로 매우 저렴한 편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데로, 수업을 심분 활용했다. 나는 보통화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과외선생님과, 처음에는 회화를, 1달 이후에는 학교 공부를 집중 학습 했다. 더불어, 일기 쓰기와 시사 토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쓰기와 말하기 능력도 함께

배양했다.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푸다오'에 대해 회의를 느껴서, 수업을 취소하거나, 선생님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과외선생님을 무척 신중하게 고르고 난 후, 한 번도 선생님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학습했다. 덕분에 나는 아직 까지도 이 푸다오 선생님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

과외 선생님이, 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도록 잘 지도해 주었다면, 나의 말하기 듣기 실력을 증진 시켜 준 것은, 3명의 한국어 제자들이었다. 나는 짧은 실력이나마, 내 중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어'에 관심 있는 중국인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외비 대신에, 똑같이 중국어 레슨을 받았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언어 교류생들과, 중국의 정치와 사회, 역사, 그리고 문학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쌓아 나갈 수 있었다.

또한, 나는 길림 대학 내의 한국어과의 학생들과 언어를 교류하기도 했다. 처음 중국인 친구가 없던 시절, 나와 우리 캠퍼스 아시아팀 멤버들은 다짜고짜, 길림대 한국어과 행정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우리는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어 실력이 출중한, 중국인 친구들 다수를 소개 받을 수 있었다. 가끔 우리는 학교 앞 식당에서 만나, 양꼬치와 백주를 나누며 대중문화와 같은 서로의 관심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수많은 중국인 인맥으로 인해, 나의 중국 생활 time table은 한국에서 보다 도리어 더 빽빽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은 중국인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의 항상 중국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만 했다. 따라서 한국인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아

주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나는 더욱 빠르게 '현지화'되어 갈 수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지 두 달이 지난 중간고사 기간, 반의 낙제생이던 나는, 어느덧 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HSK 6급 수준에 도달한 '중국어 통'으로 변모 되어 있었다.

장춘의 슈퍼스타 K로 등극하다.

'중국인의 마음을 모르는 채, 중국말만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중국 전문가라 칭할 수 없다.' 나는 장춘에 도착해서도, 처음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을 떠날 때의 초심을 잊은 적이 없었다. 비록,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여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였기 때문에 게을리 할 수 없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현재의 TV가 당대 사람들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문화적 매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는 약속이나 일정이 없는 저녁시간이면, 꼭 한 시간정도 TV를 시청하려 노력했다. 만화에서, 생활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나는 중국 프로그램들 이것저것을 둘러보면서, 중국인들의 최근 관심사가 무엇인지, 스키밍 하려 노력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수많은 중국 프로그램에서 방영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드라마의 대부분은 항일전쟁, 시대극 등이 차지하고 있었고, 만화는 권선적, 집단주의적 내용을 가득 담은 것 들이 주를 이루었다. 쇼 프로그램에는 자신의 '개성'을 확실하게 어필하려는, 한국에서는 흔히 보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것은 '상친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특징인데, 나는 한

국의 일반적인 젊은이들과는 외모나 재력이 아닌, 자신만의 매력을 어필해 캐릭터를 찾아가는 중국인들을 보며 나는 '대단하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 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중국 티비 프로그램의 연출을 만났다. 그는 全城熱戀이라는 상친 프로그램의 연출이었는데, 프로그램 개편의 일환으로, 외국인 특집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면, 내게 출연을 권유 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몇 차례 거절했지만, 그는 '동북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 일이라 꼭 섭외하고 싶다.'라며 누차 부탁해왔다. 나치 이것 또한, 장춘과 동북의 문화를 알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촬영을 수락했다.

막상 촬영 수락은 했지만, 600만 명이나 시청한다는 중국 TV에 얼굴이 간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얼굴은 둘째치고라도, 동북 사투리는 커녕, 조금만 빨라지면 알아듣지 못하는 내 회화 실력이 걱정 되었다. 그래서 나는 촬영까지 남은 일주일간 스파르타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훈련의 시작으로 같은 프로그램 이전 방송분을 거의 50화정도 시청하며, 출연자들의 관심사와, 질문 패턴, 방송 진행 방식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리고 해당 질문에 관한 답안을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가상으로 구성하고, 밤새도록 연습했다. '풀하우스'의 인기 덕에 유명해진, 곰 세 마리, 열기적인 그녀의 I believe 등은 '특기'로 쓰기 위해 하루 종일 귀에 꼽고 따라 불렀다. 촬영 당일, 나는 스스로의 캐릭터를 '다정다감한 한국인 남성'으로 잡고, 일장의 연기를 시작했다. 이는 '대범한 남성주의'를 지향하는 동북 남성들의 일반적인 성향을 정 반대에서 조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신선함이, 그 따뜻함이, 한류의 힘이고, 동북의 여심을 울리는 비결이라 생각했다.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진행 했던 대비는 무대 위에서 그 빛을 바랬다.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던 예상 질문의 적중률은 무려 90%에 가까웠다. 나머지 10%의 질문들은 내 향상된 눈썰미로, 티 나지 않게 커버 할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촬영장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다. 나를 두고 최종 까지 경쟁했던, 여성이 3명이나 되었는데, 최종 방영분에서 방송 분량 30%의 거물이 되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출연을 결정했던, 곰 같은 한국인 남자아이는, 얼떨결에 동네 유명인사가 다 되어버렸다.

우리는 시리아 문제에 개입해도 되는가? 일본은 한국을 근대화 시켜주었는가?

캠퍼스 아시아 수업의 백미는, 아무래도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했던, 'Campus Asia 특별 수업'이 아니었다 싶다. 나는 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국과 일본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시각을 세계관과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몸으로 느껴 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논제는 3가지 정도였다. 첫 번째는 '시리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시각' 이었다. 수업을 담당했던 중국인 교수님은, 당시 연일 방송되고 있는 시리아 폭동 문제에 UN 평화 유지군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다. 당시 나는 '시리아 국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UN군의 개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며 인권이라는 다분히 서구적인 논리에서의 발의였다. 하지만 의외로, 중국 학생들 경우에는 내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들은 대부분 '남의 국가 일에, 타국의 군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중국정부의 목소리에 힘

을 실었다. 사실 나는 그들의 의견을 듣기 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귀 기울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신선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희생을 두고만 보자는 그들의 주장이 몰상식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강권개입해서 정부를 좌우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갔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하기 위해 그런 의견을 내고 있다는 분석 또한 일리가 있어 보였다.

내가 중국학생들과, 중국 쪽의 의견에 가장 큰 태도 변화를 보였던 부분은 바로 '고조선사, 고구려사' 부분이였다. 처음 그 논제를 접했을 때, 나는 '동북공정'의 부적절 성을 강하게 성토했으며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다양한 사료들과, 영사 영토주위에 기반한 역사관을 균형적으로 듣다 보니, 무작정 중국 탓만 하며, 일방적으로 논쟁을 해왔던 내 자신이, 오히려 중국 학생들 보다 더 딱 막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중국 학생들과의 언쟁은 사실, 크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학생간의 시각 차이였다. 특별히, 일제에 의해 건설된 '만주국'의 수도 장춘에서 벌어진, '일제 강점기'에 관한 토론은, 거의 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나는, 당일 지도를 맡은 일본인 교수의 언행에 상당히 격분한 상태였다. 당시 일본인 교수는, '과거는 과거이며,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한다. 일본이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또한 한국을 근대화 해준 부분은 사실이니, 굳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을 강의하였다. 나름 한국 대표로

써 소명의식이 컸던 나는, 해당 강의내용에 손을 들고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을 수 없는 것이 사고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 해준 고마움을 언급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강간하고 집을 뜯어 고쳐 준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이며, 그들이 정확한 사과를 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그 관계가 고쳐지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한국과 중국에게 성실한 자세로 당시의 만행에 대해 사과해야만 합니다.'라고, 어눌하지만 분명한 중국어로 푹푹히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당시 같이 수업을 듣던 일본인 학생들은, 우리의 강경한 반응에 몹시도 놀란 눈치였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왜 일본정부가 '사과하지 않는지'를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는 '사과만 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사과한다면 한국이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 하고 있던 일본 학생들은 그 대답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일련의 풍경을 관망하며, 이러한 소통의 지속이, 양국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이벤트, 여행들

중국에서 거주하는 경험은, 26년간 한국에서만 자라온 내게 결코 흔한 기회가 아니었다. 사람을 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나는 항상 더 많은 체험에 목말라 있었다. 때문에 나는 숙소에서 박혀 있기 보다는, 중국의 현상들을 돌아다니는 것을 선호했다.

우선 나는 틈나는 대로 중국인 친구 한명과 파트너로 장춘 곳곳을 돌아 다녔다. 삼륜차가 다니는 한적한 농촌부터, 동북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남아있는 위만 황궁, 중국인 친구들의 집들을 다니며 그곳 그대로의 향기를 맡았다. 기본료가 5원인 택시와, 1원인 버스, 2원인 경전철은, 내가 멀리 가지도 언제나 떠날 수 있도록 해준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다.

한편 우리 Campus Asia 가족끼리는 조금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곤 했다. 바다의 향기가 물씬 났던, 가까운 도시 대련과,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한번쯤 가보기를 원하는 백두산은 나의 사진기속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고스라니 담겨 있다.

우리는 다양한 곳을 여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에 참여 하기도 했다. 남호 공원에서 '춘요'를 즐기는가 하면, 전 세계인들이 어우러진 체육대회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위치아오'라고 하는 중국어 경기도 관람하며, 우리는 만주벌판 한 복판에 부는 '세계화'의 바람을 느꼈다.

장춘과 Campus Asia가 내게 남긴 것

Campus Asia 교환학생의 시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내 대학생활의 '별표'였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별하기도 너무 특별하고, 중요하기도 너무 중요했던 그 시기, 지금에 와서 나는, 그 당시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Campus Asia 학생 중에 가장 먼저 취업을 한 세대가 아닌가 한다. 나는 기업 면접장에서 수많은 중국 경험자들을 만났다. 해외영업 업무 지원자나, 항공사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1년 이상 중국

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기업 임원이 그들에게 ‘중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나 ‘중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없었다. 내 생각에는 그들이, 중국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단순히 ‘어학 위주’ 혹은 다분히 수용적인 학습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는 겨우 중국에서 6개월을 공부 했을 뿐이지만, 중국 주재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국내 유수의 기업에 연달아서 합격했다. 그 이유는 내가 중국에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인문학적 고찰을 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 10년을 살아도, HSK 최고급을 못 따고 클럽만 오가는 젊은이들이 있다. 반면, 어딘가에는 6개월을 살아도, 방송에 나와서 국가의 이미지를 대변할 정도로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장춘에서의 삶은, 내가 중국에 확실한 비전을 가

질 수 있도록 해준 훌륭한 기회였다. 나는 장춘에 가기 전 단순히 ‘넓은 중국 시장’을 동경만 해온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날마다 변화하는 장지투 개발의 중심, 동북 개발의 중심 장춘에서 나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가능성에 몸서리 쳤다. 비록 나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번학기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스스로 다짐했다. 정확히 10년 후, 내가 한 회사의 주역으로써 중국을 수놓을 위치에 다다르면, 과감하게 평범한 일상을 버리고 중국의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 너무도 어렵게 느껴졌던 주제,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적 고찰’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한 단면이 되었다. 선생님, 친구들과 헤어지는 그날, 마지막 수업시간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나는 어느덧 중국인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을 사랑 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갖추게 된 것이었다.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우수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Experience Campus Asia Program in South Korea



Cui Yangyang 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Fudan University–Kobe University)

For money limited, I didn't have an opportunity to go abroad as an exchange student in my undergraduate period. The initial motivation why I apply for Campus Asia Program is that it provides abundant scholarship than other programs. Without further understanding about this program, I came to Korea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for one semester in August 20th, 2012. And through one semester study, I learn not only academic knowledge but also how essential and grand this program could be. Collective action of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s achieving step by step. At the same time, it is my honor to be one member of Campus Asia Program and contribute to regio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o be clear, I use three parts – experiences, achievements and suggestions—to tell my story in South Korea.

Experiences

I still clearly remember when I had an

interview to this program, one interviewer asked a question: what do you think you will learn in Korea University? My answer is that I am not sure what kind of knowledge I will learn, but I am sure I want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 and broaden my horizon. Definitely, it is the precise description that I feel in last four months. The Korea style shocks me from study, daily life and travel to aspiration.

• Study at Korea University

As one of ten program elected by three countries' central government, our program focus on public risk management in East Asia. Therefore, different from ordinary exchange student, selecting courses is restricted to particular courses related to risk management. I have taken three courses including Korea language. My friends who study for dual degree have much more heavy schoolwork than me. Compared with China, the teaching style i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U GSIS for short) is more diverse and westernized. There are group presentation,

midterm exam, seminar, watching movies and so on. In those forms, the most impression for me is seminar with one professor and six students. The thinking is expanded through lectures, questions and discussions. Simultaneously, language class give me so many enjoyments as it's name 'fun fun korean'. Its intention is teaching useful daily life Korean instead of examination. And we practice each dialogue in order to remember and utilize it in real life.

• Live in Seoul

When first time went to supermarket, we couldn't get used to the high price of many consumer goods. Seoul is just a modern, prosperous and largely urbanized city as Shanghai does, with at least two higher price level, especially fruits and commodity. Live in Seoul as a Chinese who get used to cheaper goods is not so easy. Maybe this is the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oul people have content incomes and good educations, for instance, a lot of people can speak at least two foreign languages and fluent in English communication. The most impressive experience is that Korean is apt to choose products of domestic brands like Samsung and Hyundai. One Korean friend tells me it because they have pleased quality and much cheaper than overseas brands.

• Travel around South Korea

KU GSIS arrange two program-related field trip special for Campus Asia students, DMZ and

Gangjeong Village.

In Nov. 22th, 2012, the first trip to DMZ was organized. Before this trip, I have no idea about DMZ. I used to think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d a normal borderline—the famous three–eight line. When professor explained Korea Demilitarized Zone, it made me realize that DMZ isn't just a line superficially. DMZ symbolized the Cold War opposition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DMZ is a reminder to the world that the two Koreas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Recent years, the two Korea's relationship retrogressed and North Korea became more unpredictable,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security is still main problem, leave alone cooperating. The Six Party Talks was suspended with a great pity. But I always believe in ultimate unif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rip to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just finished in Dec. 16th, 2012. We met village head and took profound communication about the struggle against Jeju naval bas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vy began blowing up Gurumbi rocks to build a naval base at Gangjeong from Mar 6, 2012. Bu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has not followed the due process of getting the consent of the village residents. Meanwhile the naval base is highly suspected as constructed for the use of US warships and air-crafts in the Northeastern Asia, which will increase a tension among neighbor countries: China, Japan, Russia, and the US. From communication, we know

that the naval base continue to build forcibly. And this issue is not only ecology protection, in actually, but also an international conflict disguised as domestic protest. It exactly corresponds to the topic of risk management in East Asia and needs further endeavors to work out.

Achievements

Join this program makes me emerge new aspiration that before never had. I aspire to learn Korean languages, rebuild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and devote to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Constructing harmonious community from economy to culture should be our mutual dream. This program benefits me too much to express in one time. From my opinion, the top 3 achievements I made are familiarity of Korean culture, favorable impression of South Korea and comprehension between three countries.

• Familiarity of Korean culture

When I was young, my mother and I were both fond of Korean dramas, result from good manner and respecting the elderly. They keep some traditional customs until nowadays. There are a number of regional festivals, celebrated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 Favorable impression of South Korea

Before come to Seoul, there are some long-standing prejudices influencing my judgment, so toward South Korea, it's hard to affirm like

or dislike. After four months here, South Korea really gives me favorable impression. And I would like to tell my feeling to my family and friends in China to gain same recognition.

• Comprehension between three countries

The salience of this program is to assembling Korean, Japanese and Chinese students all together. We have more opportunities to cultivate friendships with Korean and Japanese and exchange ideas about one issue from different aspe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mprehend Korea and Japan, maybe some perspectives can't be accepted temporarily, it takes time to mutual compromise.

Suggestions

As we know, Campus Asia Program imitates European Erasmus Program,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offers scholarships to European students of exceptional quality to study at two or more other European universities. Erasmus is the perfect example of a European success story: close to 3 million students have participated since it started in 1987, as well as over 300 000 higher education teachers and other staff since 1997. Erasmus became part of the EU's Lifelong Learning Programme in 2007. According to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Erasmus Program and what I experienced, heard and thought in last semester, I come up with a little personal suggestion from two aspects: the whole program and the specific program in KU GSIS.

• For whole programs

1. The financial assurance and independence

For long-term development of Campus Asia Program, the financial is better to be assured and independent. Although it's just the beginning of this program, Erasmus Program illustrates it could be a great program aimed at deep communication and harmonious coexist between three countries. If the financial assurance and independence achieves, this program could be long-term operation and ignore the unexpected tension breaking out between any two countries.

2. Expanding the scale in each program

To ensure high quality, there are only ten pilot projects adopted by three countries' governments. In the primary stage, it isn't appropriate to expand the scale of whole program, however, it's worth thinking about expanding the scale in each program. Due to orientation, this program should practice in three levels—undergraduate, master and doctor, in actually, many programs only contrapose one special level.

3. Diversity of forms: summer school or short-term learning

To attract more students participate, it's necessary to expand diversity of forms. Some students reject this program for it takes too long time, so take this into account, summer school or short-term learning is helpful to expand the quantity of participation.

• For specific program in KU GSIS

1. More communication with Korean students

In term of myself, KU GSIS has done such a great job in taking care of Campus Asia Program. There is a little point to ameliorate. KU GSIS consists of foreign students as majority and Korean students as the rest, hence it's not so convenient to contact Korean students. Creating some volunteers' group or one to one assistance will benefit mutual comprehension between three countries' students.

2. More contact with Korean family

Experience normal Korean family life is one of my supererogatory hopes. Living in traditional hanok daily seems impossible, but it appears to be most interesting and unique. As a Chinese student, I really not only care about Korean students, but also interest in ordinary Korean family that mainly constitutes Korean society.

3. More language courses before and after semester

Because our passport weren't available before autumn semester starts, we missed the Korean language course in summer vocation unfortunately. Without any Korean basis, we suffered tough days at the outset. It's necessary to organize Korean language learning before semester, as in daily life Korean is the unique popular language. After semester, KU GSIS also arrange special three weeks' Korean language for Campus Asia Program. With enthusiastic intensity in learning Korean, the more courses, the better.

From Campus Asia to harmonious Asia



Xu Lup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Fudan University–Kobe University)

The year 2012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rmal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t is also a special year for me. Thanks to the Campus Asia program, I am lucky enough to get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such a wonderful semester in Korea University with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When I was planning to go to Korea University, most of my friends asked me the same question that is "why don't you go to Europe or US instead of Korea?" since many students prefer Europe and US to be exchange students if they can afford it. My reply is not strong enough since I have not been to South Korea before. Thanks to Campus Asia program, after several months staying in Korea, I am confident to give a good reason for my decision. I have learned and changed so much through this program.

The first semester is always hard but meaningful. At beginning, I could not follow the professors' lectures successfully since I haven't been used to English class. After several weeks'

practice, I could catch the points and understand the lecture. Although my oral English was not that frequent, I was not afraid of talking and communicating since I think the start of communication itself already make sense. The courses I have taken in Korea University are totally different from what I had in Fudan University. The lectures here, such as International conflict and risk management and Human rights, are more focus on the international issues rather than one nation or certain region which really opened my mind.

The most wonderful thing I have learnt in Korea is do not be shy to talk since the communication is the way in which you made who you are and know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The communications with Korean students, Japanese friends and other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opportunities for them to understand China and Chinese people. In the first Human right class, one of the French classmates asked for Chinese students' opinion regarding the

human rights condition in China. Although we are not sure whether our answer satisfied him or not, but I think it really gave him and other classmates the information about a real China. Thanks to Campus Asia program, stud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 are able to come together and share their opinions, which will have larger influence after they become upstanding members of society. I had the chance to exchange opinions about culture and politics with two Japanese friends came from Kobe University. Although the intense remain increasing regarding Diaoyu island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we live together, support each other and achieved the pure friendships.



The Campus Asia program is well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 University. During the whole semester, we also took two meaningful field trips to know the real Korea. We went to DMZ in the first trip, which remind us the Korean War and the efforts to achieve peace and unification. The two Koreas now are separated as binary opposites which construct the "we" and "they" in both two counties. Although we cannot

deny that the construction of "we" and "they" improved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it never bring peace and hope to the people.

The large gap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etween two Koreas is not good news in terms of unification. No matter how large the gap is, the first step of unification is to communicate and achieve mutual understanding.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South Korea should change and make efforts. In my opinion,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should be softer to win the North Korean People's heart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should reform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What we can learn from the history is that close-door policy can't last long and always causes risks. After several generations of domination, the Kim family's legitimacy foundation in North Korea is challenged. It's difficult and dangerous to keep North Korea as a closed country without making any reform.

The second trip is related to the naval base construction in Jeju Island. After talking with Gangjeong villagers, we found that this issue is also related to the China–Korea relations. The villagers and environmentalists are doing their best to protect the Jeju Island in the name of love and peace. I was really impressed by their courage and faith, and they also showed great enthusiasm for Chinese students. To be honest, I can easily understand their situations. Both in a small but beautiful village far from city, I won't support any military base construction in my

hometown which may destroy the environment and natural beauty. Local people also want to keep Jeju the way it was. As a Chinese student, I think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South Korea will be a threat to China and increase the intense in East Asia. The naval base construction strengthened security dilemma, which will never bring peace and hope.



However, politics is far more complicated and powerful so that it is really hard to make balance. Political issues should be solved by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which can make great contribution but ask for time and opportunities.

For me, in order to achieve better China-Korea relation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change people's mind. By creating more exchange students programs and cultural exchange projects, more people can have the opportunities to achieve mutual understanding. Secondly, mor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should be pursued at the organizational and regional level. There are many great companies in Korea like

Samsung that Chinese private companies can learn from, not only their institution, but also the management system. At last, the central governments of two countries should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y building up new relations and creating regional regimes.

I would not become so eager to talk, to listen and to learn without the Campus Asia program. I have not thought about getting a doctor degree since I thought it is really tough, but Campus Asia program experience completely changed my mind and now really want to do it especially in a foreign country. The life of studying abroad is not easy but meaningful, which is a good to find the world that need to be understood.

As the first year's student of Campus Asia program, I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to give some suggestions to make improvement. First of all, it will be better if the students of Campus Asia program from three countries can get together to exchange their experience and opinions. For example, we can organize a conference or seminar in China, Korea or Japan in order, which can bring all the students together. It also offers some students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other country's culture. Take me as an example, after several months living together with students from Japan, now I am also interested in Japanese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and really want to see a real Japan. Secondly, I think it will be better if more information can be offered before we came to Korea University. I did not know much about our courses and have to decide my adviser and

thesis topic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I am a dual degree student. If we got the information of classes and credits before the semester starts, it will be much more convenient. Furthermore, I will appreciate it if we have the chance to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We can experience a real Korea in daily life but haven't experience the government system in Korea, and it is an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a country. What's more, this program is well

organized by the Korean government, I think we will learn more if we have the opportunities to talk and exchange opinions.

Proud of being a member of Campus Asia program, I already made up my mind to make efforts for a harmonious Asia. I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can work together and make efforts, I am confident that this day won't be too far away.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문영주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인민대 / 청화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저는...고시생이었습니다.” 앓 꼬지 말고 끝까지 읽으세요!

고시 공부를 위해 독서실과 집만 오가던 1년 남짓한 기간이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와 보니 ‘스마트 기기’의 점령국에 덩그러니 홀로 놓인 이방인은 갑자기 ‘바보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렸을 적부터 줄곧 법조인의 한 길만 바라봤고 2008년 당시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학과에 진학함으로써 평생 꿈꿔온 길에 작은 한 발짝을 뚫었기라 여기며 기뻐했지만,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부정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고시 준비만 했던 시간을 경험하자 회의감이 들었다. 생각을 물어버린 채 육신을 뉘인 의자는 ‘판’이 되어 내 스스로를 가두게 했고, 현악기에 활을 갖다 댔을 때와 같은 파르르한 떨림이 전해지지 않는, 차갑게 식어버린 책 속의 텍스트와 죽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한중일의 법학/사회과학 공동연구를 위한 정부사업을 알게 되었고, 전공을 살리면서도 현재의 내 위치를 바꾸어 볼 수 있고 또 지원을 받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북경에 있다.

처음 ‘캠퍼스 아시아’를 접했을 때 가장 크게 다



역사적으로도 못 만드는 게 없었던 중국, 이화원 쿤밍호수

가왔던 매력은 전공과의 연계성 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한국어강사, 봉사활동, 배낭여행 등 국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며 매번 사람과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왔지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다보니 각 경험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개인이나 사회 발전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해 늘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데 ‘캠퍼스 아시아’는 현재의 학부 전공에서의 소양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의 더 큰 배움의 기반으로 삼으며, 다양한 시도에의 접근이 활발한 로스쿨에 비해 다소 정적이고 견문이 좁아 서렵기까지 하던 학부 수업에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역동적인 주제와 넓은 무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탐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매력은 사업의 ‘시의적절성’이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하나로 묶이고 있다. 그런데 특히 세계의 이목이 동아시아에 집중되는 일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결코 ‘내가 사는 그 곳이 바로 세상의 센터’식의 충만한 자의식 때문은 아닐 것이다. 김정은 체제와 대북정책, 후쿠시마원전사고, 자연재해, 중국 농촌 시위 사태, 한류열풍, G20등 다사다난했던 최근 동아시아의 행보에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하지만 아직은 동아시아 담론이 ‘거대한 용’으로 불리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일은 드물다. 또한 과연 우리 사회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일부 전문가 집단의 그것과 심각한 괴리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문과, 우리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연구는 외부에서 이루어져 외부 시각에서 보인 내용이 진실처럼 왜곡되고 결국 진실을 알

던 자는 입 다물고 사라지고, 당사자가 진실 아닌 것을 ‘그렇구나’하며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 때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와 불가분의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가 현시대에 당면한 동아시아 문제를 조금 더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동아시아에 관한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의 마련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래, 지 버릇 남 못 준다고 내 역마살이 어딜 가나

사실 중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웬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떠나면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비쳐질까봐, 그리고 내 입 밖으로 ‘포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기도 싫었던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 시점에 중국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에 잠겼고, 이는 곧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잘 살아 온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의 고민으로 이어졌다. 사춘기 때 했더라면 좋을 것 같은 고민을, 20대 허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하려니 버겁기도 해서 휴학을 했고, 아직도 어리석은 아이라 긴 고민 끝에 명쾌한 답은 얻을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정적인 것을 못견뎌한다는 것은 확신하게 되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2008년도 입시체제를 거치고 대학에 들어가니, 로스쿨 도입으로 마지막 법대생이 되자, 새내기 of 풋풋함과 설렘 따위는 고시에 반납하는 대세를 따라 고시 공부를 시작할까 했으나, 대학생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눈이 뒤집혀 경영학도들 틈바구니에서 공모전에도 참여하고, 각종 봉사활동과 대학생 모니터요원, 동아리/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대학생활을 보냈던 나였다. 그런 나였기에, 지원을 결정



중국 최대 황궁식 라마시원, 용화궁

하기까지는 고민이 많기는 했지만, 일단 지원서를 쓰기 시작하고부터는 도서관에서 중국과 관련된 학술지와 연구논문 등을 틈나는 대로 읽고, 공부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리고 운 좋게도 4월에 합격 발표가 났고, 어디로 될지 모르는 통제 불능 딸래미는 그 날 저녁, 440km를 달려 부모님을 만나 뵙고, 1년간 중국에서 수학하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행히, 모든 준비를 내 선에서 마치고 아프리카 배낭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던 때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으신 듯 했고, 대신, 출국 전까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중국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녀와서는 그 경험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등을 보고 드려야 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일단 캠퍼스 아시아에 소속되어 파견되기로 결정이 나면, 그 후로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만 알았던 나는, 합격 통보 이후로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잡히질 않아서 불안해하면서도 출국까지 남은 4개월 남짓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온전히 내 몫이다 생각하며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못 다 한 독서도 하고, 어학공부도 하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간담회 일정이 잡히기 시작하고, 고향과 서울을 오갔다. 하지만, 앞으로 수학하게 될 내용이나 생활 편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지원 내용의 윤곽이 잡혀가는 일본과는 달리, 매번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기다려 달라'하는 말만 반복하는 중국 측의 태도에 많이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에는 나의 거창한 포부와 함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내 자신감으로, 별 걱정 없으시던 부모님도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으며 하루하루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다 드디어 한



풍경이 중국 같이 얽던 전문대가



스타벅스

중일 관계자가 모두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정도로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풀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가장 시급한 주거 환경, 생활비용, 커리큘럼 등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는 얻을 수 있어 일단 '중국을 가기는 가는 구나'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중국, 아따 오랜만인데이

하루가 다르게 세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매력을 느낀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중국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찾아 참가하곤 했기에, 북경 공항에 도착해서도 평생 지방에서 사투리를 연마하다가 한양 땅을 밟았을 때 받았던 '신세계'에 대한 감흥 같은 건 느낄 수 없었다. 다만 24년간 열심히 부단히 자라 온 내 몸뚱이보다 더 큰 1년치 집에 대한 감흥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뿐

이었다. 하지만 공항을 나선 순간,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매력 있어진 북경의 모습에 느낀 의외의 설렘이 2012년, 중국이 내게 건넨 악수의 첫인상이었다.

대륙의 호방함은 외국인도 춤추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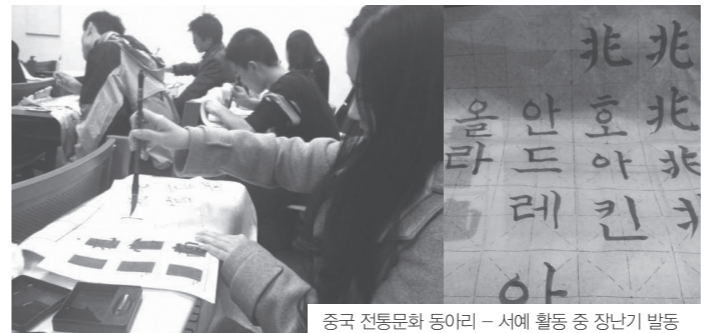


드디어 가는구나, 중국

공항 픽업을 나온 중국인 인민대 여학생, 유창한 영어 실력에 한번 놀라고, 간단한 몇 마디 대화만으로 호방한 성격이 드러나 놀랐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거의 4개월간의 중국 생활 동안 만난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저지른 사소한 실수나 부탁 요청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it's not a big deal'에 상응하는 '메이셜 메이셜'을 입에 달고 살며, 소위 말하는 '쿨함'의 정석을 보여주는 듯했다. 땅덩이가 넓은 만큼 사람들의 '쿨함'의 스케일도 남다른 것일까.

6년 전, 고등학생 때 문화 교류 활동으로 중국을 찾았을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대학생들이 한류에 관심

이 있기는 하지만, 친구로 가깝게 지내게 되기까지는 외국인에게 좀처럼 먼저 말을 붙이려 하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인민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중국인 반, 외국인 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또 워낙 유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하다보니 중국인 학생들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이상치 않으리라. 그래서 길 건너 질문을 하려고 다가서면, 인사동에서 외국인이 길을 물어오려 할 때 한없이 작아지며 뒷걸음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질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은 만국 공통일 것이나, 오히려 내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로부터 다름을 일부러 꼬집어내고 불편함을 강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 친구로서 다가온다는 점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중국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고(교환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동아리 내의 외국인 인구 밀도는 극소한 편이고, 그래서인지 중국학생들이 더 많이 반겨주고, 중국어로 말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며 배려를 해준다. 교환학생 우대정책!), 언어 교환을 하기도 한다.



중국 전통문화 동아리 - 서예 활동 중 장난기 발동



The Legal English Club!



역시 한국인은 삼겹살!



천안문 앞에서 밤새고 기다렸지만 오성기 계양만 했던 국경절 행사

한국인이라서 울고 웃어요

중국 인민대 내에는 '고려회관'이라는 기숙사가 있는데, 상주인구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고려회관 이외에도, 나처럼, 각국 학생이 모여 있는 유학생 기숙사에서 사는 한국인도 많다. 결론은, 한국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 교환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듯하고, 대부분이 어렸을 적부터 유학 생활을 해서 중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입시를 통해 본과생으로 입학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교내 매점 곳곳에는 한국 브랜드의 과자가 대륙 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대학의 동서남북 교문을 기준으로 나뉘는 동역/서역/남역/북역/중역 식당 내에는 각 건물마다 종류를 달리하여 라면, 순두부찌개, 비빔밥, 김치볶음밥 등 한국 음식이 기본적으로 메뉴에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인민대와 가까운 '오도구'라는 지역에는 아예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상점들이 밀집해있는 데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한국의 '배달 정신'을 잃지 않고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한국인이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워낙 결집력이 강한 민족이라 그런지, 나중에 친해진 후에야 들은 이야기이지만,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은 한국인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처음에 선뜻 다가가지 못

하고 머뭇거리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식당에서건 카페에서건 도서관에서건 유독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따라서 외국인들이 중국인 혹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때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패션 스타일'이라는 것이 정립되어 있다고도 한다(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은 학생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한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이미 한국인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행동이나 태도를 일반화하여 한국인 자체에 대한 편견이 저변에 깔려있어서 중국 친구를 사귀에 있어서 '한국인 인센티브'보다는 '한국인 평가절하'가 더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교류의 기회를, 더 적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생활과 생활비의 줄다리기

이제 어엿한 성인이라며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하고 월세도 스스로 충당하다보니 통장에 월급님이 로그인하자마자 덩달아 집주인님도 로그인하셨고, 그 길로 월급님이 로그아웃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던 대학 생활에서, 일단 중국에서는 기숙사를 제공받으니 한숨 덜었고, 게다가 장학금 덕에, '집 학교

알바 집 학교 알바'로 찬란한 대학생살이 끝이 날 일은 없겠다 싶었다. 하지만 생활비가 입금되자마자 '니 월급날만 기다렸다는 듯 인터넷 비용, 세탁 비용, 휴대전화 카드 충전 등이 달려들곤 하니, 마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후의 경품 마냥 약간은 초라해진 모습으로 ATM기에 웅크리고 남아 있던 장학금은, 그마저도 한 달 식비 명목으로 뺏속으로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인지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원어민 친구들을 보면 괜스레 종종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왕 중국에 머무르는 김에 여행도 다니고, 때로는 친구들과 특별한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분위기도 내보고, 관심 있던 중국 전통 악기를 배우는 등 여가 생활도 하고 싶은데-타지에서 생활과 생활비의 밀당은, 이따금씩 지나간 중국 대학의 학기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통로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마저 지쳐서 포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된다고, 워낙



추수감사절 파티 : 칠면조 대신 염소 고기!

활동적인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보니 같이 북경 탐방도 다녀야겠다고 1년밖에 머물지 않는데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기엔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 기본적으로 매달 나갈 것이 예상되는 금액은 어쩔 수 없으니 차치하고서라도, 가계부를 꼼꼼히 써가면서 지출을 통제해 보려 노력한다. 또한, 북경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상상 못 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각 국가별 굵직굵직한 축제나 행사에 맞춰 크고 작은 파티가 다양하게 열리는데, '다같이 즐기자'는 만국 공통의 축제 정신과 '학생은 늘 쓸 돈이 부족하다'라는 만국 공통의 개념에 따라 파티 중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따라서 부지런히 직접 정보를 찾거나 마당발인 외국인친구를 통한다면, 가벼운 지갑에 괜스레 세상을 향한 불만이 용솨음치며 유학을 왔음에도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방지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의 합리성과 함께 충분히 다이나믹하고 후에 추억할 만한 북경 생활을 할 수 있다.

내 입에 착착 감기는 걸 찾기가 그래 쉽겠나?

교환 수학기간 동안 매 학기마다 캠퍼스 아시아를 위해 특별히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번 가을학기에는 Comparative Law Study in East Asia, Introduction to Chinese Law and the History of



행한 기숙사 방에 색동옷 입히기



11월 초, 베이징의 가을을 만나러 온 눈

Chinese Legal Thought, Chinese Politics, Chinese Social Science 등 총 4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초기라 안정적이지 못한 것인지, 시설상의 결함 때문에 수업의 맥락이 끊기는 일도 잦고, 고지된 과목명과 다른 내용의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학기가 진행 중인 도중에 고지 받지 못한 학생 구성원의 변경이 있기도 해서 혼란스러웠던 점이 없지는 않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인, 평가 방식 등에 있어 변경 가능성을 다소 많이 오픈해두어서, 어떤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아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가에서 적은 비중을 차

지하고, 전자에 시간과 열정을 과하게 투자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과제나 평가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아시아 유스코무네 형성을 위한 학문적 교류라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목표에 걸맞게, 중국에서의 수학을 결정한 우리에게, 중국 사회과학과 법학 강의를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가끔은 각자 전공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수업 내용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채워 넣어야 하는 학습의 양이나 폭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정도여서 수업에 대한, 나아가 교환 학생을 오기로 한 결정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난 4년간 법학이라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전공학문의 깊이있는 연구는 웬만한 공부로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아무리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에 문제가 없다 해도, 전문적인 분야와 비교적 생소한 내용에 대해 따로 수업 준비를 할 때면 가끔씩은 그 양에 짓눌려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나 스스로의 분석은 설 자리가 없고, 일단 영어로 된 학술자료를 읽고 '해석'하기에 바쁘고, 객관적인 '사



중국인민대학 75주년 기념행사 - 소리 없이 강한 태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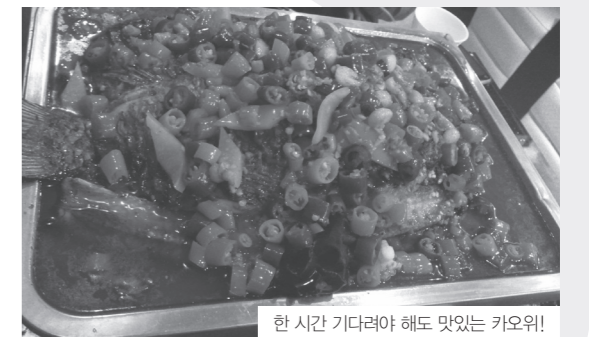
실'만 이해하는 정도의 공부로 그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마음이 불편하다. 한편, 캠퍼스 아시아 공통과목(CC)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내용에 따라 저마다에게 생소한 분야일 수 있고, 대학원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어 객관적으로도 많은 과제의 양에, 이를 수행하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사항까지 더해져서, 이를 제외한 중국 인민대학의 본과 과정에 개설된 전공 관련 과목을 수강할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학기가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첫 스타트라, 앞으로는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없다. 일반적인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달리, 이 사업의 목표가 정해져있고 그와 공유하는 바가 큰 학생들이 참가를 하는 것이니만큼 필수 공통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은 하나, 동시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현실적으로 경험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이에 대한 논의의 요구의 가능성과 시정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와 사업단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공식적인 통로의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교류를 통한 공통의 목표 달성이라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취지와 모순되게, 현재 개설된 CC강의에 중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 그들 혹은 다른 중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는 것도 아쉽다.

이러한 점 이외에는, 뭐든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스스로는 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법학과 4학년이라는 생각이 일부 작용을 했던 것인지, 그냥 대충 해서 제출해도 되는 과제라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자료를 조사해보고, 내용적으로 한국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며, 그러한 공통분모

와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보려 하다 보니,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성과는 눈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나 스스로에게는 많은 공부가 됨을 느끼고 있다.

'종귀런'과 '종원'

한 학기당 개설되는 강의의 종류가 다양해서인지 중국 대학에서는 학부 수업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비교적 시간 폭이 넓다. 한국과의 '시차 적응(!)'을 위해 8시 수업은 당분간 피하려고 했는데, 중국어 언어수업이 매일 8시부터 진행되기에, 선택권이 없어서 처음에는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똑같이 8시 수업을 가는 중국인 학생들을 보면 너무도 여유로워 보였다. 중국 학생들에 대한 나의 관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듯하다.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책값, 좌식 책상과 방석까지 갖춘 도서관 열람실, 자습실로 사용 가능하게끔 늦게까지 개방된 강의실 등은 중국 학생들이 여건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변명을 할 수 없게끔 한다. 음식 가짓수가 50개는 족히 넘는 식당이 캠퍼스 내에 열 개 정도 있다보니 '학교 밥이 지겨워서 나간다'는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서점/문구점/베이커리/카페는 물론이거니와 사방에 위치한 마트와 그냥 통째로 들어와있는 시장 덕에 캠퍼스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해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이러한 환경은 중국 학생들에게 공부가 일상화, 습관화되



한 시간 기다려야 해도 맛있는 카오위!

는 데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특히, 중국 학생들 틈바구니에서 듣는 수업에서는, 영어로 진행됨에도 언어의 장벽 따위에는 굴하지 않고 끈끈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중국 학생들의 당찬 모습에서 한번 놀라고, 저렇게 되기까지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생각하면 또다시 놀라게 된다.

내가 따로이 선택한 수업 이외에, 캠퍼스 아시아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영어 수업이고, 과제나 시험 등 모든 수업 관련 활동 또한 영어를 사용하게 되다 보니 정작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중국어 공부의 필요성을 잊게 되기 쉽다. 하지만 밥을 먹고 물건을 사는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중국어'를 제외하더라도, 아무래도 우리는 중국에 있고, 중국인 교수님께 강의를 듣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후로 아무리 시시껄렁한 이야기라도 교수님이나 중국인 학우에게 중국어로 말을 건네는 것이 중국에 대한 예의요,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중국어 실력의 향상은 이번 교환학생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국과 중국이 공유한 한자라는 문자 체계가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앞으로의 시스템 구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지니는 막대한 영향력과 앞으로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중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특히 한자의 경우 글자 안에 모든 실재의 형상,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 있고, 무엇보다 유학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과 중국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에 2학기 때부터는 조금 더 중국어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자 한다. 지금 당장은 북경에 온 이후로 중국어 실력이 생각만큼 향상된 것 같지 않아서 씁쓸하기는 하지만- 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 믿으며, 지금은 가끔 주위 풍광도 감상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앞을 잘 살피되, 정상이 과연 저곳에 있을까 하는 의심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방인이 또 다른 이방인에게

같이 중국어나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하더라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일본, 베트남, 카자흐스탄, 미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등, 우리나라였으면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다양한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곳 중국으로 발걸음 했다. 우리나라야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지만, 꼬박 3일 걸려야 도착하는 먼 곳에서, 중국은커녕 동양, 혹은 아시아 문화와도 너무 다른 배경을 지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5년 이상을 중국에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온 학생들은, 쉽사리 방전되지 않는 젊음의 배터리를 가진 이들이다. 낯선 것도 마음껏 받아들이고, 또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혈기왕성한 시기의 대학생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니, 이처럼 훌륭한 광장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제아무리 SNS가 소통의 장벽을 허물었다 한들 단순한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한



최고인민법원 견학(막내, 만언니-나, 법관, 둘째, 셋째)

던 내가, 성대에서 중국으로 온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라는 사실에서부터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았는데, 여기 중국에 와서 보니 중국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학생들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객관적으로 이룬 것도 많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한 윤곽이 뚜렷한 것을 보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했나'하며 반성하고, 아주 일상적인 일상을 일상적으로 보내기에는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많다. 만약 4학년 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웃고 즐기는 것 있지만 내가 이곳에 온 목적과 해야 하는 일 등을 잊지 않으려 부단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두고 싶다. 하지만, 이것이 밧도 끝도 없이 인생을 담보로 베풀을 것이 아닌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지금 도전해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본격적인 학교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아, 그냥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포기하고 싶어도 그것을 '포기'라 칭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시도 몇 번에 그냥 맥없이 나사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 당장 잠시 힘이 든다고 해서 처음에 지원서를 내면서 느낀 설렘과, 그 모든 준비 과정과 여기서 생활하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의 가치

부분을 걸고 개인적 차원이든 국가, 나아가 인류적 차원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움의 장에 발걸음을 옮긴 이들과 직접 대면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진대, 졸업과 취업이라는 큰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나에게 나 자신과 세상을 진지하게 돌아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첫째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감을 싹트게 하고, 자신감을 저하시킨다. 둘째로 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는 가까이 있는 것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가까워서 올려다보면 멋지기 그지없는 모던한 빌딩이지만, 조금만 떨어져 보면 주위의 고궁의 돌담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기회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요 조각은 엇다 갖다 끼울꼬?

어느 대외활동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늘 막내였



썬! 여기는 도서관.

와 진실성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혹자는 내 상황에서 지금 중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무모하다' 하지만, 무모하든 어찌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도전을 했고, 기회를 잡아서 받을 담그게 된 이상, 이곳에서 매 순간 새롭게 배우면서 성장해야 한다. 이걸 지원을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실력이든 조건이든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것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바로는 20대까지는 실력이 있어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기회를 잡고부터 실력을 쌓게 되고, 그 실력이 또 다른 기회를 잡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하다.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기회를 잡겠다는 완벽주의적인 생각은, 그로 하여금 영원히 '준비'만 하게 할 것이다.

위에서 수학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다고 투정을 부린 것 같은데, 꿈을 이루기 위해 택한 과정 중의 공부 부담이 든다고 징징대는 것은, '꿈'을 맑고 밝고 아름답지만 한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꿈이라는 그 탐스러운 것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나가다가, 그 속의 '치열함'이라는 알갱이를 마주하자마자 겁을 내고, 그 순간부터 꿈을 등지고 눈감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조금 돌아가야 해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꿈이 있는 곳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으니 말이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중국에서의 교환학생'이라는 피스 한 조각이 내 인생 퍼즐의 전체 그림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지만, 설령 이 경험이 내가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실패조차도 경험이 되고 도전 자체가 성장촉진제가 되는, 20대니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말되,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실패를 남용함으로써 실패에 익숙해

지는 것을 경계하기만 한다면, '캠퍼스 아시아 소속 학생'이라는 이름 앞에 언제 어디서건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기술하라시니 저는 다 터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자, 보내신 거 후회안하시죠?

학문 수양이라는 미명하에 책상에만 앉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던 것에서 위기를 의식하고 떠난 것을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캠퍼스 아시아'에 지원하면서 "광활한 대지만큼이나 다양한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며 수많은 인재가 치열한 담론을 펼치는 현장에서 '엑스트라 버진 뇌 오일'이 나올 때까지 머리를 쥐어짜며 중국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중국을 보며, 세계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보고,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세계를 볼 것이다."라고 썼었다. 아직 수학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으니, 처음 지원서를 쓸 때에 그리고 북경으로 오는 비행기에 오르던 때에 다짐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답게 중국에서 나의 스토리를 풀어나가야겠다.



'미스 캠퍼스 아시아', 근데 누가 일본인 누가 한국인?

캠퍼스아시아 교사 보조 (TA) 보고서



등우양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동방어언문화학부
(사업단 : 동서대 - 광둥외어외무대 - 입명관대)

캠퍼스아시아 계획

"캠퍼스아시아" ("CAMPUS Asia")는 중·한·일 3개국의 정부의 주도로 중·한·일 대학 교류와 합작 추진을 실현 시킨다. 특히, 학생 유동의 목표를 추진한다. 한국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중국교육부·일본문화과학성과 함께 연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3개국 학생간의 학술 교류와 제정 합작 계획을 추진한다.

중국에서 10개의 학교가 캠퍼스아시아 계획 목표에 선발 되었으며, 영광스럽게도 내가 몸담고 있는 광둥외어외무대학이 바로 그 중 하나로 뽑혔다. 광둥외어외무대학과 한국 동서대학교와 함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은 서로 협력하여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을 조성하였다. 2012년 광둥외어외무대학은 모두 5명의 대학원생(석사)을 캠퍼스아시아의 사업비로 "캠퍼스아시아TA"로 뽑았다. 나는 영광스럽게 그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 6개월 간 학생 대표로서 한국과의 교류 기회를 얻었다.

한국 생활

나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으며, 한국어 실력은 그다지 좋지 못 했다. (국내에서 2개월 간 한국어 공부를 했었다.) 당시,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주위의 안내를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을까 두려웠었다. 우리 5명은 동서대학교의 "특별한 손님"으로서, 한국 공항에 도착 했을 때, 2명의 한국 선생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학교 측에서 마련 해 주신 차로 학교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나는 한국 학교의 세심한 안배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부산에 도착 했을 때도 나는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첫 느낌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였다. 한국 생활은 일본 생활처럼 그다지 지나치게 조심스럽지는 않았다. 중·한 양국의 국민성은 공통 된 것이 많았다. 입주 한지 일주일 이 지난 후, 나는 모든 것에 익숙해 졌다.

한국의 물가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으로, 동서대학교 측에서 매 월 우리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의 · 식 · 주 모든 방면에서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이곳에 와서 먼저 관찰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패션 스타일이다. "한류"스타일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한국의 옷 입는 스타

일은 다양하며, 많은 참신한 스타일의 옷 가격은 비교적 비싸지 않고 대중적이다. 동시에 나는 한국의 많은 옷들은 중국에서 제작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중국과 한국이 제조업상의 경제관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곳의 주거 조건은 매우 좋으며, 환경이 고요하며 수수하게 아름답다. 침대시트·이불 모두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으며, 따뜻한 물과 생수 역시 무료이다. 에어컨·난방·인터넷 설치 등 모두 갖추어져 있다. 내가 거주했던 기숙사 건물은 모두 외국 유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각국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기숙사 건물의 지하의 식당에서는 유학생들 스스로가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나는 집에서 거의 밥을 해 본 적이 없었으나, 이곳에 온 이후 나는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어 보기도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좋은 경험이었으며 다시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다. 당연히 기숙사 부근에는 한국의 특색이 담긴 소규모의 음식점들이 많이 있으며, 가격 역시 저렴하다. 나는 대부분의 식사를 이곳 학교 정문 앞의 작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나는 기숙사 밖, 몇 곳의 음식점 사장님과 서슴없는 사이가 되었으며, 외식이 나에게서 인간관계의 확장고 교류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었다. 매 음식점의 식탁에는 반드시 김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소금에 절인 채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김치 등의 절인 채소의 음식은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어릴 적 고향에서나 이러한 소금에 절인 채소를 맛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농촌이든 도시이든 김치는 모두 필수로 준비되어야 한다. 김치는 중국의 절인 채소와는 다르며, 김치는 농촌과 도시의 음식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더 큰 의미로 김치는 이미 한국의 문화상징이 되었다.

학교에서부터 외출을 나가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학교 부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으며, 심지어

김해공항은 학교에서 자동차로 30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의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택시비는 비싼 축에 속하지 않는다. 부산은 생활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다.

한국은 산이 아주 많다. 한국 산의 풍경은 아름다움을 잘 발산하고 있고 많은 고층 건물 역시 산 중턱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 역시 아름다운 풍경이다. 동서대학교 역시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 한국인들은 아주 친절하다. 내가 원하거나 대답하게 그들과 교류를 하고자 하면, 그들은 모두 당선과 즐거운 한 조식이 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삼촌·이모들이 그러하다. 다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국인의 전통적인 형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진지하고 마음이 선량하며 친절하고 밝고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나로 하여금 한국의 생활이 어색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과 분위기는 일본과는 달랐다. 일본인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종 행동에 세심하게 단속하여 나에게 다소 어색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에 비하면 말이다.

한국에서의 임무

한국에서는 나는 세 가지 임무를 짊어지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전공 연구를 잘 하고, 동시에 한국의 지식과 문화를 공부한다.

나는 계속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며, 일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왔다. 하물며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은 “큰 것을 배운다.” 라는 것이다. 배우는 내용은 점점 더 깊어지고 양도 많아지며 범위 또한 넓어진다. 공부를 잘하면 사람은 망설이지 않게 된다. 망설이지 않으면 미래의 길이 명확하게 보이며 후회 할 만 한 선택을 하지 않게 한다. 사람이 판단력을 잃었다고 느

끼면, 설사 그가 재벌2세이더라도 그는 미래의 출구가 어디인지 볼 수가 없다. 그가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 스스로가 미래의 출구를 본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중국 석사 과정의 진다우 지도교수님께서 내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한국 회의에 오신 적이 있다. 어느 날 살아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게 되었다. 낙지가 아직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는 거의 입안으로 넣지 못 하였다. 하지만 진 교수님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일을 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마주칠 것이다. 그러니, 배워서 적응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란다.” 라고 말씀 해 주셨다. 맛이 있든 없든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배부르게 먹는 것”이다. 배가 부르면 체력이 지속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단련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경적응”은 사회에서 도태하지 않는 근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법 안에서 다른 예절에 사용될 수 있을까? 각종 다른 성격의 친구를 사귀는 것에 능숙한지 아닌지, 각종 고통스러운 공격과 실패의 교훈 등을 대담하게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닌지, 모두 적응 능력의 세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한 쌍의 젓가락은 비록 고무줄 보다 굵지만 젓가락은 절단이 가능하고 고무줄은 절단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생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한국인 처럼 즐겁게 생활하고 고추·상추·회·불고기·얼음물을 먹어보고, 밤에는 친구들과 밖에서 모여 술을 마시고 사우나를 하러 가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들어갔다 나와 보기도 하였다.

(이 일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모두 자주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적응력이 강한 나와 모든 것이 새로운 나, 그리고 완벽함이 더해진 지금의 내가 되

었다고 느꼈다.

한국의 이원범 교수님께서 “너희들은 한국인이 모두 친절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한국인을 싫어하는 경험을 아직 해 보지 못했는가? 사람도 좋고 일도 좋다고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를 느껴봐야 한 국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이후에 천천히 이원범 교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대부분이었고 환경적인 부분 역시 좋은 인상이었다. 단지 환경적인 인상이 적었을 뿐이다. “좋다”와 “나쁘다”를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한국의 “좋다”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다”보다 더 깊은 느낌을 받았다고 믿는다.

한국의 김용민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고대에는, 중국의 지식이 강대국으로 내보내졌고, 중국의 지식은 끊이지 않고 한국에 전달되어 왔고,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오늘날 중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일본은 지식 강대국이 되었다. 오늘날은 일본의 지식이 오히려 끊이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 전달되고 있다. 중국은 지식을 내보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지식을 전달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조국을 위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지식을 잘 알고 배워야 한다.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계속하여 공부를 해라. 하지만 너희들에게 많이 노는 것 역시 권해주고 싶고, 젊을 때 빨리 나가 놀기를 바란다. 하지만, 노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것을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 노는 것이 바로 공부이다.” 라고 말씀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노력하여 많이 공부하고 많이 노는 원칙을 실행 하였다. 나는 끝까지 “노는 마음”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릴 수 없다는 태도를 항상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반 년 동안, 나는 나의 전공 분야의 연구 자료를 열독하였다. 중국에 없는 틈을 타서 “천시지리인화”(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같지 않고, 땅의 이

득은 사람들의 인화만 못하다는 뜻)의 조건을 모아, 나는 나와 같은 일본 TA유학생 친구에게 나를 도와 내가 필요로 하는 일본 자료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대내외적인 각종 자료를 참고 한 이후에, 나의 석사 논문의 구상은 이미 완성되었고, 국내의 친구들의 정상적인 진행과정보다 발전이 적지 않다. 비록 석사를 졸업하기 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나는 졸업 논문의 주요 내용을 모두 “묘사”해 냈으며, 마지막 1년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생각하고 계획하여 나의 “미래”를 찾기 위해 질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학 한 이 시간동안, 마침 대통령 선거가 열렸다. 결국 박근혜 여사가 반이 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이것을 두고 한국은 “여성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여사는 “첫 번째”라는 많은 수식어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한국 역사상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 동북아 첫 번째 여자 대통령, 부친 박정희와 첫 번째 부녀 대통령, 첫 번째 미혼 대통령, 첫 번째 공학 출신 대통령. 이것은 아시아에 중대한 영향을 낳는 것이다. 내가 마침 한국에 있을 때, 이러한 한국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한국과의 거리가 좁혀짐을 느낄 수 있었다. 박근혜 여사의 인생을 보면, 그녀의 역사 역시 변화가 아주 크고 빠른 인생이다. 그녀는 대통령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연이어 양친이 암살당하였으며, 병명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따라다녔다. 10년간의 “은거” 생활을 지내고 정신적 큰 고통을 이겨낸 그녀는, 가족이 죽은 고통과 배신과 분노의 운명이 엮였어 왔다. 오늘날, 그녀는 정치계로 복귀하였다. 그녀의 패기와 매력은 중국 한 시대의 무척전과 아름다움을 겨누어 볼 수 있을까?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 줄 것이다.

나는 임기가 가득 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이 났다. 그 역시 우여곡절이 많았고, 인생의 변화가 아주 빠르고 컸다. 쓰레기를 주워봤고, 감옥에도 들어

갔다 왔다. 결국에는 그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은 나에게 어렵듯하게 중국의 황제 주원장을 생각나게 하였다.

이러한 인생의 풍파가 많은 것은, 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인생의 이야기와 같다. 나는 풍파가 많은 인생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 온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목숨을 포기한다. 둘째는, 단련하여 강력한 의사를 표출 해 낸다. 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한국의 대통령은 후자와 같다 경우이다. 나는 겨우 25살이지만, 나의 행적을 보면, 한 폭의 풍파가 많은 파도를 그려 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주위의 많은 친구들의 인생과 다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곤란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곤란함은 일종의 능률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령 체중 100kg의 사람이 가볍게 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은 이와 같이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많이 말라보이더라고 말이다. 비록 풍파가 많은 인생은 사람의 성격을 약하게 하지만 의지력의 “중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강력한 의지력을 압도할 수 없다고 굳게 믿는다. 나는 물질의 기초는 정신의 기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사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 스타, 정치가 등)도 자살을 선택한다. 그들은 결코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빨리 쓰러지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출구를 볼 수 없게 한다. 그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양식이 부족한 것이다. 오늘날 나는 “이원성은 대립된다.” 라는 이유로 먹는 물질이 더 중요하지 정신 물질이 더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것들은 공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평행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열차를 편안하게 종점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동서대학교에서의 공부 경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폭을 넓혔을 뿐 만 아니라, 인생의 깊이도 넓혔다. 동서대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한국 친구와 일본 친구 폴란드 친구도 있었다. 세계 많은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 분위기도 좋고 화목했다. 이 수업에서는 나는 다른 국가 학생 혹은 선생님의 공부로부터 다르게 말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외사 방식과 국제성의 지식 또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우물 안 개구리”의 식견을 깨트릴 수 있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과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고치고 전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는 동서대학교의 ‘일본 연구회’와 ‘한일공동연구회’에 참가하였고, 많은 한일학자의 패기를 보았다. 나는 그들의 가장 새로운 연구 과정을 들으며, 나의 지식 보고는 더욱 더 풍부해졌다.

한국에 있는 반 년 동안, 나는 독특한 경험을 많이 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수확은 장학금도 아니고 적지 않은 한국 스타일의 옷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경치가 좋은 곳을 많이 둘러 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다. 문자와 비문자의 지식이다. 책에서의 지식과 현실적인 지식이 바로 그러하다. 이곳에서 반 년 동안 얻은 지식은 국내에서 어렵게 공부한 2년간의 지식보다 더 많다. 여기서 얻는 것은 책 속에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인생의 깊은 경험과 사람과 사람사이의 법칙을 만드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무형의 재산은 나의 미래의 몇 십 년의 인생을 지도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 친구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의 공부 이외에, 나는 한국 캠퍼스 아시아 교사를 돕는 임무(TA)를 맡아,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 본과생들에게 중국어 지도와 공부를 도와주었다. 지도하는 과

중 정 나는 아이들이 근심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걱정은, 1. 캠퍼스아시아에서 누락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2. 캠퍼스아시아 본과생들은 선배와 후배가 없어 교내의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의 인간관계가 좁다는 것이다. 나는 “먼저, 너희가 선택이 되던 낙오가 되던 우리는 이미 모두 친구이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너희들의 교내 인간관계가 비록 좁다고 하여도 너희들 미래의 다국적 인간관계는 자기 자신의 특별한 장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장점은 전통의 교내 인간관계에 비할 바가 되지 못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셋째, 학생 대표의 신분인 나는 다른 4명의 TA 중국 석사생들의 연락과 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다. 광둥 외어외무대학이 5명의 석사 연구생을 TA로 뽑았지만, 나는 그 중의 학생 대표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나의 임무와 스트레스가 나를 압박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일하기를 원했고, 나의 외사 능력을 단련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비록 서로 알고 지낸 친구사이 이지만 긴 시간동안 같이 살다보니, 크고 작은 일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일은 나의 외사 처리 능력을 시험 하게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모두를 위해 중국과 한국의 소식을 전달 하였다. 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름과 모순을 제거하고 하였고, 5명의 단결과 화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나는 스스로 원만하게 임무를 완성했다고 선언할 수 있다.

국제교류

한국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넓게 개척하였다. 나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안에는, 한국 선생님과 이미 알고 있었던 많은 동서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 친구들과 일본인 친구, 유럽친구들이 있고, TA 보조를 같이 하는

일본 친구가 있고, 동서대학교의 캠퍼스아시아 학부생이 있고, 3개국의 원정교육과정의 한국·일본의 학부생이 있고, 동서대학교 국제 운동회에서 만난 다른 국가의 유학생이 있고, 사회에서 만난 한국인 등이 있다.

나는 세계 각국의 친구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나의 국제 시야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계 네트워크 또한 넓히게 하였고, 인간관계 네트워크는 풍부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나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무형의 재산이다.

결과

동서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의 5개월간은, 나는 많이 느끼고 감동하였다. 나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주의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환경 적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 생활 리듬 등을 적응해야 한다.

2. 국내의 학교와 소통하고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월 국내의 교수님께 e-mail한 통을 보내고 이곳의 유학 생활 현황을 보고 한다.

3.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개척한다. 한국 교내의 친구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사들과도 교류를 해야 깊게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자기의 교류 능력을 배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개척해야 한다.

4. 여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부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 노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노는 마음”으로

하여금 “공부하는 마음”을 감추면 안 된다. 평정심과 냉정한 태도로 문제를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유학을 하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졸업 논문 구상도 해야 한다.

5. 친구들 사이의 감정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생활 중에서의 감정문제 역시 큰 문제이다. 친구간의 좋지 않은 문제는 자기의 일상 공부, 일, 생활, 마음가짐 방법 등에서 영향을 끼친다. 평정심과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여 문제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만, 감정문제의 관건을 찾아 해결할 수 있다.

6. 유학 전에 반드시 기초의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비록 한국어에 가볍게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유학할 때, 나는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가볍게 알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으로 나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을 두루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국 유학 전에 기본적으로 한국어 과정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설사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한국어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입문의 지식은 당신이 유학하는 동안에 거대한 작용을 발휘할 것이다. 나 스스로가 유일하게 유감으로 여기는 것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반년 동안 한국어 공부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은 점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나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한국 현지의 학교 내에 한국어 교육과정 반에서 수업을 들어 보길 권한다.

The Miracle in My Life - My Exchange Life in PNU



Mengting Niu Mechanical Engineering master cours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Shanghai Jiao Tong University—Kyushu university)

I watched a movie called “Small Exchange Students” when I was a young girl which was a story about the student exchange life of a teenage boy and girl. They had their own dreams, enjoyed their lives, and experienced different living styles and culture in Canada. At that time, I admired their experiences as exchange students so much that I wished one day I could be an exchange student studying and living in a foreign country. I kept working hard, and had a chance to participate in “CAMPUS Asia” as an exchange student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ast four months in PNU has been unforgettable and remarkable. It has broadened my horizon and made my life meaningful.

Study and Research in PNU

I am a graduate student majoring in energy engineering. I continued my course study and research in PNU thanks to the great teaching situation and experimental facilities. Since I

didn't know any Korean before I arrived at PNU, I chose two specialized courses in English. The two specialized courses are related to my research field and the teachers' spoken English is very good. Through these courses I not only got a lot of specialized knowledge, but also improved my English.

Apart from specialized courses, PNU also offered CAMPUS Asia exchange students enrollment in a “Language Program” that includes Korean and English language courses. The Korean language class is taught from the very beginning and it is very interesting. Sometimes it likes a magic class as the teacher brings so many props to class and we learn new words and sentences through these props. Though we made funny mistakes sometimes, we have made great progress through correcting these mistakes. The English writing class is more relaxing and the teacher is a handsome American guy. In class we learned useful writing skills, discussed hot issues with each other, and practiced a lot of writing.



Colorful Life in PNU

In PNU, my supervisor is professor Gyung-Min Choi and I am in the Micro Spray Application & Clean Energy Laboratory. I am also in the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research team. Using the great experimental facilities and software which PNU offered us, I cooperated with other doctorate and master's students in the field of gasification of IGCC. I have already worked out a model for gasification and got good simulation results which are in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I also continued my own research in China which is in the field of oil shale. During this period in PNU, I have written an English paper named "Yield and characteristics of shale oil from the retorting of oil shale and fine oil-shale ash mixtures" and have submitted it to the SCI periodical "Fuel". Several days ago, I won the prize of "Chinese National Excellent Graduate Students Scholarship", which is the highest honor for Chinese students.

I really have had a great time studying and doing research in PNU!

Apart from studying and doing research, I have had a colorful time at weekends and on holidays. While on exchange, I had the chance to thoroughly experience the food, the places of interest, and the culture of Korea. Of all the Korean food, I love Bibimbap and barbecue the most. Sometimes I went hiking with my friends at weekends. The scenery is so beautiful, especially in autumn. I love Haeundae Beach very much and really enjoy the time playing on the beach and basking in the sunshine. There are many student activities for foreign students in PNU such as parties, festivals for foreign students, free visits to Pusan and so on. I took an active part in these activities and through them I not only experienced the culture of Korea but also made new friends. During the holidays, I went to Seoul once to visit some famous places of interest such as Gyeongbokgung, Bukchon Hanok Village, Seoul Tower and so on. I was impressed by these places of interest and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Korea.



Good Points of CAMPUS Asia

As a "CAMPUS Asia" exchange student, I benefited a lot from a multitude of unique life experiences which I might not have had in my native country. Exchange is eternally awesome, which is a worthwhile life experience.

First of all, I have experienced a new culture as an exchange student. While on exchange, I had the chance to thoroughly experience the culture of Korea. At first, I felt a little culture shock about the cuisine, architecture, and even the ways in which people show respect to elder people! I tried my best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ulture of Korea through talking with native Koreans, reading books about Korean culture, and various other means. After having spent a period of time in Korea, I found that I have become accustomed to the culture of Korea and even become familiar with the ways of life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rough meeting other foreign students in PNU.

It also leaves me with a better understanding for people of all sorts, and makes me feel as though I have become a "citizen of the world." This is amusing, and very interesting!

Secondly, I have had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learn Korean language as an exchange student. I have been bombarded in all directions by the Korean language after my arrival here. I learned Korean language not only in class but also through the communications with my Korean classmates, lab members, and even salesmen when I buy things. The language environment is so good for me to learn Korean that I made great progress in Korean language. What's more, as I learned Korean from native speakers, it is easier for m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language in the manner of a native speaker. I'm happy and proud that after more than 3 months' learning I can have a short and easy talk with Korean people now. I'm pretty sure that learning a new language will aid me in the future and will likely also help widen my range of future career options.

Thirdly, by being an exchange student I have met new friend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lots of opportunities to meet foreign friends and get to know each other as we foreign students all live in the same dormitory and have dinner in the same cafeteria. In my lab or my class, I can also make friends with Korean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from a variety of countries, such as Japan, Vietnam, Singapore, and so on. It is so much fun when we chat with each other and go on trips together. Now I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se new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ll miss them when I go back to China. Maybe I will visit them in their homeland and also they may meet me in my hometown. The friendships between us will be very long-lasting and filled with great memories!

Last but not least, I have experienced great personal development during these months at PNU. At first, I was confronted with many challenges in everyday life that I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Everything is new for me and I had to adjust to the life in Korean with a completely different language and culture as fast as I could. Although this seemed utterly frightening,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everyday life during this period truly taught me countless life lessons. I was an emotional person that I felt so beautiful and amazing for the good moments. In contrast, I truly felt like the end of the world for the sad times. As a result of homesickness, feelings of alienation, or various other factors, I occasionally went through times

of depression. However, I overcame these periods by taking the initiative to overcome them and enjoy my amazing new exchange life! Having enjoyed the good and survived the bad times of this period, I am much stronger, more confident, independent and self-understanding now. It is truly the magic of foreign exchange.

My Suggestion for CAMPUS Asia

As I mentioned above, being a "CAMPUS Asia" exchange student is a worthwhile experience that I benefited a lot from. I had a multitude of unique life experiences which I might not have had in my native country. Since this program is so successful and has many advantages, my first suggestion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CAMPUS Asia and extend the range of this program. As far as I'm concerned, there are about 10 programs of "CAMPUS Asia" between different universities and dozens of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come to Korea every year. Maybe we can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of each university to let more students have a chance to be an exchange student abroad. Also, we can extend "CAMPUS Asia" program to more universities and even extend to high schools and middle schools.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are always interested in the whole world and they will benefit a lot if they have a chance to be a foreign exchange student for a short period of time. If possible, the Korean government or universities should offer a scholarship to support

exchange students' lives abroad.

Secondly, apart from the exchange program, CAMPUS Asia should hold some science and engineering competitions or activiti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Thus,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can have a chance to share their ideas which will inspire other students and improve themselves. What's more, students also have a chance to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and make foreign friends.

Finally, the host universities should offer more English specialized courses for exchange students to choose, as we are not good enough to take a Korean specialized course. Also, the host universities should offer an opportunity for exchange students to visit the labs in their fields.

As a graduate student, I'm interested in the advanced experimental facilities and methods in PNU. Yet, I haven't had a chance to visit all the labs in my department under someone's introduction. I think visiting the labs and watching others doing experiments will give me more knowledge and ideas. Also, if the host universities give us some English speeches by famous professors, it will be very interesting and useful.

Being a "CAMPUS Asia" exchange student is really a fantastic, fun, and good experience! By being an exchange student, I have learned a new language, new culture, and also a lot about myself. It is the miracle in my life!

CAMPUS Asia, 역사의 중심에 서다.



허 군 대한민국 KDI 국제정책대학원 MPP/ED
(사업단 : KDI - 칭화대 - GRIPS)

지원동기 / 준비절차

• CAMPUS Asia, 신의 직장을 대신하다!

제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11년 12월, 10개의 CAMPUS Asia 프로그램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즉시 학교 측에 참가를 문의하였고, 본격적으로 지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 3년간 근무했던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해외건설협회를 과감하게 퇴사하였습니다. 나름 신의 직장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한·중·일 3국의 공공정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번 기회야말로 궁극적으로는 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기회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었을까요? 제 모교인 KDI국제정책대학원, 그리고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중국의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원(Tsinghua University SPPM), 일본의 국립정책연구대학원(GRIPS)은 참 매력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대학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공정책, 개발정책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특히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

은 앞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일하며 더욱 성장하고 싶은 제 커리어 비전과도 더할 수 없이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CAMPUS Asia의 경험을 거치면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최고 경쟁국들인 중국 및 일본의 관련 정책을 비교 수학 할 수 있겠다는 기대 역시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 첫 번째 교환학생, CAMPUS Asia를 두드리다!

2012년 2월 14일,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문을 연 첫 학기, 저는 3국에서 최초로 파견된 유일한 교환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북경으로 입국, 제1호 CAMPUS Asia 교환학생으로서 칭화대학교 공공관리학원 국제경제개발정책학을 한 학기 동안 수학하였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 일본 동경 소재의 국립정책연구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이면 3국에서의 소중한 시간과 경험을 마치게 됩니다. 매순간 목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2개의 석사학위(한국 KDI국제정책대학원, 일본 GRIPS)를 취득하고, 또 스스로 꿈꿔왔던 전문가의 길에 어느 덧 한걸음 더 가까워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지 기간 중 겪은 체험담

• 역사의 중심에 서다.

지난 5월 13일에 북경 인민대회당에서는 CAMPUS Asia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3국 공동의 공식 론칭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CAMPUS Asia 교환학생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맹주 한·중·일의 정상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등 영광스러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 계셨던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에게 '첫 번째 대상자인 만큼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빛내고 3국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한 3국의 협력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더욱 자랑스러웠고, 높은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디를 방문하든 당시 정상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며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62개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제가 속해 있는 CAMPUS Asia 컨소시엄인 한국의 KDI국제정책대학원, 중국의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일본의 GRIPS는 3국 정부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개발도상국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석사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재학 시에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개발도상국 정부의 우수한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과의 교류는 해외 여러 나라의 건설 관련 업무를 하는 제 실제 업무에도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KDI국제정책대학원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고르게 오는데 비해 중국 칭화대는 주로 아프리카의 공무원이, 일본 GRIPS에는 동남아시아 공무원이 주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의 대외정책이 신문 등 언론에 소개되던 것만 접하다가 실제 그 현장을 보게 되니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3국의 각 학교는 경제개발정책의 접근방법



CAMPUS Asia 론칭행사에서, 삼국의 수장들과 함께

에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양에서 시작된 일반적인 경제개발학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을 접목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와 연관된 중국의 제도에 대한 변호 및 그들의 경제발전 홍보의 느낌이 강하고, 일본은 여타 선진국들의 (주로 서양의) 접근방법인 주류경제학을 통한 경제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해외원조를 해왔는지에 대한 소개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의 차이와 특징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3국에서 직접 생활하며 학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서로간의 다른 관점들을 한 번에 배우고 비교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여타 일반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CAMPUS Asia만의 다른 점이자 강점이 아닐까요?

• 세계가 모이는 곳, 중국!

중국 칭화대학교에서의 1학기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칭화대학교가 중국 내 최고 순위 대학답게 세계의 수많은 수재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정말 부상하는 국가이며, 중국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앞으로 더욱 주목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학생들에게 종종 동북아 3국의 CAMPUS Asia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Erasmus Student Network¹⁾이 현재의 유럽연합을 있게 한 원동력중의 하나였다는 일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CAMPUS Asia를 통해 우리도 유럽처럼 한·중·일 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경제 뿐 아니라 역사, 정책,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진정한 화합

1) 1989년 시작된 유럽연합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나아가 교수까지 확대 되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역사와 경제를 교류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다.

을 이루고 세계의 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꿈 꿔 보았습니다.

• 왕복 60시간 기차를 타다.

한국에서도 추석과 같은 명절 때 귀향길 정체가 심각할 경우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보통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차나 버스의 경우 편도 15시간에서 45시간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명절 중에 하나인 노동절기간 동안에 학교친구들과 함께 청두를 다녀왔는데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일반적인 기차를 타고 다녀온 경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잠을 자도 아직도 달리고 있는 기차에 좀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지 못해서 체류기간 동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청두 여행 때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여행지에서 합류하기로 한 터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도 열차리에 계시던 중국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CAMPUS Asia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회화수준 정도 익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다른 품격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체류 노하우

• 현지인 친구를 깊이 사귀어라.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어려운 점 하나는 제 휴교에서 현지인들과 교류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3개국 모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영어로 운영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현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KDI국제정책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현지학생들은 현지어 과정에



중국, 칭화대에서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과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수업 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본인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제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외국학생들과 현지학생들의 교류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학교 내 프로그램 학생대표가 되어 일본 공무원들인 현지학생들과도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지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만 교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지피지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접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런런이나 큐큐같은 중국 현지 소셜네트워크페이지를 활용한다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 학교 모두 3국의 심장부인 서울, 북경, 동경에 위치하고 있음을 적극 활용, 학교를 벗어나서 현장을 느끼고 배우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 또한 강력 추천합니다.

• 현지어를 공부하고 와라.

앞서 말했듯이 저는 중국어,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현지로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어 및 일본어는 국어를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배우기 힘든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중국어 한 학기동안 (4개월) 전 과정을 영어로만 수학했지만, 일상 회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고 대화정도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었으며, 일본어의 경우에도 비슷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미리 현재의 제 수준 정도만이라도 국내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현지인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더 깊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경험해 본 결과, 현지어 몇 마디가 말문을 여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 현지관광을 자주 해라!

해외관광을 갈 때면 짧은 기간에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는데, 막상 한곳에 정착하고 살다보면 현지 관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토요일마다 북경 내 관광지를 가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의 큰 명절 때는 앞서 언급했던 청두 및 진시 황릉으로 유명한 시안에도 다녀왔습니다. 단지 그 곳에 가서 관광지만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친구와 함께 가서 현지인들의 생활도 둘러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오라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장점

• 나의 인맥은 전 세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이미 경험했기에 또 다시 교환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CAMPUS Asia는 달랐습니다. KDIS-칭화대-GRIPS, 3개국의 정책학을 배운다는 그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또한 다양한 행정 support 및 생활비, 항공권 등 3국의 정부와 학교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싶은 것이 바로 유대감입니다. CAMPUS Asia는 한곳에서만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3국에서, 더 나아가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끼리의 유대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학부 때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두 학기동안 지냈지만, 이처럼 끈끈한 유대감은 없었습니다. 단지 같이 수학과 있는 기간뿐만이 아닌 3국간 다른 나라, 다른 시간이라는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KDIS-칭화대-GRIPS는 정책학을 필두로 하여, 전 세계에서 온 공무원들이 수학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같이 수업을 듣던 에티오피아 공무원을, 중국에 있는 또 다른 에티오피아 공무원이 알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고리들을 발견할 때 마다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향후 개선사항

• 높이 나는 새가 되길!

같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학생에 대한 3국 정부의 지원내용이 상이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료, 학비, 학점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

다. 항공료의 경우 현재까지 일본학생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비는 한국학생의 경우 추가 학기에 대한 별다른 등록금 부담이 없는 반면, 일본학생들이나 중국학생들의 경우 추가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장벽은 일본과 중국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학교의 일부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인해 수업 주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상호간 학점인정에 대해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과다한 학점을 모두 채워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CAMPUS Asia인 만큼 아직 발전시키고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 CAMPUS Asia가 도약하는 순간이고 다만, 이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 Global Leader로의 한 걸음

향후 ODA 전문가로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직까진 부족하지만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재취업의 불안감, 부모님의 결혼 권유 등 주위의 많은 반대를 뿌리치고 시작, 광활한 중국대륙을 거쳐 이제 일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실오라기만큼의 후회도 없이 열심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안정된 직장생활과 결혼 후 육아로 보람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땐 저렇게 사는 게 답인가 하는 갈등도 있지만 한 번사는 인생이므로 아직까

지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늦깎이 공부를 하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미래에 제가 추구하는 분야에서 자랑스럽게 우뚝 선 제 자신을 상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

고 있는 학교에서 저와 같은 미래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면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 길에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단단한 디딤돌로 함께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An Unforgettable Experience - Life in Korea



Qian WEN Mechanical Engineering master course,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Shanghai Jiao Tong University-Kyushu University)

Six months ago, I could hardly imagine that I would study in Korea. Thanks to the "CAMPUS Asia" program, I got this valuable opportunity to study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st four months, I experienced Korean culture, made a lot of friends and made great progress on my research work. These experiences will be the most unforgettable experience in my life.

Colorful Life in Korea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I began to like Korean culture. At that time, the TV show "Dae Jang Geum" was very popular in China. I knew about Korean Cuisine and began to be curious about Korean culture after watching "Dae Jang Geum". Since then, I have watched a number of Korean TV shows because of my curiosity about Korean culture. I always wished that I could visit Korea and experience real Korean culture. This year, as the first "CAMPUS Asia" program began in our school, I applied for this program without

hesitation. Fortunately, I was chosen as an exchange student to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my colorful life in Korea began.

• Travel & Culture Experience

It is well-known that Korea is a very beautiful country and has a long history with a splendid culture of a thousand years. It is worthwhile to visit different places in Korea to see different beautiful scenery.

Busan, the second biggest city, owns the most beautiful beach in Korea. The moment I set foot on this land, I fell in love with this city. Haeundae Beach, Gwanghan Bridge, Taejongdae, Beomeosa Temple and Centum City, these places gave me a deep impression. I like the feeling of walking along



Haeundae Beach



Choi Ji-woo Photo Exhibition at Taejongdae

Haeundae beach bare feet, enjoying the warm breeze. I like to look into the distance to see the calm sea and the lighthouse in Taejongdae Park. I also enjoy the Fireworks Festival at Gwanghan Bridge. I love this city - Dynamic Busan.

Seoul is a city with perfect combination of classical and modernity. I visited the capital city last week. I was deeply attracted by the

ancient architecture. In Gyeongbokgung, I saw great palaces which I always imagined when I watched Korean TV dramas. People in Seoul gave me a deep impression, they are enthusiastic and their English is very good. In Gyeongbokgung, I met a young volunteer who is only 13 years old. She introduced every building in Gyeongbokgung patiently with fluent English. Thanks to her kind help, I got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history. Besides Gyeongbokgung, I have also been to Changdeokgung, Bukchon Hanok Village and Seoul Folk Costume Museum. In these places, I was fascinated by ancient Korean culture. However, modern Seoul is also full of charm. I like the famous shopping center, Myeongdong, and enjoy catching a glimpse of the city's landscape from the Seoul Tower. In conclusion, Seoul is a city that you want to visit again.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I went to Gangwon-doto ski with my laboratory members.



Gyeongbokgung



Bukchon Hanok Village



Teddy Bear Museum



Ski Resort

It was a membership travel to strengthen the friendship of the lab members. I had never been to a skiresort before, so I felt nervous when I got the snow board from my Korean friend. However, the moment I entered the ski resort, I began to enjoy this exciting sport. It was an unforgettable travel experience. We drank together and talked about everything and we slept on the floor. I believe my lab members and I will be friends of life.

Friendship

Strengthening the friendship between Asian countries is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the “CAMPUS Asia” program. In history, China, Korea and Japan have had a close relations with each other. In the eyes of westerners, we look alike. Therefore, we should stick together to make contributions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East Asia.

During the past four months, I developed deep friendships with my lab members. They are very enthusiastic and clever. Many of them gave me a lot of help. Especially Prof. Kyung Chun Kim and Dr. Hyun Dong Kim gave me a lot of guidance on Time-Resolved PIV measurement and the Laser Induced Fluorescence method. I'm very grateful for their selfless help. In the Multi-Scale Multi-Physics Measurements Laboratory, the friendships between lab members left me



Group Photo in Ballpark

very impressed. Our laboratory is like a big family. It is largely because Prof. Kim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members' friendship. He organizes group activities regularly, such as watching baseball games, parties and trips. I still clearly remember the scene when we cheered for Lotte Giants. I'm sure that I will miss my Korean friends and I will recall this wonderful memory.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ree Chinese students and three Japanes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first “CAMPUS Asia” program. We established deep friendships with the Japanese students. We talked about everything, attended the same classes and promised to keep in touch when we go back home. The recent Sino-Japanese relations tension didn't affect our friendship because we all believe that politics shouldn't affect the non-governmental exchange.

Research Work and Study

To promote academic exchange and improve the teaching quality of Asian universities is an important purpose of “CAMPUS Asia” program. It is vital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so as to make the Asian universities more competitive. As far as I'm concerned, Prof. Kim's laboratory has much experience in PIV measurement and PIV techniques which is also a main topic of my laboratory in China. Therefore, my supervisor recommended me to work in Prof. Kim's lab to do the Time-Resolved PIV about jet flow. Thanks to Prof. Kim and Dr. Hyun Dong Kim's

help, my experiments were successfully. What's more, during the experimental process, Dr. Hyun Dong Kim taught me many things about PIV measurement and Laser Induced Fluorescence methods. I benefited a lot and appreciate his kind help. During my stay in PNU, Prof. Kim also gave me a valuable opportunity to attend the KSV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Visualization) and to give a presentation at the conference which expanded my vision. In conclusion, I learned a lot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which will be a great help to my further research.



KSV Conference



Korean Language Class

The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CAMPUS Asia” in PNU are very nice. They arranged Korean language classes and English classes for us. We learned a lot in these two language classes. In addition, I also chose a specialized course named Experimental Methods of Fluid Mechanics. This course is very useful for me. I learned the basic knowledge of signal processing and different measurement techniques in fluid mechanics. So the course learning in PNU was rewarding for me.

Good Points of CAMPUS Asia

From my point of view, “CAMPUS Asia” has many good points. Students attending this program will benefit a lot.

First of all, it provides a good platform for exchange. Since I came to Korea, I had a good opportunity to communicate with the Korean students. We not only discussed academic problems, but also exchanged our views on various topics. Through these exchanges, we got a deep understanding of our respective cultures. Likewise,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the Japanese students, I deeply feel that the friendship between Chinese people and Japanese people shouldn't be affected by political issues. So, I hop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will be closer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gram.

Secondly, this program provides a new way for academic exchange and student training. Different universities have their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rough “CAMPUS Asia” program, we send students to different laboratories, it is a good way to learn from each other. As far as I'm concerned, I learned a lot about experimental fluid mechanics in the Multi-Scale Multi-Physics Measurements Laboratory which will be useful for my future research. Therefore, “CAMPUS Asia” is a good way to learn from each other.

Last but not least, the program is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s. Students attending “CAMPUS Asia” can improve their English which is critical to their future development. As for me, I also learned some Korean language which may be useful in the future. What's more, this program expanded my vision, I learned many things from my Korean counterparts. Also, we can make a lot of friends through this program and it is an intangible asset. So in my opinion, there is no doubt that students can benefit a lot from the program.

Suggestion

As the first students of “CAMPUS Asia” program, I would like to share my ideas about “CAMPUS Asia”. I hope my suggestions will be helpful for this program.

My first suggestion is that when we send our students to another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corresponding laboratory in that school that can let the students continue their own research work. I gained a lot in my

research work at PNU, it is due to the common research direction between the two laboratories. However, I know some students couldn't find a suitable laboratory that would let them continue their previous research work. In that situation, it may affect the students' graduation.

If universities can provide more courses taught in English then exchange students can have more choices. This is my second suggestion. Since we come from different majors, more choices are needful to guarantee every student can choose a suitable course.

My third suggestion is that it is better for the exchange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live in the same dormitory.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exchange students come from China and Japan. Chinese students live together.

Likewise, Japanese students live with their schoolmates. If Chinese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live together, they may have mor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o practice their spoken English.

Acknowledge

Finally, I really appreciate the “CAMPUS Asia”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I had an unforgettable memory. Her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I met a lot of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got a deep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learned a lot from my lab members and improved my English and Korean. I sincerely wish every success in your future endeavours.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이현경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복단대 · 고베대)

지원 동기 및 준비 절차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고자 입학한 고려대 국제대072학원에서 저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캠퍼스 아시아 조교일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습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와 같은 시스템을 아시아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그 동안 관심을 가져온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공부를 일본 현지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1995년 발생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왕성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현장이 바로 고베대가 있는 고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려대와 교류를 맺고 있는 고베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관리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일본의 명문 대학교이고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을 겪으며 견고해진 일본의 재해방지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파견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고려대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일본 시민사회 및 재해 방지 시스템에 대한 자

료를 읽고 관심 있는 기관들을 찾아보면서 인터넷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고려대와 고베대의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은 메일 등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베에 도착,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기까지

학기가 시작하기 약 2주 전에 도착한 고베 산노미야(三宮)에는 안내를 도와줄 고베대의 학생과 캠퍼스 아시아 선생님께서 나와 계셨습니다. 1년간 생활할 집을 안내해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을 함께 도와주시는 등 고베에 도착한 순간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캠퍼스 아시아 스태프분께 타지에서 시작하는 유학생들이 두렵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고, 현재까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모두 도착하고 난 뒤에는 건강보험 등록, 외국인 등록증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약 일주일여 걸쳐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본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지도 교수님과도 연락을 드리고 배정된 튜터와도

만나 GSICS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KOBE GSICS의 CAMPUS Asia 학생으로

• GSICS의 장점

GSICS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하며 생각했던 GSICS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유학생들은 튜터(Tutor)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도 같은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파견된 학교의 시스템이나 분위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내의 각종 이벤트에 대한 정보나 수업에 대한 의견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튜터제도가 초기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더 익숙한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현지 언어로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도 튜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GSICS의 튜터 제도가 다른 학교에도 꼭 개설되어 후배 참가자들이 파견학교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GSICS에서는 영어,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GSICS의 학생들이 두 가지 언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영어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견 국가의 문화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 수업을 일본어로 들을 수 있는 GSICS의 제도가 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글로벌 정치론이라는 수업을 일본어로 청강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세미나 수업은 학생들간의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합

니다. 개인적으로 GSICS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세미나 수업은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논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선후배가 함께 토론하면서 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논문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질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캠퍼스 아시아 복수학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인 세미나 외에도 서브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데 스무 명에 달하는 동기들, 선배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CAMPUS Asia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기회

첫 번째로 자연재해 관련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베대로 파견된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수업이나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관련 수업들(Risk Management, Disaster Risk Reduction for Mega Earthquake)은 위기관리의 기술적, 전략적인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특히 DRR수업은 GSICS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인 JICA학생들이 함께 수강하여 수업의 질을 한 층 높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과학 도서관 내부에 있는 지진 관련 자료 전용 도서관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 3.11 대지진에 대한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 저와 같이 자연재해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배정해준 숙소에는 2개의 방이 있어 현재 중국인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중국 문화나 제도, 짧게나마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

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말 그대로 CAMPUS Asia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의 생활 노하우 및 문화 체험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특히 교통비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등교할 때 전철과 버스를 각각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와 집을 오가는 데에만 760엔(한화 약 1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학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는 학생할인을 받아 전철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학위 학생 즉, 정식으로 학생증을 발급하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환학생들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타지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할 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문화는 학교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도 현지의 일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처음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캠퍼스 아시아 측에서 준비해주신 선물을 들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던 경험입니다. 옆집에 이사를 왔고 앞으로 잘 부탁 드린다는 인사를 하는 일본의 문화는 한국인인 저에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이 덕분에 같은 건물에 사는 할머니, 그리고 그 가족분들과도 인사를 주고 받는 등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웃'이 있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유학생으로의 생활은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피카드도 고베에 있는 관광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 사항

개인적으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수학위 학생을 중심으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환학생들은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고, 학생증 발급도 정식으로 되지 않는 등 복수학위 생들과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환학생들이 모두 겪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차원에서의 대안 제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은 복수학위 학생이든 교환학생이든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데 교환학생들은 정기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원래 요금으로 전철을 탈 수 밖에 없는 등의 별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런 부분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차원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배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동아시아를 체험하고 싶다면 CAMPUS Asia라는 프로그램만큼 매력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고베대·푸단대의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프로그램은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파견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언어까지 습득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후배 참가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여 개인적인 커리어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중일 삼국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기 바랍니다.

ESSAY for CAMPUS Asia 2012



Liu Bin Peking Universit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NU-PKU-UT)

From September to December I stayed in South Korea for nearly four months which is the very first time for me to stay abroad. If there is only one word to describe this experience, it should be "wonderful".

The motivation for me to take part in the program is simple: to see somewhere different from China. This program provided such a good chance for me since Korea and Japan are both my interesting countries and I appreciate the "Asia Value" which the three countries share with each other. It is also subsidized and supported by three nation's education department. So I highly expected this program which did not disappoint me at last.

The whole exchange life is wonderful. I would like to talk about my academic life first, I took two courses i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the Korean language class. The two courses were: Global Business Strategy

(GBS)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 the former was taught by our Dean Professor Hwy Chang Moon; the latter one was by Professor Lee Geun. In GBS class, beside basic business models, professor provided us dynamic views on global business which are significant in this globalization world. In IPE class, I learn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economy through the history of capitalism from Great Britain to United State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China. It made me think about the future of China from the IPE's point of view which inspired me quite a lot. For the Korea language class, I do like the teacher and our classmates who were from all over the world while I am a little regret because the evening class was not very intensive and I should spend more time on it. So for future participants, if they want to learn more Korea, I recommend the afternoon language class.

The second part is Campus Asia Program's

activities and students. Our program provided us many interesting activities in which I like most is the field trip. It is the first time CAP students got together and started our friendship since then. Besides the Samsung Delight and Suwon Hwaseong, the whole night singing and talking in the hotel made us know each other more. And then the CAP Presentation was the chance for us to work together which turned out to be work very well and our group won the award happily with the topic of aging society in East Asia. For the students I met, although most time we could only talk by English but sometimes when we got together four languages were used and it was really fun which made me realize how I lived in an international Asian world. I am happy to meet many smart students from CAP.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the really good friends are not easy to make. We met each other by random, we did not know each other's character and it turned out to b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it is impossible for every one of us to become good friends wh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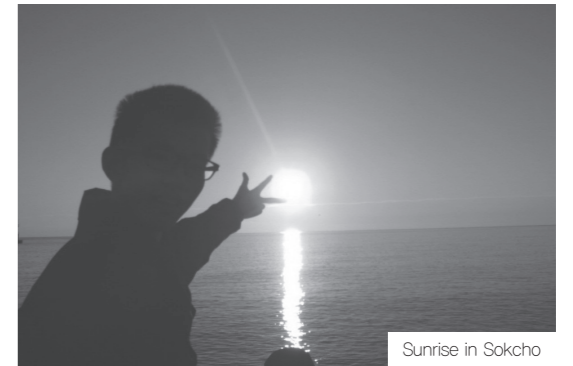
Our group won the Campus Asia Program Presentation

means there is a risk for our program that although we knew each other by many activities but we may not like each other or we cannot like everyone. Knowing more sometimes does not mean understanding more. However, I think what I gain and understand is more than what I cannot understand.

The third part is my travel in Korea. I traveled three times in this semester. The first one is Seoraksan and Sokcho in October with Campus Asia students from Peking University. Seoraksan is quite beautiful and from the top of the Ulsanbawi we could see the beauty of East Sea. Sokcho is a small city but it is very convenient for tourists since the travel information is complete and the people are kind. The second one is Busan where had the most beautiful seascape I have ever saw. The Busan people are different from the Seoul people from their clothes and behaviors. I like the atmosphere of harbor city, the seafood and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third travel is Andong traditional culture trip. Frankly speaking, many Korean traditional culture origins from China and I once looked down up it. However, this trip gave me different impression. At first,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s its own features and second, some cultures from China are kept better than those in China. I think Chinese people should learn more from Korean in protecting culture. From these trips and my life in Seoul and SNU, I saw the beauties and the developed tourist industry in Korea.



Sunset in Seoraksan



Sunrise in Sokcho

The next part is my campus life in SNU and Seoul. SNU is a very beautiful university: in autumn, folium ginkgo and maple leaf dressed the campus with pretty colors; in winter, snow made it pure and clean. It is also a convenient campus, living in it I did not need to worry whether I had places to eat, whether I had bus to take, or whether I had somewhere to study and play~. It provided me an environment good enough to live and study, to feel the Korean life style. For Seoul, it is such an international city that there is no need for me to worry about the language problem, I like the fashion in Seoul, the diversity in Seoul, the spirit in Seoul. To sum up, from my life in Seoul and Korea, I think Korea is more developed than China in many aspects: it is cleaner and does better in public health; the travel information is easier to get and travels are very convenient; people are more polite and civilized; the whole economy is very prosperous, and so on. At the same time, I also knew about some problems in Korea society, such as: young generation's employment; house price in Seoul; education problem;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etc. I hope the three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and to build a more prosperous East Asia.

At last, I have some little suggestions for our program, I like CAP very much on the whole but I think we can improve it in these ways: first, are there more chances for the participants to work together? Travel, eat and drink together will help to know each other, but work together is more important since if our participants will work for the government in the future, it would be better for them to know how the other countries' friends work. So, if there is an internship for them to work together for a longer time such as two weeks or more, it will be better for them to know each other more. Seco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to learn some basic language skills in other two countries before they go abroad. One semester is quite short; if they know some languages they can adopt into the local life soon and better. These are my two little suggestions for our program. Hope it will help! For future participants, I think they should know

more knowledge about East Asia: languages; history; current issues. If they can do it well before they go abroad, they will get more in their exchange life.



Our Group Picture in Samsung Delight

I have learned Japan in Korea



Yuki Fukushima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Tokyo
(SNU-PKU-UT)

I spent one semeste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Campus Asia student. My experience at this graduate school is quite valuable for me because I was able to learn about my home country, Japan, a great deal.

I had two objectives in my mind when I decided to apply for the Campus Asia program. My first goal was to examine my own country from different and crit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analyze and better understand your home country, you must look at it from different and critical perspectives. This is because, only through the critical analysis, you can truly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ountry. I expected that studying in Korea and China would be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My second goal was to learn about Asia. Although Japan has learned from Western countries for a long time, now it is time for Japan to look at Asia as a whole and learn from Asia; because without

amicable relations with the Asian countries, my country cannot further grow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Japan should maintain and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Korea and China. Since China has already emerged as a major power, the country is crucial for its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e Korean economy is quite successful these days. Korean companies are quite active all over the world, and the government significantly supported these companies by creating and implementing trade policies. Japan can learn from the Korean economy.

I took four course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nd I mainly studied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trad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With regard to Korea-Japan relations, the year 2012 is one of the hardest years for the two countries because of recent disputes. Several friends asked me whether Korea was safe for

Japanese people; however, due to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 thought about Korea–Japan relations quite seriously. I had opportunities to talk with Korean students about sensitive issues regarding Korea–Japan relations. This was a valuable experience for me because I was able to talk about these issues with Korean students in a respectful manner.

Also, I was able to hear numerous critical opinions on the Japanese society from Korean professors and students. I had heard these criticisms in Japan; however, critical remarks made by foreigners seemed more serious, and they provided me with a new perspective to examine my country. One of the professors at the graduate school is quite knowledgeable about the Japanese society, and he gave me valuable advice for the future of Japan. In one of the classes, I summarized one article about the Japanese

political system. According to the article, Japanese ruling party politicians have distributed money to local people in order to be reelected in the next election, and they are still continuing to do so although the system has not worked and does not work. After my presentation, the professor told me that Japanese people excessively dwell on the glorious days of the past, and that Japanese people must forget those days in order to rebuild the Japanese society. I was extremely convinced by his opinion, and I was allowed to understand what young Japanese people should do for the future of Japan.

By learning about Korea–Japan relations, not only was I able to understand how people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think about Japan, but also I was provided with the chance to look at Japan from different and critical perspectives.

Furthermore, I studied the trad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t GSIS, I was able to

take a course conducted by the professor who is a specialist in trade policies. The Korean trade policy is characterized by its FTA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several FTAs with major countries, such as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ifficulty conclud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jor countries.

I heard that the FTA issues are also controversial in Korea. Numerous people, especially farmers and NGOs, are opposed to the FTAs. But, at the same time, I learned the importance of export for the Korean economy. The economy depends on trade itself, which is around 95% of the GDP (2011). This importance of the trade has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conclude such FTAs.

Japan was an export-oriented country, but it has lost its competitiveness, which used to be the strongest in the world. As a result, a numb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related themselves abroad and closed domestic factories, which used to hire large numbers of employees. In order to keep the employment rat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o raise its competitiveness by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the country. Through the research project that I have worked on at GSI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Japan has to learn from Korea.

By leaning about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Korean trade policy, I was able to explore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Japan. I would

like to make full use of the experience at GSIS in order to contribut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society but also to the improvement in Japan’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countries.

I highly appreciate the Campus Asia program because I was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grow through experience. However, there are also areas for improvement, and they are as follows. Firstly, both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need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political or historical issues with Chinese students in the Campus Asia program. I had numerous opportunities to talk about such issues with Korean students, but I had much less opportunities to talk about them with Chinese students. If there were a course in which students can study and discuss the East Asia relations, the Campus Asia program would offer a more comprehensive exchange program.

To the studen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or University of Tokyo, I highly recommend joining this program, and I would like to offer two pieces of advice to them. Firstly, students should make sure they know what they would like to learn from the Campus Asia program. If you join this program as an exchange student, you can freely choose your courses. Then, you should choose your courses in accordance with what you want to acquire through the Campus Asia program. Secondly, before going to the partner university, you should



Workshop of "Kim Dae-Jung and Korea–Japan relations," on November 1, 2012



Distinguished Lecture at GSIS by Korean Trade Minister, on November 12, 2012

have your own ide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r country and the other country. You can share your ideas with other students. Discussions may be tough and challenging, but you can significantly improve your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country by engaging in the discussions.

All in all, I spent valuable time in Korea. I appreciate all the professors, students, and staff members who are related to this program. I learned about Korea and Japan a great deal.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building a good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future.



Farewell Party of the Campus Asia Program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체험수기



차영혜 대한민국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사업단 :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입명관대)

처음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때 고등학교 졸업 후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참여에 대해 절실했던 데엔 넘치지 못한 가정형편이 한 몫 했습니다. 당시 어렵게 하거나 인문학을 통한 사회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언어 습득과 함께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그 후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두 하기엔 저의 가정 형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대학교 1학년 때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이 발족되면서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까워서 만날 수 있었던 동서대-광동의대-리츠메이칸대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은 '동아시아를 이끌 인문학 리더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일차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언어, 문화를 배우고 이차적으로는 한중일의 각 대학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을 돌며 함께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면 3개국의 기업 중 원하는 곳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국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을 들었을 때 더욱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단에 참가하며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높은 성과를 위해 우리에게 행해졌던 여러 가지 지원들은 그것이 가능토록 해주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특성상 보통의 대학 생활과 달리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수업 해주시는 교수님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망설임 없이 언제 어디서건 학습에 관하여 교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선 수업, 과제를 개개인에 맞춰 꼼꼼히 살펴주셨고 전 저의 개인적인 학습에 관해서도(혼자 해본 작문이나 수업을 정리한 노트에 대한 자문 등) 망설임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정규 수업 중 가장 좋았던 것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아시아 문화의 이해'입니다. 이 수업 덕분에 첫째론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태도를 고치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고 협동성을 익힐 수 있

었습니다. 둘째로 제가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진행은 조별 발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정한 주제에 대해 약 2주 동안 조사한 후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발표합니다. 그러나 발표 후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때 발표한 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자신들이 느낀 점을 말하거나 발표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하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시간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진 발표도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공동으로 평가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준비에만 몰두하였는데 당시 우리 조가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은 개개인의 차이 많이 난다는 것 즉, 조원간의 통일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차례 이러한 지적을 받은 후 저의 개인주의적이었던 태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조원간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느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더욱 꼼꼼하고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는 주로 중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는 각국의 전통의상에 대해 했던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당시 발표와 관

련된 사진입니다.

2학기에 들어와선 중국과 일본에서 유학생을 뽑아 캠퍼스 아시아 참가 중인 학생들의 TA선생님이 되도록 해주어 정규 수업 외의 부가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별로 이루어졌던 이 수업은 중국과 일본의 현지인에게 한국의 문화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설명해보고 또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각국의 언어로 직접 들어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아래는 그 예로 중국인 TA선생님과 경극을 본 후의 사진들입니다.

이 외에 중국과 일본 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정기적인 특강으로 부산의(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은 부산, 광주, 교토를 잇고 있습니다)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강의를 전문 교수님들로부터 들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미동에 관한 강의였는데 아미동이 어떤 곳인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강의가 아니었다면 부산에서 몇 년을 살고도 부산이 간직한 전쟁의 상흔과 아미동 주민



이 발표를 위해 중국의 전통의상 치파오와 일본의 전통의상 기모노를 준비하여 입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주제와 관련된 의상을 입고 발표하는 식은 처음이었기에 가장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경극의 어떤 동작이 얼마나 힘든지, 공연에 어떻게 호응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국어로 들 수 있었습니다.



들의 아픔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캠퍼스 아시아에 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고루고루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월 여름방학동안엔 Short Stay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중일 학생들이 함께 활동한 Short Stay는 크게 수업-필드워크-합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러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토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수업입니다. 이유는 한중일 학생들이 친구로 지내다가도 공과 사를 구별하고 서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의 목표는 '동아시아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인문학적 인재 양성입니다. 전 이 사업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재 상에 필요한 자질이 바로 이 수업에서 확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후에 이루어진 조별 필드워크 맨 각국의 여러 명승지를 다녔는데 이후 한중일의 어느 문화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국에 현재 남아 있는 수많은 유산엔 어느 방향으

로든 서로가 영향을 미친 것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인데 이를 통해 왜 우리가 공동적으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필드워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맞추며, 조원을 특히나 외국인들을 통솔하면서 일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힘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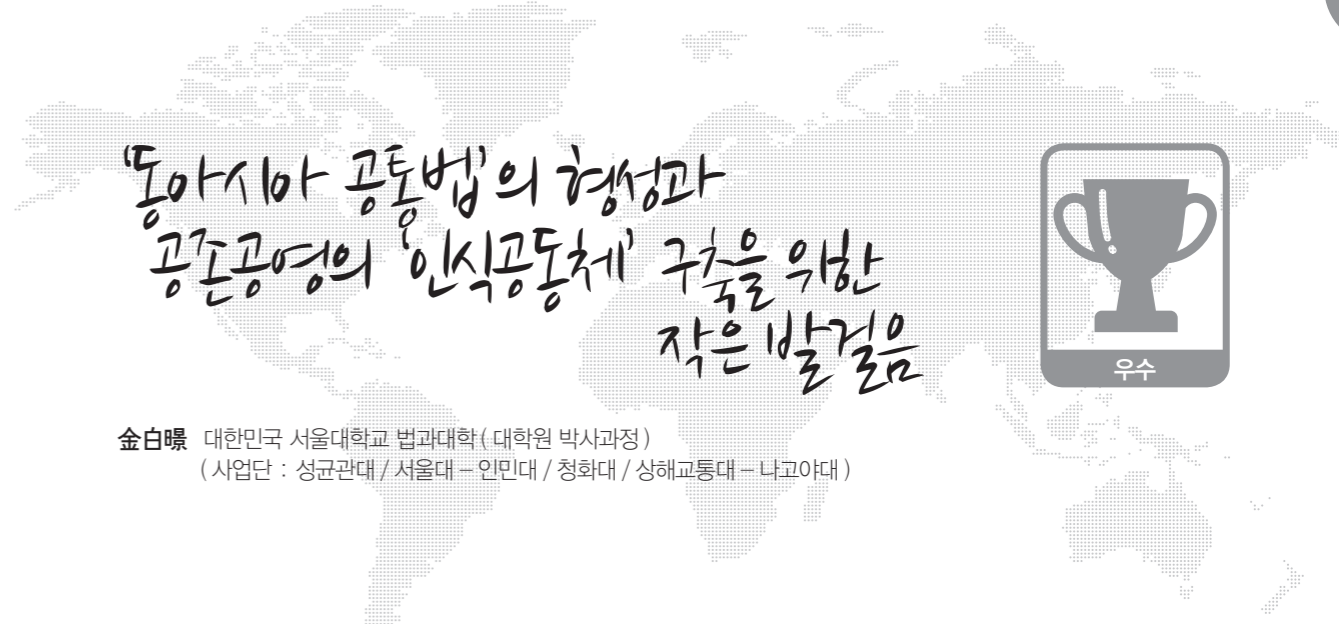
하루 동안의 필드워크가 끝난 후에 우리는 함께 숙박을 했습니다. 전 이번 합숙이 결정적으로 한중일 학생들이 서로 끈끈해지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어울리면서 단지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로서 서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나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성격과 같은 단순한 것 뿐 아니라 각자가 (나라별로)어떠한 사고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저에게 온 가장 큰 변화는 제 의식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국수주의적인 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한국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자국의 힘으로만 잘 사는 것이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세 나라가 동반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많은 기회들을 (심지어 국비로) 제공해줍니다. 내세울 것이 더 많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적자면 첫째론 특강의 주제입니다. 특강을 통해 부산의 역사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사업단의 목표가 '인문학 리더 양성'인만큼 이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인문학 리더란 어떤 것일까'와 같은) 강의도 함께 해주었

으면 좋겠다는 것. 둘째론 TA수업이 2학기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활동인 만큼 다음번엔 좀 더 일찍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Short Stay를 한 후 한국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은 감상문 쓰기 정도였는데, 중국학생과 일본학생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했던 활동별로 리포트를 쓰게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감상문만 적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선 편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약처럼 배우고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선 좀 더 엄격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1기인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까지 얻은 것 그리고 앞으로 얻을 것을 통해 정말로 한국, 중국, 일본 삼국간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발전의 길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앞으로 참가하게 될 후배들이 미래에 동아시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白晳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대학원 박사과정)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인민대 / 청화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우선 '동아시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겠지만, 대체로 한자(漢字)와 유교(儒敎)를 역사적·문화적 유산으로 공유하는, 아시아 대륙 동쪽의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지칭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듯하다. 이 세 나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역사를 통해 서로 투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등 밀접한 연관을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바야흐로 '아시아의 시대'라 할 만큼 이 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비중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깐 눈을 과거로 돌려 보자. 세계사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로마'는 흔히 세 가지 부면에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이야기 된다. 그 하나는 '군대' 즉 정치·군사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즉 종교·사상적 측면이며, 마지막은 '법' 즉 법률과 제도라는 측면이다. 나는 이 중에서 '법'이라는 측면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로마법'은 고대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규범적 실체였고 시간이 흘러 중세와 근대 서구법의 원형(原形)과도 같은 막대한 위상을 지닌 존

재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법치국가들 역시 그 제도적·사상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부인한다 해도 '로마법'은 유럽대륙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찬란한 정신적 유산으로서 지금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한다. 한자와 유교를 공통유산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이 그 역사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은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때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세계사적 흐름에 따라 서구법을 계수하여 지금의 근대적 법제를 구축한 이 지역이 이제는 21세기의 새로운 흐름을 자각하고 이를 선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동아시아 공통법'의 형성이라는 과제의 문명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률과 제도는 결국 인간이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동아시아 공통법'의 형성과 이에 기반한 공존공영의 '인식공동체' 구축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지역 각 분야 인재의 육성이 그 핵심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금번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구상되고 그 첫 발걸음을 내딛을 학생들이 선발되어 한

중일 각국의 대학에 파견되었다. 나 역시 이와 같은 원대한 문명사적 흐름에 미력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원 동기 및 준비절차

· 지원 동기

나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으로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며 한국 근대법의 형성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배가 가지는 의의를 추적하는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레 내 시선은 일본을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 나고야 대학(名古屋大学)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나고야 대학은 20여 년 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법제 정비·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

파견 기간 중 내 학위논문과 연구 주제에 도움이 되는 수업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영감을 얻고, 향후 '동아시아 공통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학술교류를 염두에 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 준비절차

합격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준비절차에 돌입하였다. 맨 먼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明書)', 지도교수 추천서 등 각종 유학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1) 이와 같은 목적으로 나고야 대학에 설치된 기관이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法政國際教育協力センター, CALE)'이다. 이 기관은 법과 정치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아시아 제국(諸國)이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수월하게 이행할 수 있기 위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나고야 대학의 연구 시설 중 하나이다.

제출하였다. 일본측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가서 발부받았는데, 1년이 기한이므로 자신의 귀국일정과 조율하여 적당한 시점에 발부받기 바란다(참고로 일본 대학은 10월부터 가을학기가 시작된다).

현지 언어의 습득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유학 목적으로 가는 만큼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언어 실력은 국내에서 구비하고 가야 내실 있는 유학 생활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파견 대상 학교와 유학 선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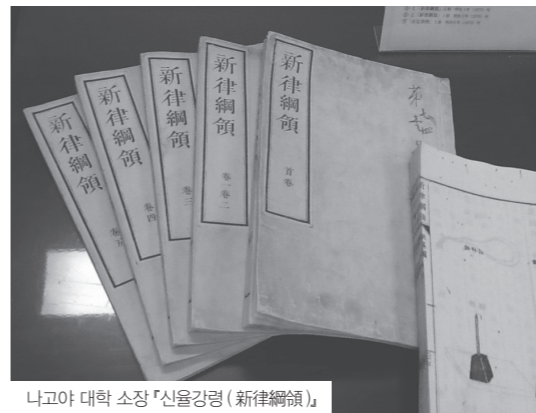
현지 체험담

2012년 9월 24일 드디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中部國際空港)'에 상륙하였다. 해당 대학에서 관계자 몇 명이 마중을 나와 머물게 될 기숙사까지 안내를 해주었다.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1인 1실 구조여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 나고야 대학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 학교와의 거리는 기숙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냈다. 처음 외국 유학 가면 전입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은행계좌 개설 등 현지에서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교직원들과 '튜터(tutor)'라고 하는 유학생 1인당 한 명씩 배치되는 나고야 대학 일본인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한 것 같다. 다음은 내 튜터인 사카모토 아즈사(坂本 あずさ)양과 같이 찍은 사진이다.



튜터인 사카모토 아즈사 양과 함께 (오른쪽이 필자)



나고야 대학 소장 『신율강령(新律綱領)』

참고로, 사카모토 양은 나고야 대학 법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상냥한 여학생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일본어 보습(補習)이나 학교 생활에 관한 각종 상담 및 조력을 받고 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나는 10월부터 시작된 가을 학기에 모리가와 야스토모(森際康友) 교수의 「법철학기초연구」와 진보 후

미오(神保文夫) 교수의 「일본법제사연구(근대법사의 제문제)」 두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모두 교수님 면담을 하였는데, 두 분 다 꽤 친절하고 유학생인 나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편이었다. 특히 진보 교수의 세미나는 수강생이 나를 포함해서 일본법제사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생 둘 밖에 없는데, 원래 극단적인 초서체의 에도막부(江戸幕府) 시기 사료를 강독하기로 하였으나 내 사정을 고려하여 활자체의 메이지(明治) 초기 사료(仮刑律, 新律綱領, 改定律例 등)를 강독하는 것으로 강의 계획을 변경하여 주었다. 또한 수업 중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진귀한 일본법제사 관련 사료도 접할 수 있었다. 다음은 위에 적은 『신율강령(新律綱領)』이라는 사료의 나고야 대학 소장본 그림이다.

또한 법학도서관의 폐가서고에는 위에 말한 자료들 외에 법제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마치 나에게 '제발 나를 읽어주세요'하고 손짓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역시 나고야 대학도 예전 '제국대학(帝國大學)'들 중 하나여서 그런지 장서 수에 있어서는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부지런히 도서관 문을 드나들며 논문 관련 자료수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고교생 대상 캠퍼스 아시아 사업 세미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고야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대학생들이 당해 사업을 설명하고 자기 나라의 문화와 교육 및 대학 생활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나도 세부 소그룹의 리더의 역할을 맡아 뜻 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 역시 한중일 세 나라는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공통법'과 '인식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참가 고교생들



세미나 참가 고등학생들과 함께 (맨 왼쪽이 필자)

과의 기념사진 중 하나다.

해외 체류의 노하우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유학하고 있는 일본 나고야에서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본다.

일본 기숙사는 우리와 달리 바닥에 보일러 시설이 없다. 이는 아마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겨울엔 전기장판을 침대에 깔고 자는 것이 아주 좋다. 나는 한국에서 110/220 볼트 겸용 제품을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인데 특히 교통비는 학생이 감당하기에 매우 벅찬 느낌이다. 특히 내가 있는 기숙사는 나고야시 사쿠라야마역(桜山駅) 근방에 있는 '나고야대학유학생회관(名古屋大学留学生会館)'이라는 곳으로서 학교까지 자전거로는 20여분, 지하철로는 30여분 가량 걸린다. 그래

서 나도 다른 학생들처럼 교통비도 아끼고 운동도 할 겸 중고품점에서 7,000엔 주고 6단기어 달린 자전거를 한 대 구입했다. 그나마 여기는 대부분 평야지대고 자전거도로와 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가 매우 수월하다.

나고야 대학에서는 정규 수업 이외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일본어 강좌나 문화 프로그램들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풍성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면 현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어도 빨리 숙달될 수 있고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선사항 제안

나는 대학원생이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내가 들인 비용에 비하여 꽤 괜찮은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국내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도 차기 파견학생들(특히 학부생들)을 위하여 개선사항을 몇 가지 적어 본다.

먼저 현지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에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것 같다. 학점 인정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가 복잡한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동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위한 인식공동체를 만들어 갈 인재육성이라는 대의(大義)에 입각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의 제공과 보다 유연한 수강신청 정책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현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듯하다. 물론 학생 각자의 언어 능력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행정력을 더 동

원하여 내실 있는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다각적인 접촉을 주문하고 싶다.

후배님들에게

낮설고 물 설은 외국에서 1년간 공부한다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큰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이 되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외국 유학이라는 기회를 선용하여 자신이 뜻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적극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회들을 찾아다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라고 하겠다.

또 한 가지 여기 와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유학생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각종 지원활동이 풍성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주고 또한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역시 일본에 와서 그들에게 배우는 소극적이고 수세적(守勢的)인 자세에 머물기보다는, 우리도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攻勢的)인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본다. '민간 외교'가 별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민간 외교'가 아닐까 한다.



2012년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체험수기



Gaye Ki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PKU-UT)

Being sent abroad as one of the first pioneers of CAMPUS Asia Program, I was thrilled to hear the news that I got accepted into the Program and will be going to Peking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for one semester. My inherent interest in Northeast Asian region was the main reason for applying to this program. Yet, many uncertainties dawned upon me as I counted the final days to my departure. I started questioning whether I was willing to risk the trade-off for Campus Asia Program over my home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NU GSIS). Was I ready to start a new life in another country when I just finished one semester at GSIS? Was I prepared to face new challenges? Was I fully aware of the academia criteria in other schools? Would the education from other schools complement with the major of my home school? Stipend was another concern because in Korea, I still managed to earn a little money through tutoring to sustain my living. I was informed that there was still

ongoing negotiation between the three schools, and that the concessions have not been finalized between SNU and PKU.

Nonetheless, I stuck to the plan, and now looking back, I have no regrets but gratitude for better opportunities that came along with the risk. At PKU, I was enrolled into the Maste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IR) Program, with 19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some including the US, Kazakhstan, England, Iceland, Norway, Italy, Japan, Australia and Hong Kong. I became very fond of my new classmates, and we organized a family dinner every Thursday, each time trying out new types of Chinese cuisine. Occasionally, we would organize house parties and bring our cultural food and introduce cultural games to each other. Once, I taught how to dance Gangnam Style, which became an instant hit amongst friends. I was also happy to meet my two other Japanese counterparts, Yoshi and Tomo, who came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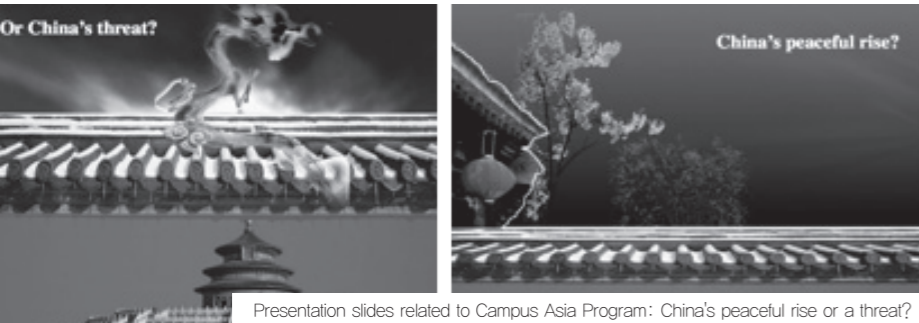
University of Tokyo, also through the Campus Asia Program. Still, I find myself very lucky to have attended this program with my other Campus Asia partner Haemin, who is also from SNU.



This semester, I have selected four courses: Med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aught by Prof. Fan Shiming (who is also our Guiding Professor), Chinese Foreign Policy Analysis taught by Prof. Zhang Qingmin, Chinese Politics and Public Policy taught by Prof. Zhang Jia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Political Economy taught by Prof. Wang Yong (undergraduate course taught in Chinese). I was surprised to see that the Chinese Professors spoke English with such eloquence, despite not having attained Western scholarship. Readings are done prior to lectures, and for each lecture, students engaged in class discussions. I've had fruitful discussions in class with my fellow students and teachers; it was interesting to hear

students' distinctive arguments on various issues based on different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ories.

To relate my studies with the Campus Asia Program, I have chosen topics related to Northeast Asian integration. For example, I presented 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CJ of National Media Coverage on Island Disputes" for my Media and IR class, which is about how Korean, Chinese and Japanese national media coverage on foreign policy affected national policy. I did a research comparison of the media reports from Chosun Ilbo, People's daily and Yomiuri Shimbun on the recent Senkaku/Diaoyudao and Dokdo/Takeshima islands disputes. For Chinese Foreign Policy Analysis class, I've looked into the topic "China and East Asia Integration", and debated whether Asia is "ripe for rivalry" or "ripe for cooperation", or if China's rise was a "threat" or merely a "peaceful" rise. Overall, these courses were academically challenging. I have learnt a lot about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how that affects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despite having taken courses at PKU that shared overlapping topics to that of SNU, for example at SNU I have take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International Negotiation Simulation whereby I took International Trade and Political Economy at PKU, courses were structured differently which allowed me to gain a broader and in-depth analysis for such related field of studies.



Presentation slides related to Campus Asia Program: China's peaceful rise or a threat?

Aside from school, I did not do much travelling because I already visited most of the main attractions in China before. Still, I was able to fly down to Sichuan during the “Golden Week”, also called the “October Festival”, for 5 days to attend a Chinese high school Model United Nations Conference as the Director of Security Council. Meanwhile, I managed to find a part-time internship at the UNESCO Beijing Office for three months, and I have met many wonderful colleagues and interns from China and abroad. I was the only Korean intern there, so my work consisted of producing reports on the funding of North Korea ICT pilot project, to assist in basic computer work and participating in company-funded women and children project meetings. Amongst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periencing the important phase of political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was most memorable to me. During my stay in China, I have witnessed the atmosphere changed during the 19th party congress and I have closely followed up with the Chinese leadership transition from Hu Jintao to Xi Jinping. It was also a historical moment for Koreans, in particular overseas Koreans,

because the first South Korea Overseas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year. Through the PKU Korean Students Association, I have signed up and participated in the Presidential voting at the Beijing embassy. I have never felt so proud being Korean outside of our country.

All in all, CAMPUS Asia Program at Peking University wa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and it is probably the best thing that has happened to me in 2012. For the past four months, I've learnt a lot about China, met great new friends, had an internship opportunity and had an eye-opening experience. With the ongoing Northeast Asian integration, the endorsement of FTAs and growing exchanges, I believe Campus Asia Program i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institutional building in the region. Because this was the first time for Campus Asia to initiate its program, there have been a few shortcomings. Problems and misunderstandings related to course selection, financial support and supplementary language course have emerged in the interim. I was quite disappointed with the limited selection of courses for this semester at Peking University, and we were informed very late that there would be fewer classes to choose from than the initial course offerings. Therefore I had difficulties trying to choose courses related

to my home major's course requirements, and had to ask for other available courses. I think it will be better if Peking University can offer exchange students classes outside of the MIR program for wider selec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financial problems have been solved at a later date, Peking University did not provide supplementary language course for free to Campus Asia students. In the future, I hope Peking University can provide language course to Campus Asia students. Moreover, there weren't many opportunities to meet Chinese students as we were categorized in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division. I find this a little unfortunate, as our chance to interact with Chinese students was quite limited.

In the long run, I believe Campus Asia Program will not only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ut also establish itself as a cornerstone for regional academic studi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Hence, with the increasing collaboration

between Chinese, Korean and Japanese academia, it is hoped that more opportunities are provided for Campus Asia students to participate in workshops, conferences, internships and research programs through the program. Moreover, I also wish for Campus Asia Program to become more inclusive and somehow include foreigners who are currently enrolled as norm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t SNU GSIS, and they feel excluded in many school opportunities. Opening up such programs to foreign students can attribute to increasing Korean university's international rankings and reputation, and gain more attraction. I have much conviction that the Campus Asia Program will continue to flourish in the coming years, and once again, I thank the Professors and Teachers at SNU and PKU, and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for this invaluable opportunity.



My Gains in KU and A Few Pieces of Advices for future



He Yu International relationship/public affairs, Fudan University
(Korea University-Fudan University-Kobe University)

It is so delighted that I can get the chance to exchange here. Anyway, first I really appreciate that Miss Lee gives us a great hand during the term of studying in Korea. Actually we also appreciate all of people who have helped us so much. We can often get information and answers to questions about life and studies. And this is hard to express my appreciation in a sentence.

This will be an unforgettable experience when I recall my life of Korea. I will not forget the time when we just arrived at Incheon Airport and shared the excited emotion with my friends, the time when we get off the airport bus with drizzle, and the time when we dined with our professors together. Still will a smile emerge out on my face when I recall the happy time spent on Korean classes.

On November 22nd with professor Byun, we visit DMZ, which is as part of our class. On the way to DMZ, green grass stretched along the road from the hills to the plains. But virtually uninhabited places exist everywhere. With the

distance closer, it is clearer and distinguished situation that come out in front of your eyes. The Korean soldiers getting on bus to check and monitor security make you aware of the tension state in this district. When we get off the bus at Freedom Bridge, though autumn wind whistled through both banks of Imjing River, looking ahead, we can feel full of bleak and perilous situation in the Demilitarized Zone across the river. Leaves swayed in the wind but with silent and quiet gestures. Only the visitors like us talked about the bridge, the train, and the zones in relatively loud sound. On the way to the tunnels, there are countless obstacles which stayed at roads' both sides and which seem ready to be moved in the way at any times. It is amazing that tunnels under the earth are ready for thousands of soldiers to go through. Such a huge project means a great many of labors and material wealth pouring into it. Outside locate some small villages, which when you pass by them, you also feel their silence and lacking of actions. Th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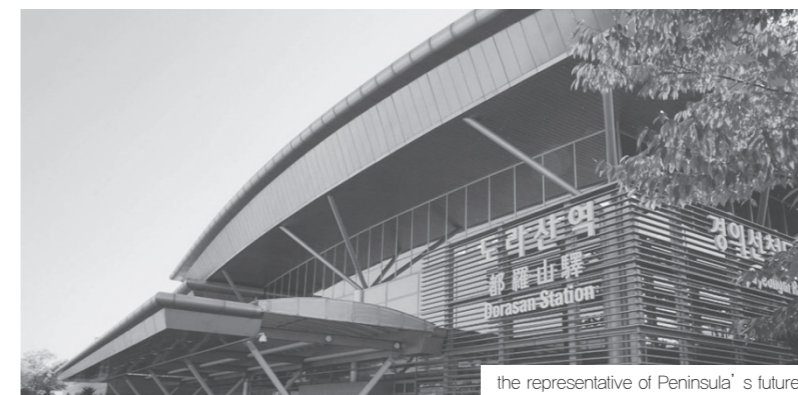
have to face the possible appearances of refugees or spies from the north part. And I believe that the tensions existing at both side of DMZ affect their nerves every day. If we say the people of both Korea burden the agony, then, the villages are the direct sufferers. They are special but they are struggling towards a peaceful and wealthy life in a tough situation and a special way. In that case, how many rights which can be exercised by other citizens and which they should exercise the same in a normal circumstance will be affected in such exceptional cases. Anyway, the situation actually shows both sides' ambitions to unify the peninsula but in different ways. As the Dorasan Station shows, united, happy and peaceful life is eager to get in the future despite heavy guard now.

Based on the issue of Naval Base in Jeju Island, the thoughts emerged out my mind first was the great progresses which South Korea has gotten during the several decades. And then we can see the long history of native culture and

the long history of interactions with mainland of China and Japan. As I put in former paper, the protest seems like a domestic decision-making problem. But behind it there exist the international conflicts logics. Despite the relatively reasonable statements and explanations made by government, but what the locals would like to get is compromising of government rather than explanations. The problems are the reasons that local provided are unconvincing. The international NGOs can't provide an absolutely convincing reason to persuade Korean government. Anyway the great people in Jeju Island hold a painstaking effort in struggling against great powers directly in history. But this time, great power stays behind and become the potential rivals. In Jeju, by the way, we also visit many museums about peace, history and traditional custo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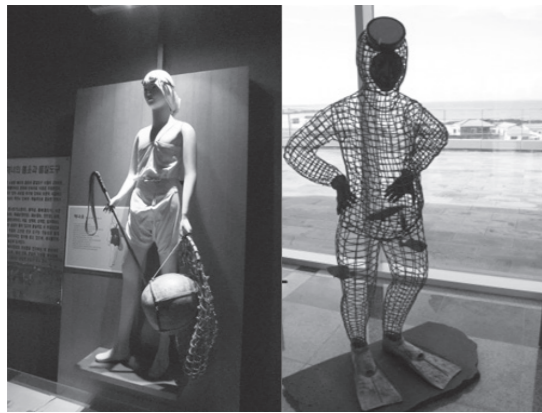
The pictures below are from the sea women museum, They show the basic tools of sea women which just exist in Japan and Korea. The sea women actually struggle in a tough circumstance. When I read the sentence "They have to dive

and collect food just after three days although they give birth to a child at that time", it is amazing and marvelous how hard life they have to burden and how strong they are. Although the tools are improved much more than before as the pictures



the representative of Peninsula's future

show, actually less women would like to take the career. At present most sea women are old ones. So there is reason to worry about the great phenomenon will stay in museums but disappear in reality in the future. This is a great threat to protecting this culture for government.



During the interval of courses I go to Gyeongju, the former capital of Silla. Bulguksa, Cheomseongdae and kings' Tomb all expand my knowledge about the history of Korea. All of those consist of the tough panorama of Korean history of ancient times and modern times. Still I lack of the realization of periods between those two times. But to my surprise, there are many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of Korean Peninsula.

Besides the knowledge about separations of peninsula and Korean history, another gain I have gotten is Korean. Despite the short term of class and the basic knowledge I have gotten so far, it is excited that you can communicate with Korean people gradually. When I arrived here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it is hard to find a place or buy something. Though you can speak in English, the waiters who are elders understand little except younger. In class the Korean teacher is so nice. She not only taught us the language but also explained the manners of Korea. With the help of this class, we will not only study Korean cultures more but realize our own cultures more. As East-Asia countries, we have close interactions and influenced in history. So we can find the commons and also differences in languages. Some words' pronunciations are similar and some manners are common. Especially the great influences from Japan in modern times, I think that Japanese students will feel more about it. And compared with the western students, we learn it more easily in both pronunciation and grammars. However, comparison will make us thinking about the commons and differences, hence bring us with a profound understanding the languages and cultures.

In addition to those above, we also benefit from the program in communication with Japanese students. The differences of the program mainly come from the process and the members. You will not only share your worry, ideas, emotions and cultures with Korean companions but can share them with Japanese ones. This is a platform not only for Korean and Chinese youth but also for those three countries youths. I feel th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the ones between Chinese and Japanese and the on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hich have made u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nd more tolerant when behavior might conflict in the future. When I recall them, I always remember the dual aspects of Korean youths, the quiet and polite manners in daily life but active and energetic manners in activities. And also are Japanese polite and kind manners impressive for me. Sometimes you will be skeptical of how conflict can happen in politics.

Anyway, I must appreciate that professors, TA and other Korean students help us so much during the term of studying in KU.

Here I have an idea about the program. If it is possible, I really advise all of the exchange dual degree students who are from three countries and stay in China, Korea and Japan can have a chance to stay together and share their experiences or understandings about China, Korea and Japan during their one year's term. They can talk about the current issues happen in East-Asia or other important and helpful enough for the identity of East-Asia.

Then, I have some ideas hoping that they can help the students come here later and help this program become more and more successful. First, it is difficult to choose a course at first. So if it is possible, I suggest that fresh men choose courses as many as possible at the first week or just go to the class which you think it might be interesting for you first. You can get th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ourses by yourself and feel whether they are suitable with you. Often the first class of a semester will contain the introductions of the subject. You will

have a relative long time to feel the classes, and I think it is very good arrangement in KU. So you can make decision whether taking it based on the sufficient information. Second, there is a little pity not to have a sufficient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I mean we can communicate with some Korean students, but often based on the short time during class. Also can we take participation into some activities of GSIS, but we seem short of chance to exchange ideas in daily life. We don't live in the same dormitory and if the number of a course is great enough,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some about the issues we care about in East Asia. And so communications happen more often among Chinese students and Japanese students than Korean students with Asia Campus Program's students. How to make the students from three countrie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can be done better if more Korean students can attend. Third, finding a mentor who you want to follow is not easy. On one hand, students come from China and Japan might not research international issues or theory before. It takes time for them to realize a mentor who is common with them in research. Sometimes we can find the information of professors on internet, but there is still some information which is not available on it. For example, some professors might be too busy with guiding so many students, or some professors might have busy with academic activities or conferences, or some professors have go to other university as a visiting scholar, hence they might not available

for us. So if we can get the information as early as possible, it will be more convenient and efficient.

In a word, I wish East-Asia can be more peaceful and friendly area, I dream one day the

all of youths from three countries and even wider area can take hand in hand together to get a beautiful future. We will strive to get it despite the weak power in individuals.

캠퍼스 아시아 체험수기 -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최혜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북경대-동경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과 최혜민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아시아 1기 학생이지요. 한국어로 이 긴 글을 쓰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써야 조금 더 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노력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맞춤법, 문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뉴질랜드,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닌 조기유학생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애국심도 생기고 아시아 문화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한국 역사 교과서 사가지고 읽는, 일본어랑 중국어 공부하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의미가 이상해진 학생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 대학교도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모교에는 아시아 정치문화 관련수업이 생각했던 것 보다 없었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동북아의 중심, 한국으로 돌아와 국제관계학 석사를 하며 제가 원하는 부분을

배워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3월 중순, 졸업 한 학기 남겨둔 시점에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교환학생 모집" 이 글을 본 순간, 졸업 한 학기 남겨둔 학생으로서 망설임을 범도 한데,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담당자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흥미를 갖고 있던 중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이걸 저에게 찬스였지요. 필요한 서류는 외국어 능력 서류, 학점, 추천서. 다행히도 혼자 툼툼이 공부해 따 놓았던 일본어능력시험(JLPT) 1급, 중국어능력시험(HSK) 5급은 제가 졸업을 미루고 캠퍼스 아시아 학생이 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을 완전히 없애버렸지요.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제가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교환 프로그램에 뽑힐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그리고 중국어, 일본 그리고 일본어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지원서에 제가 얼마만큼 중국,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그 열망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듣기만 했던 그 "천조국", 판다의 고향, 지구인의 5분의 1이 산다는 그곳,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처음 받을 디딘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일단 혼자 학교까지 혼자 택시를 타야 했는데, 막상 든

생각은, “아, 설마 납치당하지는 않겠지? 날 속이고 뺑 ~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겠습니까. 그냥 운명을 믿고 땀을 흘리며, ‘설마 키도 크고 (173cm) 고등학교 때 농구부였던 덩치 있는 나를 어떻게 하겠어? 아마 너무 커서 납치하고 싶어도 귀찮아서 못 할 거야…….’ 하며 말이죠. 하지만 택시를 타자마자 무서움을 날려버리기 위해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중국어, 손짓 발짓 다 해가며 날씨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서울,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고 40분 후, 내릴 때 즈음엔 택시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택시 탈 때마다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아저씨를 귀찮게 하며 말을 걸지만, ‘뭐 중국택시 탈만하네?’ - 아! 그래도 밤에는 한국이던 중국이던 여자 혼자 택시 타지 맙시다!



9월 초, 드디어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학과 석사과정 (MIR) 오리엔테이션이 시작 되었습니다. 북경대 측은 교환학생을 신입생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수업 혼자가고 한 학기 내내 혼자 밥 먹는 일 없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자랑 같은 공부를 하고 싶어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줄 왼쪽 첫 번째: 김가예, 같이 Campus Asia Program 참가한 같은 학교 언니이자 룸메이트, 북경대 학부 출신 중국통!!!

두 번째 줄 왼쪽 네 번째: 그런 가예언니에게 오자마자 매일 도움만 받았던 저, 최혜민 (가예언니, 사랑합니다!)

중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 위 사진에 있는 친구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Family Dinner라고 해서 이렇게 17명에서 항상 같이 저녁을 먹으러 북경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북경 오리는 기본, 휘귀 (중국식 샐러드), 쓰촨 성 음식, 윈난 성 음식, 산시 성 음식, 위구르 음식, 대만 음식, 홍콩 음식, 그리고 하루는 북한대사관에서 운영하는 북한 음식도 먹으러 갔었습니다. 이때는 북경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어 수업을 같이 듣는 London school of Economics와 Sciences Po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갔지요.



왼쪽 사진: 한국인 저 혼자 사진 속 친구들을 데리고 평양관이라는 북한식당을 다녀왔습니다. with 북한 미녀 복무원들

오른쪽 사진: 언제 또 이 북한 동무와 손을 또 잡아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웃픈 (웃고 있지만 슬픈) 사진이네요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날 레스토랑에는 거

의 저희 25명 뿐 이었고 공연해 줄때 엄청난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북한 미녀 웨이트리스이자 가수, 댄서들은 한 시간 정도의 공연을 앙코르를 포함해서 2시간이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이 문 닫을 시간이 되자 북한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단 남자 7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뒷좌석에 앉더니 “갈 준비 하라우” 라고 매니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말하더군요. 소문으로는 이 복무원들은 북한 예술단으로 출신성분이 좋고 예쁜 사람을 뽑아 평양에서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 미녀들이 중국에서 갈수 있는 곳은 이 레스토랑과 숙소인 북한대사관 뿐이라고 합니다.

중국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MIR 프로그램에는 중국인이 없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아시안 학생들은 한국인, 일본인, 홍콩인, 싱가포르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캠퍼스 아시아의 취지는 ‘한-중-일 세 국가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그 국가에 가서 그 국가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오해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한, 한-중 관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정작 중국인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 가서 듣나요? 북경대학교에서는 북경대 친구를 사귀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북경대는 기숙사, 심지어 수업까지 중국인과 외국인을 철저히 나누어 놓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히 같은 대학원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에 같이 온 룸메이트 언니가 북경대 출신이었고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어서 제가 중국에 대해 궁금했던 점, 교수님과 여쭙 수 없는 20대 한-중 학생들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북경대가 다음번에 올 외국 교환학생들을 위해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교환학생이 조금 더 중국과 가까워지고 친

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field trip이나, 학생 교류 프로그램, 중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늘려갔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중국에 왔으니 당연히 중국어 배워야지! 해서 수업 신청을 했더니 1학기에 중국 돈 12000위안 (한화 약 210만원) 을 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한국에서 오기 전엔 국제관계학원이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결국에 학교에서 끝까지 해결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무작정 수업에 가서 중국어 선생님께 사정을 말하고 한국에서 사은 자개함 하나 드리며 청강할 수 있게 부탁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선물 드려서 받아 주셨나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은 이전 경희대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실망을 안 드리려고 일반 학생보다 절대 늦지 않게 수업가고, 시험도 똑같이 치르고 (자랑을 살짝 하자면 제가 시험 계속 1등합니다), 열심히 질문하고 수업 분위기 안 흐뜨리려 노력했습니다. 학교의 대처에 상당히 실망했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 중국에서 중국 문화,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어디선가 “원하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라는 글귀를 본적이 있는데 딱 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매 해 11월, 북경대학교에서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북경대학교가 주최하는 Beijing Forum이 열립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시린돈 태국 공주,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 및 많은 국제관계학 학자, 세계 여러 나라 유명 인사, 정치인이 거쳐서 간다는 그 국제관계학 포럼의 학생 패널에 제가 참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왼쪽 사진: 두 말이 필요 없는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님. 올해는 부득이하게 참가를 못하셔서 성공적인 개막식을 위해서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른쪽 사진: 포럼 개막식은 매 해 중국 북경의 “조어도 국민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약 800명의 대통령, 총리들이 정상회담을 위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있는 영광을 제가 누렸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저는 중국 외교 정책과 매체와 외교의 관계라는 수업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말 리서치 페이퍼로 준비하고 있던 내용을 포럼 때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북한 요소와 한-중 관계, 그리고 매체”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전 한국 및 중국 정부에 대한 한국 조선일보 (보수), 한겨레신문 (진보), 중국 정부 대변 환구시보의 태도, 그리고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프레임을 보는 내용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하는 포럼이라 떨리고 많은걸 알리기 에 내용도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포럼참석은 제가 한국의 입장, 한-중 관계,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여러 국가에서 온 국제관계학 전공 친구들에게 알리고, 중국에서 한-중 관계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찬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고등



교육재단을 통해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매해 9월 즈음부터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eijing Forum 참석은 북경에서의 좋은 추억, 학문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된다면 한 번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중국에 와서 제가 했던 일중 스스로 가장 잘했다고 자부 하는 일은 바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 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 당시 딱 만 19살이라 참여 할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재외국민투표가 없던 선거라 아쉽게 투표를 못했었습니다. 그저 방향을 맞아 미국에서 한국의



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 여러분,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라는 기장의 말을 듣는 것이 전부 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어 저도 주중국대사관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대통령 선거,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던지,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하고 싶습니다. 다음 번 캠퍼스 아시아 참가 할 후배 여러분, 외국에 있다고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나중에 후회 하지 마시고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권 복사본과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선거 두 달 전까지 주중대사관에 보내면 끝!

일어난 일이 너무 많아 이 수기에 다 쓰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미래 캠퍼스 아시아 참가 학생에게 조언을 한다면, 첫 번째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리저리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놀면 아마 그 것이 가장 후회 하지 않

는 교환학생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버리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고정관념 가지고 중국에 오면 좋은 경험 다 놓치고 맙니다. 정말 본 모습의 중국을 느끼고 싶다면 고정관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대륙 땅을 밟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및 중국인 친구 많이 사귀세요. 뉴질랜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우르르 몰려서 다니는 것 많이 봐왔는데 역시 중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외국에 나와서 공부할 기회를 어렵게 얻었는데,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을 한국 친구들 이랑만 다니는 것은 시간 아까운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 사회, 친구를 더 많이 만나보는 것이 제 경험상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외국 친구들이 보는 한국을 알게 되었고, 중국인이 알려준 중국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 세 가지 조언을 생각 해 주신다면 중국 뿐 아니라 어느 국가를 가더라도 추억에 남는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도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족한 수기였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장려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Campus Asia : A good chance to catch two birds with one stones, Study and Chinese culture



정연준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During the spring semester of 2012 at KAIST, I received an e-mail which said there will be an introduction about program called 'Campus Asia' at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Since the semester was my first semester after the military service at the army, I was passionate to try lot of different things, and I was also interested in the program because I have met some Tsinghua students at the ICISTS-KAIST 2008,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tudents, whom gave me strong impression of their passion and brilliance. So I went to the introduction of 'Campus Asia' and thought it 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study in China, especially at Tsinghua. I applied for the program gladly, and fortunately, I got the admission from Tsinghua, at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of Tsinghua, so I had a chance to study in China. After I got the admission, I contact with professor Bai Benfeng in Precision Instrument Department of Tsinghua university to ask to be my advisor at Tsinghua. Thankfully, professor Bai told me

he could be my advisor, and I could do research in his lab.



Arriving at Beijing at 3rd of September, the first thing I had to do was to register for the semester and the dormitory. Same with the guide leaflet I got when I received the admission from Tsinghua, we were offered the single room dormitory in the international student dormitory. For the living fee paid by Tsinghua, I opened an account at Bank of China, and linked it with my student card. And for the course selection, I

chose four courses, all English courses. Nano-photonics,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 noise NVH, and Introduction to Computer-Aided Tissue Engineering, were the four courses. The courses were post-graduate courses, but I could manage the semester thanks to many Chinese friends, because we had lot of discussion and meetings about the course. I participated in the lab of professor Bai Benfeng, the Tsinghua-Foxconn Nanotechnology Research Center, in which the research topics are Nano-photonics and Plasmonics. Along with taking the course of professor Bai Benfeng, I learnt how to use the 'FDTD Solutions' from Lumerical Solution, Inc, which is a software to simulate optical phenomena using the FDTD numerical method. The topic of my final review paper was 'Plasmonics beyond diffraction limit', from which I learnt that to solve the diffraction limit problem of miniaturization of the electromagnetic circuitry, Plasmonics can be used, especially the phenomena called Surface Plasmon Polaritons, by which, in my study, I looked into a special form, so called the Channel Plasmon Polaritons, of V-grooves and Wedge waveguide channel, by simulating with FDTD

Solutions. At 25th of September, there was a seminar in Tsinghua, about the Inverse Problems in Optics. My advisor professor Bai was the chair of the session, so I also participated to the seminar.

Traveling Beijing wa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visit to China. Beijing, a city with the longest history in China, has many famous places for tourist. Since I had to attend classes, there was not so much time to trip, but using the weekends and holidays of China, I tried to travel around Beijing with other colleagues from the 'Campus Asia' program. We visited the Great wall, Summer palace, Forbidden City, and so on. During the tour, I could see great sights, and cultures of China.



The Great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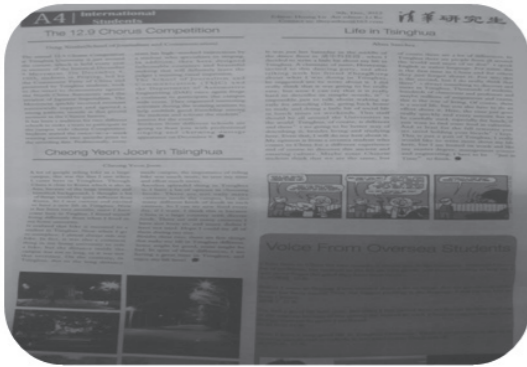
Summer Palace



Forbidden City

For other activities in Tsinghua, I was





Article in Tsinghua graduate School newspaper



Teaching in Tsinghua university primary school

at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Graduate Union(IDGU). Participating in a sports activity of graduate school students, 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students, was a good experience. I played basket ball with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On 14th of November, from the volunteering teaching program of IDGU, I once visited to the 'Tsinghua University Primary School' to teach the primary school students about any topic of mine. I taught them about Korean culture, introducing some Korean foods etiquette, and basic expression of Korean. I realized that it is a hard job to teach students, but it was a meaningful experience. Finally, I wrote a short article in the newspaper of Tsinghua Graduate schools, about my life in Tsinghua university. It was published in the newspaper at 9th of December.

Looking back my semester in Tsinghua, I would like to say it was a very good experience overall. I could learn Chinese by hanging out with Chinese friends in and out of the campus, having

lunch and playing sports, and also learn Chinese culture. I could also improve my English because I had to use English to communicate with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 taught in a primary school, which I have not done before, felt proud of representing my own culture, being a cultural ambassador. Doing some research, though I was not quite deeply involved in the research, in other country, might be a good opportunity to know how other people do research. Campus Asia along with the decent supports was a very good experience for me. I learnt so many things in China that I could have missed if I did not have a chance to study here. We have to know more if we want to do more. So I would like to recommend those who are looking forward to study outside, especially China or Japan, or those who are interested to learn different things than now, the Campus Asia program,

Korea, From an Acquaintance to a Dear Friend



Li Weili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environmental engineering, master co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Shanghai Jiao Tong University—Kyushu university)

Preface: I knew her long times ago

From the movie called My Sassy Girl, I heard about Korea for the first time when I was a middle school student. I was deeply moved by the love story of that movie and I initially experienced the joys and sorrows of love through that movie. So, going to Korea to confirm it became a dream for me since that time. It may be an unpractical impulse, but many young teenagers go through their first awakening of love during their middle school period. They yearn for good love and My Sassy Girl exactly elaborated such kind of good love. I have watched other Korean dramas after that, such as Autumn in My Heart, Princess Hour and Sorry, I love you. My love view was also influenced by Korean love dramas. Many Chinese people like to combine Korea with moving fairy tales about love or a pathetic love story. But such kinds of understanding of Korea is obscure and one-sided, even it is fine.

My undergraduate period was accomplished

in Dalian city which contacts with Korea closely. There are many Korean enterprises, ethnic Korean people and ethnic Korean restaurants. One of my roommates in college dormitory is an ethnic Korean college student who is good at speaking Chinese and Korean and is very interested in K-pop. I personally experienced many factors of Korean culture during that time. I became interested in K-pop owing to the impact of my ethnic Korean roommate who also usually invited me to dine in some ethnic Korean restaurants. All these experiences enriched my realization of Korea. But it is still very limited and I am still curious about this country. She always occurs around me but it is just a shadow. Sometimes I am fond of guessing her face and body through her shadow.

I didn't get the chance to go to Korea when I studied in Dalian although the distance between them is really not far. I came to Shanghai to pursue my Master's Degree which is a international metropolis combining cultures from



Attending Activity Sponsored by Samsung in China



Eating in a Korean Restaurant in China

all over the world together unlike Dalian which Korean and Japanese culture dominate. It seems that I started to forget she gradually who firstly showed me the love from lover and whose shadow stayed with me during my college life. I did not think of her regularly, but she never faded away in my memory. Suddenly one day, she turned around and called me with smile face. She invited me to go to her home and see her families as a guest. Thanks Campus Asia for landing me this opportunity to change looking on her from far away into talking with her face to face. I would go to P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exchange student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Finally, I met her: Studying Life Introduction

Sep .1st 2012, two of my schoolmates and I boarded the plane for Pusan. I was excited and worried. Going to Korea like a dream come true made me excited. How to get to used to new life made me worried. Pusan gave me a first impression of mountainous. I took a taxi to the campus and saw the urban scenery of Pusan along

the way. We found our dormitory after arriving at our campus and went to meet our professor after settling. It was my first day in PNU. Nothing is abnormal but everything is new.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I had three classes every week which include two professional classes and one language class. I was relatively free during this period, so I performed many experiments with my laboratory members. But this kind of life just lasted for two months. We were arranged to take more five language classes since then. There were Korean language classes and two English class every week and I had one or two classes every day except on weekends. It made me busy and I had not enough time to devote myself to research because it also takes time to digest what I have learned in the language class. Fair to say, it is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if you can arrange your time reasonably, you can benefit from it. But, it is more like a challenge for us. In my view, students should improve their language proficiency before going abroad. It is really helpful for us to get used to life in a foreign country. But thanks to the language classes, I



Studying in Korean Language Class



Traveling in Jeju with Professor and Lab Members

can speak a little Korean now. However, I still preferred to stay with my Chinese friends who can speak Korean very well. But I also made friends with Korean students like my lab members, we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sing English or simple Korean. We paid a visit to Jeju island for a workshop for three days and we had a wonderful time there. It is also a very previous opportunity for me to go to other place of Korea. Jeju island boasts spectacular natural scenery and unique human culture. I was immersed in its beauty and forgot my busy study life. What I want say here is that my life in Korea is substa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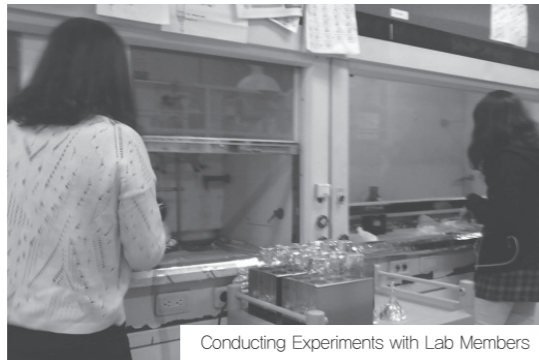
Enlightenment of Laboratory Life

My laboratory group is the Technology Environmental Analysis & Monitoring lab leaded by professor Oh. Thanks to professor Oh, I can get the chance to work with her excellent students. It was my first time to stay with Korean students. They are my "teachers" and friends when I study in Korea. I performed some experiments with the help of my group students. They taught me to use

some instruments and chemicals with patience. I was given a deep impression on their carefulness when they conducted experiments. They are also hard-working and even usually worked on weekends. They are optimistic and are good at relaxing themselves even if the time is limited. They treated me as a member of the laboratory group and a guest at the same time. They are very kind people to tolerate my mistakes. They tri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Korea. I like them because they are so kind, cute and tolerant. Now, I found the reason why Korea can develop into a developed country, They did it, many people like my laboratory members. And I also believe many young people in China and Japan are studying and working hard because that they want to become a good student, a skillful worker and a responsible father or mother.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are pursuing their happiness and dreams, if they can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doing similar things, they wouldn't feel lonely anymore. The most significant thing I have learned from my laboratory is the attitude to face work and lives



Performing Experiments in the Lab of TEAM



Conducting Experiments with Lab Members

which means that they are addicted to work when they are working and they enjoy their lives when they are free. I will never forget their smile when they are under pressure.

Enlightenment of Daily life:

When it comes to my daily life,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life in Pusan is colorful and abundant. Actually, Pusan is a city which boasts beautiful urban scenery and pleasant climate. There are lots of shopping malls, sandy beaches and other tourist attractions. Famous festivals, such as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Pusan Intentional Framework Festival are hold every year. Your lives will never be monotonous in this metropolis. Speaking of lives in PNU, the dormitory building is highlighted because the facilities in the building are advanced and complete. There is a fitness center, a grocer, a student mass hall, self-studying and computer room. Every room is equipped with floor heating, air condition and a private bathroom. It is ver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e only challenge

you need to face is the food, you may be not easily get accustomed to Korea food, so you can change your meal plan according to your relative requirements. That is the basic things for living in PNU. But more students want to live outside even under such good conditions. It is abnormal in China because the majority of college students are asked to live in the school dormitory even under relatively poor conditions. It can be described as the relatively low incomes of the family, but it truly makes the student lose a chance to enhance their capability of living independently instead of following the arrangement of the school. Actually, studying abroad itself is more likely a challenge for a Chinese student who may be the only child of the family and spoiled by the parents and grandparents. If I study in a city near my hometown, I can go home on a regular basis and fly right into my mother's warm embrace to ask her to help me to resolve some problems. But when I study abroad in Pusan, I can only depend on myself. Living outside may be a training for living independently, however, studying abroad means growing independently. Actually, I will just spend 5 months studying in PNU, but I have made lots of friends who will stay or have already stayed here for many years. Recently, I helped two girls to move their room. They decided to live outside together. Two of my male friends and I



Traveling in Pusan with friends in PNU

went to their room after moving day, we cooked there and sat down around a small short table, the room was narrow and the weather outside was very cold with heavy wind, but it was very warm inside the room. We sat so close to each other that we even could feel the temperature of the other man's body. We chatted and laughed to our heart's content. It's really like a family. Students from different places of China who never knew each other before gathered at a cozy room to share happiness and sorrow in a cold winter day in a foreign country. Our parents must lean on the window and looked at the black sky to pray for us that we can maintain health and never feel lonely on that moment. It's PNU that landed me this opportunity to grow independently, I wouldn't forget my experiences in PNU. Growth means getting away from parents and successfully getting used to a utterly stranger environment. Every Chinese student studying abroad has to achieve this kind of growth.

Defeating the challenges

As I mentioned above, Studying abroad is a

challenge for all the students. In order to defeat this challenge, help from different persons is in needed. Here, I really want to say thanks to all the people who assisted me in integrating into life here. Thanks for a senior alumnus named Liqiang who met us at the airport and guided us to our school and dormitory. He comes from a different department and it is not his duty to help me. But since I have not contacted my professor successfully, he and his Korean classmates assisted me in finding my department. Thanks to professor Taeho Lee, he is a very kind minded man and he interviewed with me firstly because that he told the liaison officer that he want a exchange student to join his lab. However, He decided to help me to choose the professor in the environmental department after talking with me because my research direction is really different from his research area. He understood my worries and forgave my mistake of failing to contact a fit professor. Here, I must criticize myself because that I have not chosen a professor and have not contacted a professor before my arriving



Attending Church Activity with friends in PNU

due to an information shortage and preparation insufficiency. My domestic laboratory also did not have some cooperation with my Korean counterpart. Professor Lee tolerated my mistake and introduced me to professor Jungun Oh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most suitable professor for me had gone to American for one year. Professor Oh also is warm minded, she introduced me to her research direction carefully and helped me clarify what I could do in her lab. I really didn't want to hesitate anymore in the light of the previous mistake, so I said I would spare no effects to do my best. Thanks to Professor Lee and Professor Oh, Actually, It may not matter which lab you need to choose. It does matter to clarify what you want and how to make it happen and to tolerate others' mistakes. It is very easy for a man to make low-grade mistakes under stranger conditions or environment. As an exchange student or visiting student through Campus Asia program, I received more tolerance and I should say thanks to my professors, my laboratory members and my friends here. Thanks for Prof Choi and Ms. KIM who have arranged everything important for me in PNU and cared my life here in all respects.

More in-depth thinking

It is difficult to say good bye, but my return date is drawing near. It happened just like yesterday when I stepped on the land of this country. From middle school period to graduate period, I came into contact with Korean culture

and became interested in it gradually. However, it is a little bit simple or naive because that Korean is not a place where fairy tales are always performed and perfect love stories always happen, and you of course can't meet superstars and famous singers every day. There are a lot of people just like you and me, their life style may be a little different with ours, but it doesn't matter, it does matter the attitude to life. I think it is the confidence with which many Korean people can live in a happy life even under pressure. Concentration to work and restraining fickleness may be the secret of my lab members and many Korean students to make success. Be positive and be good at enjoying lives may be the other sources of confidence. The reason why Korean people can make so many good love dramas is the fraternal society and people's confidence with happy life and the self-assurance to face challenge and pressure. And I also think their tolerance still comes from their confidence .It seems that I sublimate my knowledge and I think it worth to tell my domestic Chinese friends and anyone.

Summary

Thanks for all the people I have met in Korea, they showed me tolerance, dedication and life-enjoying. Thanks to PNU, she landed me an opportunity to grow independently with new friends and without parents, to experience a life full of strange challenges, to understand the warmth coming from many friends and the



Permanent Memory

care coming from parents living in your hometown who are looking at you through the star of black sky. Thanks for Campus Asia program, she made my dream come true and

understands the source of fairy tale, she shows me the way to achieve my own fairy tale and she really builds bridge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o promote friendship, understanding and mutual trust. Campus Asia, Asia's Future,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Many Thanks to you,
SNU



Tingli Zhang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Consortium: SNU-PKU-UT)



With the departure date approaching so near, it becomes such a hard moment to say goodbye to my SNU life, which I never imagined. Yes, something has changed on me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As an exchange student here, fortunately I have no much academic pressure, which gives me more time to relax and work out regularly to keep fit. Despite enjoying the comfortable life, I benefit a lot from the multidisciplinary curriculum and dynamic academic environment in GSIS although only for one semester, which helps to broaden my horizon,

combat the stereotypes and impresses me deeply with unique SNU style. Looking back on these days, I feel so proud to be part of Campus Asia program and have the invaluable opportunity to experience such diverse culture in GSIS, SNU.

Why apply?

Referring to Campus Asia project, I was so excited at the first time I heard, as I believed it is really an inspiring and meaningful program. Apparently this program which is promoted directly by the governments of Japan, South Korea and China, not only aims to establish an official consortium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East Asia, but also in the long term to enhance the trilateral understanding and trust e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to lay the stable foundation for future deep cooperation, lasting peace and co-prosperity. Nobody could deny its importance and the opportunities it could bring about to these countries involved or noninvolved

in this region, especially a common student major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ntending to write the thesis on East Asia issues for her master degree. Thus for me, it is truly a chance I cannot pass up.

What's more, I really would like to know more and better about Korean and Japanese people and their society. On one hand obviously there are lots of misunderstanding among these nations due to some historic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just as Professor Sheen (GSIS) said that although people in the three countries live near to other, they tend to ignore the occurent changes of one another, in other words, people seem to lack proper interests in knowing their real neighbors, which in my opinion, is a very serious problem confronted us. However, this project offers the precious opportunities for us to make some advancement.

To be honest, there are also several personal reasons for applying this program, Korean and Japanese TV-drama, costume, pop-music, and cosmetic cultures or styles are very popular in China. The younger peopl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experiencing the brand new trends as soon as they come out, and I am no exception. Now it has proved that it is pretty worthy of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How is it?

Just as what I said, my SNU life is really enjoyable, colorful, impressive, and it opened

to me on the first day I arrived. Firstly, the hardware facilities are quite convenient. Our accommodations located in Gwanaksa Dormitory (in-campus) are generally double rooms with bath and washroom, which are very spacious, well-appointed and comfortable. There are convenience store, stationary store, cafeteria, restaurants, café shop, bus stations and even barbershop nearby.

Secondly, the campus landscapes really attract me very much. As this campus is located in Gwanaksan Mountain area, the hillsides are basically covered by various trees, different seasons with different colors and sceneries, I do like hiking in the huge campus with undulating hills, especially the feelings of finding out an open and bright place suddenly through a narrow path or turning a corner, which always remind me of the Chinese poem "After endless mountains and rivers that leave doubt whether there is a path out, suddenly one encounters the shade of a willow, bright flowers and a lovely village."(Hillary Clinton's version)

As for the academic issues, likewise I am very appreciative of the dynamic and free circumstances here in GSIS I experienced. As far as I know that students in GSIS come from more than ten



different countries with diverse backgrounds and the professors generally have overseas learning or teaching experiences, therefore, it is normally very interesting and enlightening to have discussions during classes or group work after classes. It is also a big surprise that there are so many and various kinds of weekly regional round tables, concerning China, Developing Countries, Europe, Japan, Latin America as well as U.S. issues. As a Chinese, I participated the Chinese Table frequently, where any person who is interested in China could join in. It is also interesting that everyone here should try to speak Chinese, thus, it gives the students a good chance to learn and practice their Chinese.

In addition to the campus life, thanks to the various cultural activities GSIS, SNU or Korean government departments organized or funded, I have had so many impressive trips around Korea and even fall in love with Han-Style. During these travels with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we not only exchange ideas of ourselves, but also learn much from each other and surely from the Korean unique things in Sokcho, Jeonju, Busan, Andong, Jeju island, etc.

How amazing this semester is! Whereas it is time to say goodbye to my friends here. My Korean roommate who helps me a lot in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adapting myself to the new environments is my best friend here. We talk about everything, politics, culture, society, as well as personal issues and we comfort each other when come cross hard time. Now we promise

to keep in touch and wish to get together again someday.

Any recommendations for Campus Asia?

Yes, of course. As the beneficiary as well as the participant in the first-time implementation of Campus Asia project, I believe it is our duty to give some useful suggestions.

As we all know, students in the three countries generally are eager to gain their higher academic diplomas in U.S. or European universities rather than Asian universities. There are various kinds of causes for this phenomenon, as well as an urgent need to make changes of this trend, for this era and the future development of East Asia require the qualified persons who know better about the three main powers. Obviously, the governments play a critical role and the Campus Asia program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cultural and structural barriers for establishing a stable consortium of student-exchange project. It is pretty good starting point. To enhance the cooperation level, the governments need to achieve more detailed agreements for such as offering equal studentship treatments in receiving universities. For its particularities, it is better for the receiving universities to launch preferential policies for leaning local languages, experiencing local traditional culture, field trips and internships. Considering the long-term development, it is beneficial to learn from the Erasmus program among European universities,

in which students feel proud to join.

To be more specific, I think presentation contest organized by GSIS is a very good idea, which provides a good opportunity for students to investigate the complex problems as comprehensively as possible and encourages them to think seriously about their mission in the future. Similarly, I do believe it is necessary to set at least one required course for this program, where the Campus Asia students could have more chances for in-depth discussion and academic innovation. Besides, I hope there could be a subprogram for helping the foreign students learn local languages, in which the local partners and the foreign students could get together and practice regularly.

Words to the future participants?

According to my experience, I would like to say please cherish your time on this program. Please keep an open mind to embrace the different even opposite ideas when you communicate with the foreign students, and try you best to understand why we are so different and what we have in common. Please keep or embed politeness, equality and justice in your

personality whatever you confront and wherever you are. Please remember we join in this program not only for getting another diploma or learning theoretical knowledge, but also for adding more social experience in order to know better about ourselves and others, as well as the increasingly complex and globalized international communities.

With one semester passing by, I realize there have been some visible and invisible alternations on myself and also on my friends who came here with me. Now I believe no matter what we are going to do as our occupations, this program helps us a lot. Everything we experience and feel today could certainly shape our perspectives and attitudes toward academic work as well as daily lives in future. Therefore, I am really grateful to this program for the positive motivation I feel to our mutual trust among people, nations and countries, as well as the individual growth it brought to me.

People usually say one usually has a very high expectation of the first foreign country he/she travels, while I indeed had lots of beautiful imaginations before coming here. Now I could say SNU never let me down and I believe it will not let you down, either.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오다



조유나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지징(Zijing) 기숙사

다닌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게다가 체재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니 나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여름방학이 되자 나는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칭화대로부터 입학 허가서(admission notice)를 받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싶은 주제와 연구를 할 실험실을 결정한 후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다. 칭화대의 학생과 칭화대로 오는 교환 학생을 1:1로 이어주는 버디 프로그램(buddy program)을 메일로 신청했고 한국을 떠나기 한 달 전 즈음에는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 모든 과정이 조금 복잡했지만 우리 학교의 캠퍼스 아시아 팀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어렵지 않았다.

“드디어 나도 교환학생 간다!”

내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칭화대 파견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학생활의 잊지 못할 추억, 더 넓은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교환학생을 꼭 한 번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년 후 세계를 주름 잡을 나라고 꿈꾸는 중국의 수재 중의 수재가 다니는 칭화대에

드디어 9월 3일 출국 날! 캐리어 하나와 이민가방 하나, 백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끙끙대며 내 몸만한 짐을 가지고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그 후에는 택시를 타고 외국인 학생들의 기숙사인 지징(Zijing) 기숙사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 말? 칭화대 기숙사 쪽에서 우리 학교로부터 기숙사비가 지원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기숙사를 줄



최근 새로 지어진 도서관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때는 이미 한국 시각으로 6시가 넘는 시각. 게다가 칭화대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팀도 퇴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날은 기숙사가 아닌 호텔에서 하루를 묵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우리 학교의 캠퍼스 아시아 팀과 전화를 하고 칭화대의 캠퍼스 아시아 팀 사무실에 찾아가서 기숙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나는 중국에 왔다는 신고식을 거하게 치렀다.

다음 날, 첫 날에 둘러보지 못했던 캠퍼스를 버디로 정해진 중국인 친구와 함께 둘러보았다. 칭화대는 우리 학교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컸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정말 많았다. 운동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우리 학교와 달리 과일 파는 가게가 있다는 것도 특이했다. 최근 새로 지어진 도서관도 정말 멋있었고, 나무들이 많아서 캠퍼스가 무척 아름다웠다.

며칠 후에는 들을 수업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수강 신청 사이트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어 한 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구글 번역기를 돌리

고 연준 오빠의 버디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영어 버전의 사이트가 있었다면 정말 좋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영어 강의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아쉬웠다.

9월 중순부터는 연구실에 나갔다. 비록 나는 우리 학교에서는 생명과학과 학생이었지만 화학공학과 의 Zhanglin Lin 교수님의 단백질 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 대학원생 사수 선배가 transformation, colony PCR 등 생명공학의 기본적인 기술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것을 수첩에 적어가며 배웠다. 그는 대장균(Escherichia coli)이 아세테이트(acetate)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처리만으로 DNA가 바뀌고 세포가 바뀐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은 휴일도 거의 없이 열심히 실험하고 공부한 덕분에 아는 것이 많아서 그 속의 내가 작아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 배드민턴과 탁구를 쳤다. 운동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수님의 특명 때문이었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탁구를 잘해서 깜짝 놀랐다. 가끔씩은 연구실 사람들과 식사도 했다. 특히 한 언니가 결혼을 해서 결혼 기념으로 함께 식사를 거하게 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결혼을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탕을 돌리는 문화도 새로웠다. 연구실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친절했고 순수했다. 한 번은 ‘시크릿 가든’, ‘송혜교’, ‘현빈’, ‘장나라’를 안다면서 내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

수업이 없고 연구실에 안 가도 되는 토요일에는 춤 동아리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퀵 스텝(quick step, 快步舞)’ 수업을 들었다. 또 쿵푸 수업과 AICE라는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러시아어 수업을 듣기도 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여러 가지 언어를 맛보기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마음에 들었고 덕분에 러시아어가 어떻게 생긴 언어인지 알 수 있었다.

또 칭화대의 대강당에서는 연극, 경극, 오케스트라, 퍼커션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을 했다. 내가 본 연극은 중국어로 진행되어 내용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대강당 건물도 멋있고 연극 소품이나 배경도 한국의 연극에서처럼 예쁘고 아기자기했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의 공연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번 칭화대 파견 생활에서의 좋았던 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들어간 기숙사가 매우 좋았다는 점이다. 1인실인데다가 월, 수, 금요일에는 직원이 와서 방을 청소해주어서 내가 직접 방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 두 번째로는 학교 내의 물가가 매우 싸다는 점이다. 학교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7위안, 우리 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라 매우 행복했다. 세 번째로는 학식이 이른 새벽에도 열렸었는데 이 점이 8시가 되어야 아침 학식을 시작하는 우리 학교와 다른 점

이었다. 그 시간에도 아침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로는 칭화대의 체육대회 문화였다. 칭화대에는 한국처럼 학교 축제를 성대하게 열지 않고 대신 체육대회를 연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체육대회가 중국에서는 대학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신기했다. 게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나 했던 발목에 풍선 묶고 상대방 풍선 터뜨리기 같은 게임을 대학교 체육대회에서 하니 내가 어린 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국 대학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비해 중국 대학교에서 이런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것이 부럽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중국인 이외의 다른 외국인들도 무척 많고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이 파견 생활에서의 좋은 점이였다. 중국어 수업에서 만난 스페인, 베네수엘라,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과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먹었던 것, 독일 친구 생일파티에 초대 받아 각국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현지생활에서의 팁을 말해보자면 우선 중국어는 잘 할수록 좋은 것 같다.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어를 공

부해 오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지하철, 버스를 탈 때 한국처럼 충전식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이 된다. 카드는 지하철역에 여권을 가지고 가면 만들 수 있다. 또 자전거는 중고를 사고 나중에 한국에 오기 전에 학교 안 자전거 매장에서 다시 되 파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로 자전거 도난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칭화대 동문 쪽에 자전거를 주차시켜놨다가는 잃어버리기 십상이므로 주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칭화대 교환학생으로서의 생활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소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넓은 땅 덩어리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와 지형, 중국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공사판,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학식, TV를 틀면 나오는 Voice of China, 거리를 지나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맥도날드, 푸레쥬르, 파리바게트, 원서를 중국어로 번역 후 막 찍어내서 정말 싼 가격에 팔리는 전공 책들, 나라에서 막아 놓기 때문에 Facebook과 Youtube를 하지 못하는 것……. 경제를 개방하면서도 나름의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 1위의 대국으로 도약하려는 나라, 다양한 자원을 가졌기에 그만큼 가능성이 많은 나라. 나에게 중국은 이렇게 보였다. 이런 기회를 주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정말 감사드리고 교환 학생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중국과 다른 여러 나라의 친구들, 그리고 함께 교환학생을 온 우리 학교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조유나, 수고했다!

长春, 吉林大学



안선미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학교 - 오카야마 대학 - 길림 대학)

교환학생을 가기 전, '장춘의 도시명이 왜 장춘일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웬 뜬금없는 질문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장춘은 겨울이 몹시 춥기 때문에, 봄이 빨리 왔으면, 봄이 길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붙인 이름이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막상 장춘에 도착해보니 실상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춘 룡지아 공항에 도착해서 바깥 풍경을 보는 순간 장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확 떠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쌓인 눈, 눈, 그리고 눈. 사람들의 두꺼운 외투, 한국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한파. 정말이지 장춘은 몹시 추운 곳이었고, 저는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봄 학기에 교환학생을 온 것이라 날씨가 금방 풀릴 줄 알고 그리 두꺼운 옷을 많이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추위를 엄청 잘 타는 편이라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장춘은 4월까지 눈이 내렸고, 저는 결국 집에다 전화해 소포로 옷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장춘은 몹시 추웠습니다. 4월 중순되니 기숙사에 아예 난방이 끊겨 옷을 세 겹씩 껴 입고 자기도 했습니다. 전기장판을 한국에서 가져온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았던 것

을 반성했습니다. 또 3, 4월 달에 힘든 일이 많이 겹쳤기 때문에 장춘의 겨울은 정말 길게 느껴졌고, 한국에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봄이 되자 장춘은 전혀 다른 인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풀리자 주말에 나들이도 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장춘에게는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춘은 번잡하지는 않지만 역동적인 곳이었으며, 소박한 매력이 있는 정감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장춘사람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한 장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 실력이 나날이 늘어갔고, 덕분에 중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교환학생 생활은 참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캠퍼스 아시아의 원래 취지인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재양성에는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엔 반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봅니다. 중문학과 학생이기는 하지만 중국어를 썩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중국어에 적

응할 때쯤 되니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졸업 문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학생들처럼 1년을 채우고 왔었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으로 왔기에 일반 교환학생으로 왔으면 해 볼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였고, 경험들을 통해서 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중국학생들, 그리고 한, 중, 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수업은 저에게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3학년 1학기, 이제 인생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기로해서 길림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생활은

제게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많이 받았고, 때문에 제 후배가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길림대학교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어서 제 수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과 전반적인 유학생 생활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중국에 가기 전

길림대학교가 있는 장춘은 중국 길림성의 성도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2차 도시이지만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길림대학교 또한 중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이지만 아직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 또한 장춘과 길림대학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만 믿으며 장춘으로 떠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 장춘을 검색 해봐도, 위만황궁과 관련된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서점에 가도 변변찮은 가이드북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길림대에 다녀왔다는 선배들도 저희 중문과 분들이 아니

시기 때문에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림대와 중국생활에 대해 기대와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도착한 후로는 실망도 많이 했고, 걱정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도도 했습니다.

아직 길림대를 비롯한 중국대학교는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튜터제도나 유학생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유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페이스북에 비치는 것처럼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친구를 사귀기란 무척 힘들고, 중국어 실력 또한 금방금방 늘지는 게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처음 적응단계에서는 힘들어서 금방 우울해지고, 유학생 생활 전체에 대해 회의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닌 제가 아는 모든 유학생들이 겪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교환학생에 대해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중국에 갔으면 합니다.

• 준비해야 할 것 - 중국어

교환학생 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줄줄이 나올 것이기에 특별히 적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국어를 가능한 많이 공부해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 중국어 실력이 적어도 신HSK 5급 고득점 또는 신HSK 6급 사이의 실력은 되어야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더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어 실력이 그보다 아래라면 교환 기간 동안 학교수업과 중국어 공부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에서 고려중국어학원이나 이얼싼어학원을 종일 반으로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HSK 5급 220점 정도의 수준으로 중국에 왔는데, 더 열심히 하지 않고 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 단순히 중국어 실력을 늘려오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중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현안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펴보면,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애초 목표로 했던 것들을 달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어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전공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는 한문학과, 역사학과 등의 다양한 문과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면 전공수업이 아닌 중국어수업밖에 들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면 전공학점이 모자라서 제학기내에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이라면 한 학기를 우선 중국어 수업을 듣고, 다음 학기를 전공수업을 듣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중국어를 가능한 한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진 선생님이 한달 동안 강의해주신 어학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되니 교환학생으로 오실분들은 착실히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역사를 알면 동북지역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생활

• 수업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교환학생을 가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길림대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학과를 불문하고 듣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중국어 실력 때문에 중문과나 경제학과의 수업을 원어로 듣는 것은 무리였고, 저는 대외한어수업 14학점, 국제교류수업 1학점 이렇

게 15학점을 들었습니다. 대외한어 수업으로는 유학생들만 따로 모아둔 본과수업을 들었습니다. 길림대에서 학사과정을 듣고 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이었는데, 공부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착실하게 듣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어학코스는 미국인 스웨덴인 등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들으나 본과수업은 한국인과 러시아인이 7대 3의 비중으로 듣고 있습니다. 본과수업은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하루 종일 같은 교실에 머물며 수업을 듣고, 선생님들만 매 시간 바뀌어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제교류 수업은 매시간 중국과 아시아에 관련된 주제를 특강 식으로 각기 다른 교수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 왔으나 아직 학교 측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경제, 정치와 같은 사회과학적인 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들께서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에게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각 국가의 청년들이 동아시아 관련이슈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기숙사

기숙사는 2인 1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방에 1대의 TV와 2개의 침대, 옷장, 책상, 협탁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각 방마다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물 안의 석회질이 많아서 씻어도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기 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이 안좋다보니깐 머릿결도 나빠지고 피부염이 심해져서 고생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나옵니다. 늦게 일어나거나 밤에 방에 늦게 도착하면 살얼음물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수압이 약해서 변기물이 잘 내려

가지 않습니다.

빨래는 각층마다 코인세탁기가 하나씩 있어서, 한 개에 3위안짜리 코인을 넣어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빨래대가 있기는 하나,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시장에서 만 원주고 사와서 방 안에서 말렸습니다.

• 음식

대체적으로 동북음식은 한국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즐겨먹는 피자같은 음식이 동북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장춘에서는 동북음식 외에도 중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학생식당만 해도 메뉴가 백가지가 넘기 때문에 선택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한국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정통 한국요리와는 다른 맛이긴 하나 익숙해지면 맛있는 요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중국음식은 맘편히 먹을 수 없습니다. 시장음식은 디고요유라는 저질 기름을 쓰는 요리도 있어 항상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짠 음식은 저질 식재료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피하고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좋은 식재료를 쓴 요리를 먹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저질 식재료와 관련해서는 매일같이 중국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꼬치도 너무 싸다면 의심해봐야 하며, 요구르트도 너무 싸면 화학약품으로 만들었을 수 있으니 사먹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추천하는 것은 직접 만들어먹는 것입니다. 일단 기숙사에 층마다 공동주방이 있습니다. 밥솥은 한국돈 3만원이면 4인용짜리를 살 수 있습니다. 길림대 인근에 한국슈퍼가 있기 때문에, 각종 한국

음식 재료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슈퍼와도 가깝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 먹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더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다만 물 안에 석회질이 많으니 생수로 요리해야 합니다.

• 여행

학기중에는 여행을 갈 기회가 별로 없으나, 청명절이나 노동절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청명절 때는 장춘시내를 여행했고, 노동절에는 근처의 대련으로 2박 3일간 여행을 갔습니다. 근처라고는 하지만 열차로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대련은 장춘보다 발전한 도시이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볼 것이 많습니다. 장춘은 완전한 내륙지방이라 호수 외에 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데 대련에 가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인 민박도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대련외에도 하얼빈이나 심양쪽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백두산에 단체 관광을 가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백두산에 1박 2일간 갔다왔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천지를 못 봐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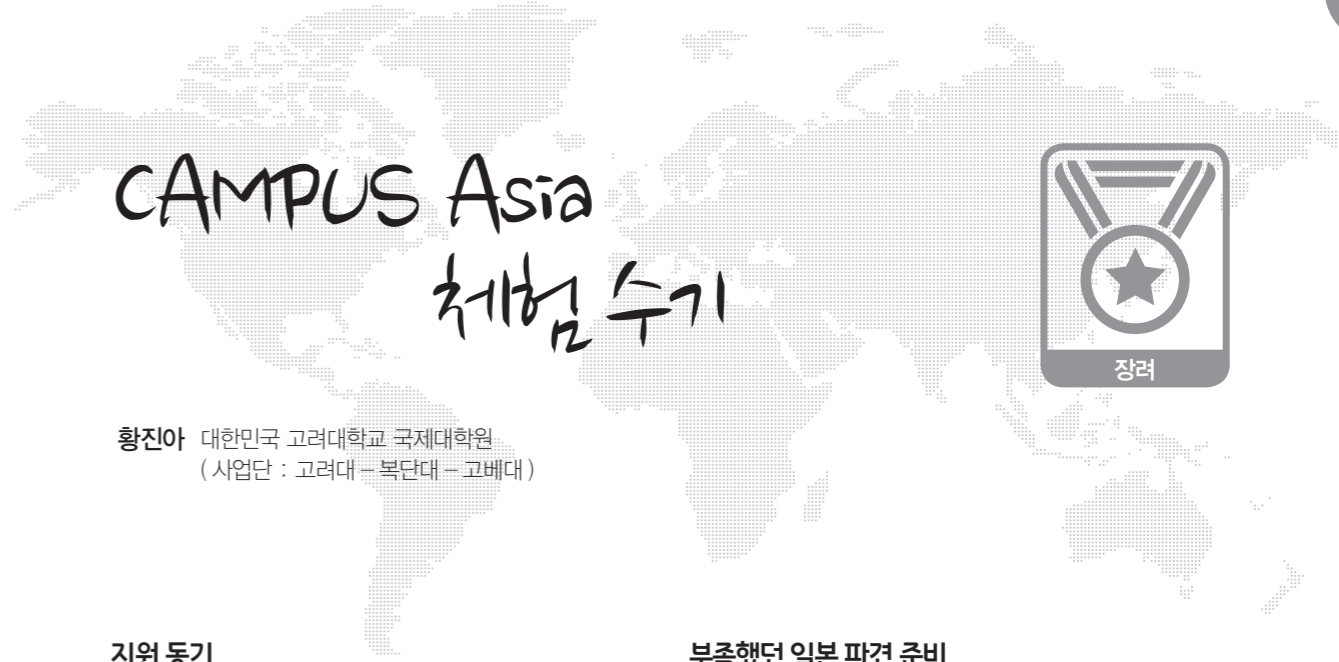
• 치안

많은 여성 학우들이 중국의 치안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걱정했고,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다니지 말기, 택시는 2명이상 타기, 한국인인 것 너무 티내고 다니지 말기, 중국 사람과 언쟁하지 말기 등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면 장춘은 안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되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반에서 수업 듣던 다른 유학생 친구는, 중국인들과 술김에 싸우는 바람에 다쳐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중국인들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 몇 가지 중국 유학생회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써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춘은 아직 발전된 곳이 아닙니다. 옛 만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구획 같은 것이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있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이기도 하나, 아직까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 추운 장춘은 저에게 더할

나위없는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베이징보다 더 친절하고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 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애초에 목표로 했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른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중국, 특히 동북지방의 문화와 성향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 특히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 글을 읽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황진아 대한민국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북단대 - 고베대)

지원 동기

‘이대로 졸업을 해도 괜찮을까?’ 고려대 국제 대학원에 입학하고 1년이 지나갈 무렵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다. 필리핀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쫓아서 들어온 고려대 국제 대학원 이었지만 과연 이렇게 2년동안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개발 협력을 전공하고 있지만 더욱 깊이 있는 공부, 더 많은 경험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에 눈에 들어 온 것이 CAMPUS Asia 추가 모집 공고였다. Risk Management에 관해서 한.중.일 삼국의 대학원이 결연을 맺어 서로의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고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시간을 놓쳐 미처 지원을 못하였는데 추가 모집이라니! 바로 CV(이력서)와 Statement of Purpose(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바로 보낸 기억이 난다. 너무 급한 나머지 지원서 제출후에 ‘아... 안될 가능성이 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것이 스스로 Risk Management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 파견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제대로 없었기에 떨어지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해 두고 있었다.

부족했던 일본 파견 준비

크게 기대 안하고 있던 차에 합격 통보가 온 메일을 확인하고서는 바로 부모님께 알리고 뿔뿔이 기뻐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일본에 갈 날은 다가 오면서도 그 당시 마카오의 Summer School Program에도 참여하고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도 다녀 오면서 많은 준비를 못했다. 일본에 필요한 물품들은 미리 받아놓은 일본 주소로 소포를 보내놓았지만 일본어 공부는 고사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노하우들을 블로그들을 보면서 대충 정보만 알아 놓은 정도 였으니 일본에 갔을때의 고생길이 불보듯 뻔하였으나 ‘일단 부딪혀 보자!’ 라는 생각으로 9월 18일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 탔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이렇게 일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어준 친구가 있었다. 함께 고려대에서 CAMPUS Asia 학생으로 온 이현경이다. 일본이 처음인 나와 다르게 일본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언어가 뛰어난 현경이 덕분에 일본 생활 적응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9월18일에 일본에 도착하니 고베 대학교 CAMPUS Asia 스태프 분들이 마중 나와계셨다. 함께 앞으로 지낼 Ashiya역 근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설레 이던지. 고베 대학교에서 CAMPUS Asia 학생들이 지낼 곳으로 방2개짜리 아파트 집 3채를 준비해 놓으신 상태였다. 각 집에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이 지내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날 함께 지낼 푸단대학교 룸메이트 Lijing이 왔다. 함께 필요 물품들을 쇼핑하면서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하루 하루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다. 대부분의 관공서 관련 일 처리들은 고베 대학교 CAMPUS Asia 스태프 분들께서 함께 처리 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였다.

고베 대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8만엔씩 장학금의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또한 프린트나 복사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각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전용 데스크와 락커를 제공 해 주는 부분 또한 신선했다.

고려대는 학기별로 1학기생, 2학기생, 이렇게 학생들을 나누는데에 비해 고베대학교는 M1 (1학년), M2 (2학년)으로 학생들을 나누는 부분도 달랐다. 특히 M1학생들은 큰 공용 공부 방에서 공부하는 데에 비해 본격적으로 논문에 집중하는 M2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에 맞춰서 더 작고 조용한 방이 배정 되는 부분이 신선했다.

또한 각 유학생에게 일본 현지 학생들이 Tutor로 배정이 되어 기본적인 학교 생활 및 일상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실 예로 나의 Tutor인 스키무라상은 인터넷으로 텀블러 사는 것 부터 발표 준비까지 여러 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학기가 시작하면 각 학생의 논문 주제에 맞춰서 담당 교수님이 배정이 되는데 (나의 경우는 논문을 쓰지 않아서 CAMPUS Asia 전임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

다) 각 교수님의 학생들은 반드시 그 교수님의Seminar에 참여 하여 매 주 각자 논문 주제 발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한다. 한국에서는 교수님과 1:1로 논문을 준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에 신기해 했었다.

학교가 시작함과 동시에 고베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일본어 수업에도 꾸준히 참가하였다. 일본어 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문화 체험등을 외국인 유학생 센터를 통해 무료로 참여 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 와서 얻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인턴쉽이다. 오가와 교수님의 소개로 UNESCO Bangkok의 Educational Policy Reform Unit에 6개월간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여러 교수님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무사히 인턴쉽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학기가 끝나는 2013년 2월에 바로 방콕으로 가서 인턴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 생활 노하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일본어를 못하면 여러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저 관광으로 올 때에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영어와 한국어 안내가 준비 되어 있지만 조금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 적인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해도 제약이 되는 부분을 많이 느낄 것이다.

또한 일본이 아무리 우리 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예절과 교통 시스템이 다른 부분은 인지하고 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전차 안에서는 전화 통화를 자제하는 것. 웬만한 어른신 들에겐 자리 양보를 안해도 되는 점 (양보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좌측보행이

우선시 되는 점. 전차,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한 것 등 미리 인지하고 와야 할 부분들이 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얘기 하자면 일본은 기본적인 핸드폰, 인터넷등이 비싼편이다. 다행히 한국에 몇몇 회사들이 일본 핸드폰 심카드와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2년이상 일본에 거주 할 예정이 아니라면 저 회사들을 이용하는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일본에서 지내면서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이 기본적인 생활비 문제이다. 나의 경우 초반에 너무 준비 없이 와서 정착하는데 돈이 꽤 들었지만 현재는 월 5만~6만엔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여행하는 것 포함) 일본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식비와 교통비 인데 식비는 점심, 저녁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생활하여서 많이 줄일 수 있었고 교통비는 전차를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아끼려고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관광을 하는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개선사항

CAMPUS Asia내의 문제가 아닌 고베 대학교 행정으로 인한 개선사항을 얘기 하고 싶다. CAMPUS Asia에는 총 두 종류의 교환학생이 있다. 1학기만 있는

‘교환학생’, 2학기동안 공부하는 ‘복수전공’학생이다. ‘교환학생’은 고베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지 않으므로 정식 고베 대학원 학생이 아니어서 따로 학생 할인이나 통학할때 필요한 전자할인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로 자전거로 하루 1시간정도 통학을 하고 있다.) 또한 학교내에서 아르바이트등을 하게 되어도 일반 학생들보다 더 적은 시급을 받게 된다. 교환학생으로서 여러 불편한 점이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후배들에게...

일본 고베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CAMPUS Asia는 자연재해, 그 중에서도 지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지진이라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만 다루는 것이 아닌 재난 이후의 복원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재난 위기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이번에 얻게 된 UNESCO 인턴쉽은 교육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만약 개발 협력 중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 과목들 외에도 외국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에 아직 일본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여 포기 하지 않고 자신이 흥미로워 하는 분야라면 지원하길 바란다.

아시아 법 공동체 행정의 첫걸음

무척이나 뜨거웠던 2012년 8월의 나고야



임효준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 서울대 / 성균관대 - 칭화대 / 인민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프로그램 개요

제가 이번에 참가한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 일본의 나고야대학교, 중국의 칭화대학교/인민대학교/상해교통대학교 등 각 학교의 법과대학이 함께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학기 또는 1년간 운영되는 장기프로그램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개최되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중 2012년 여름방학에 있었던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단기 프로그램은 일본 나고야에서 22일간 이루어졌으며, 나고야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마련한 국제하계세미나와 동 대학의 국제교류 학생동아리인 SOLV에서 마련한 행사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의 두 도표와 같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의를 수강하는 대신 법률사무소에서의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동기 및 준비절차

학부 재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국외 대학에서의 수학을 희망해 왔었으나,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습다. 보통의 법과대학 재학생이 그렇듯 시험공부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가정형편도 넉넉지 않아 비용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무가 보다는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계획하고 있었기에, 우리나라 법학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에서의 학습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기간을 이용한 국제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세미나 개최 대학이 일본의 대학인 점은 고민할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았고, 세미나 주제 역시 법과 정치를 아우르는 것이라 제가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헌법 분야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또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 학생들과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이 분야에 관한 인식을 널리 나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항공료 및 수업료, 숙박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는

Nagoya Universit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Summer Seminar

		2012 8 August						
MON	TUE	1 WED	2 THU	3 FRI	4 SAT	SUN		
7:00	7:00	1	2	3	4	5	6	
						① Welcome	② Welcome	
Opening Ceremony & Orientation	Class I	8	9	10	11	12		
Research Visit 1 Aizu-Juuk Corporation	Class II	Lecture -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13	14	15	16	17	18	19		
Research Visit 2 Chuo-Juuk Bar Association	Holiday - No Class		Cultural Exchange	Research Visit 3 Gifu Prison				
20	21	22	23	24	25	26		
Class I	Lecture - Introduction to Law and Society of Japan		Completion Ceremony			③ Have a nice trip!		
Class II								
27	28	29	30	31	1	2		

SOLV August Schedule

*-NUSL SS official events and activities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e-mail to the SOLV at ask@solvnagoya.nagoya.ac.jp

MON	TUE	WED	THU	FRI	SAT	SUN
						Arrival
*Fall Trip (ASR B&D)	*Lecture: Decision B&D	*Welcome Party (Free 500yen)	*Shopping at OSU (Free 500yen)	*Free day	*Free day	*Free day
*Fall Trip (Gifu Prison)	*Research Visit 1 (Free 500yen)	*Free day	*Cultural Exchange Party	*Fall Trip (NAGATA Court) (Free 500yen)	*FORNNAME (Free 500yen)	*Lar (Free 500yen)
*Discussion (in English)	*Discussion (in English)	*NAGATA seminar (Free 500yen)	*Free day	*Research Visit 2 (Free 500yen)	*Research Visit 3 (Free 500yen)	*Departure

소식에,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5월에 이러한 모집 공고를 접한 저는,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하였고 다행히 참가자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참가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선발된 2명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선발된 7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 대학원생이 4명, 학부생이 5명이었습니다. 1학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준비절차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학생들끼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담당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일본과 중국의 학생들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문화 교류 행사 및 토론 주제 선정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2-3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와 일본어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갔는데, 이번 프로그램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통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어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프로그램 체험담

• 인턴십

8월 7일-10일 한국과 중국의 대학원생 5명에 대해서는 나고야의 각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JLPT 1급 소지자인 4명은 각각 다른 법률사무소로, 그렇지 않았던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선배와 같은 법률사무소로 배치되었습니다.

인턴십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법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굉장히 보람찼던 경험이었습니다. 먼저 일본과 인도 기업 간의 영문계약서를 검토하고 기업고객과의 상담을 참관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제 관행 등을 접할 수 있었고,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형사 법제만큼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앞서 있다는 점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



본법 교과서를 읽고 변호사님들과 토론을 하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법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이외에도, 변호사님 및 직원분들과 함께 회식이나 나고야성 축제 관람 등을 하면서 일본의 직장 문화 및 여가 문화에 대해서 간접경험을 해 볼 수 있었던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강의

8월 20일~23일에는 “Introduction to Law and Society of Japan”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나고야대학교 법학과의 교수님 한 분과 저의 인턴십을 지도해 주셨던 변호사님 한 분이 진행하셨는데, 수업은 매일 2가지의 주제를 정해 일본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면, 3~4명씩 조를 이룬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실태를 조사해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일 간 다루어졌던 주제들은, 법률정보의 조사방법, 입법과정, 법정의 구조, 법조 인력의 교육,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판결문의 구조, 소송의 빈도와 기능 등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그것들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턴십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일본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었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면모를 철저히 띠고 있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사법제도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공부할 때에는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특히나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내용은 자료조차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수업 및 과제물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 학술적인 영어 글쓰기 및 말하기 연습도 할 수 있어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견학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세 차례의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에 도착한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Aisin Seiki 공장 및 전시관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방직기, 방직기 산업 등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도요타 자



동차의 부품 등까지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의 역사를 생산품과 함께 전시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세계사 교과서 등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산업의 변천 과정’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생산 공장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견학을 마친 후에는 법무팀 직원 분으로부터 준법지원제에 대한 강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8월 13일에는 나고야 지방법원과 아이치현 변호사협회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일본 법정의 구조 및 재판 제도, 특히 새로이 도입된 재판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변호사협회에서는 협회의 구성 및 기능과 함께 일본의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현황 등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직접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형사 재판 2건을 방청하면서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모든 법정에 방청인이 많았던 점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8월 17일에는 기후현 교도소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용하는 이 교도소에 방문하여 교도관님의 설명을 듣고 수용시설을 30분가량 둘러본 뒤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의 교도소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달리 자유로운 생활을 많이 보장해 주고 있었고, 수형자들도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 문화교류행사

8월 16일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고야대학교에 머물고 있던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학생까지 8개국의 학생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각국 학생들이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와 발표를 하였고, 몇몇 학생들은 전통 춤 등을 직접 공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저녁 식사로 각 나라의 대표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새로운 음식도 많이 맛보고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SOLV 동아리 행사

저희와 같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나고야대학 법학과 동아리 SOLV에서는, 앞서 프로그램 개요에서 소개한 것처럼 공식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 저는 토코나메 축제와 영어 토론, 송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8월 18일 참석한 토코나메 축제는 도자기를 만드는 마을에서 개최된 여름 축제였는데, 거리 음식과 도자기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고,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온 단원들의 공연과 1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불꽃놀이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는 지역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음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월 20일과 21일 진행된 영어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했던 원래의 계획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각국 법과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등록금 문제, 법학의 학문적 분야와 실무적 분야의 실태 및 미래 전망 등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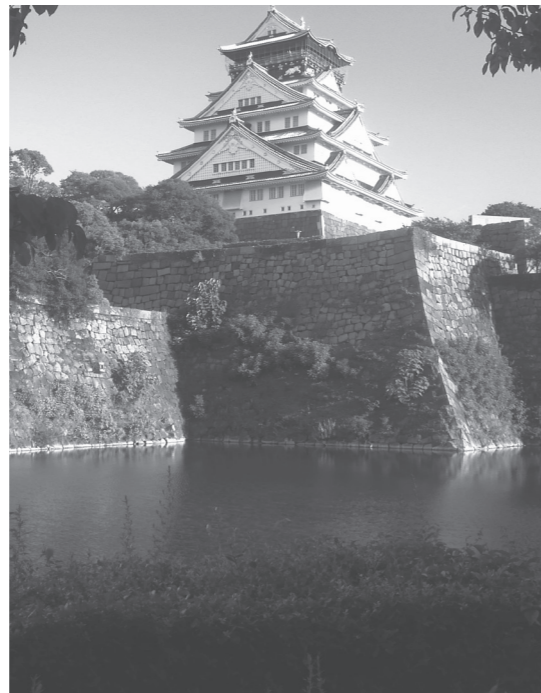


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음식 문화와 언어 등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대화를 긴 시간에 걸쳐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송별회에서는 일본의 전통 음식인 나가시 소면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대나무 통을 반으로 잘라 경사 있게 놓은 뒤 그 위로 흐르는 물에 국수를 흘려보내면 주변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국수를 건져 먹는 방식이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또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본 체류생활 노하우 및 후배 참가자들에 대한 조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체류기간 동안 큰 불편함은 느끼지 않



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100% 체험하는 노하우는 또 다른 법! 어느 나라에서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일본 체류생활 노하우로 일본 문화를 많이 경험하는 방법을 꼽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후배 참가자들에 대한 조언도 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2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체류기간 틈틈이 여행을 다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참가 학생들은 자유시간이 주어질 날을 통해 나고야 및 주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경우, 8월 11일과 15일, 19일에는 나고야를, 12일에는 나고야 근교의 이누야마시를 여행하였고, 8월 24일과 25일에는 기차로 2-3시간 정도 걸리는 오사카와 교토도 다녀왔습니다. 나고야성이나 아츠다 신궁, 메이지무라, 오사카성, 금각사, 은각사 등 역사적 유적들과 TV 타워, 오아시스 21 등의 현대식 건물, 나고야항, 기소강, 기온 거리 등의 풍경과 난바, 도톤보리 등의 변화가 전망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넘쳐나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일본 학생들 및 같은 곳을 여행한 중국 학생들과의 공감대가 늘어나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어, 일본에 있는 동안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일본어를 충분히 습득하고 프로그램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는 것이고, 신청요건에도 일본어 능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일본어는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운 이후 혼자서 조금씩 공부해 온 터라 일상생활 대화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아직까지 영어에 친숙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겪은 느낌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영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어를 충분히 습득하여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일본 학생들과, 또 여행을 하며 만난 일본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대학원생의 경우 인턴십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로 된 자료까지 마음대로 접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사항 제안

저로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업명에 걸맞게 동아시아의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국외 대학에서의 수학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소하게나마 아쉬웠던 점이 존재하기는 하였는데, 이에 대해 짧게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본의 학기가 8월 초에 끝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학기

가 9월 초에 시작하므로, 여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면 현재와 같은 기간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 두 번째 주는 일본의 추석과 그로 인한 연휴 기간과 겹치게 되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3주간 일본에 머무르면서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의 기간을 1주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기간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전학 프로그램을 주말에 진행하고 남은 날짜를 이용해 수업을 하나 더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료와 수업료, 숙박비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외 대학 수

학 프로그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항공료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상해-나고야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의 국적기를 이용한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출해야 했을 것이고, 다른 나라 학생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인천-나고야 구간의 경우 저가항공을 이용했을 때 항공료가 현재보다 1인당 10-20만원 정도 더 낮았습니다. 추후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우리나라 학생의 항공료 지출을 줄여, 베이징-나고야 구간 직항 항공편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현지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에 보태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아시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



이승욱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인민대 / 청화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캠퍼스 아시아’, 한중일 세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첫 사업, 올해 3월, 나는 학교 게시판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그 주제는 동아시아 ‘유스코뮤네’(공동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 공동체의 인재양성, 처음에는 테마가 나에게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유럽 연합처럼 세 나라가 국가연합을 만들 때, 내가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에 대해서 설불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평소 동아시아의 역사,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삼국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나는 용기를 내어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에 지원했다. 다행히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교수님들께서 나를 이 사업의 일원으로 선발해 주셨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으로 결정된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일본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비록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이기는 하지만 일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일본어로 쓰인 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업단에서 일본어 학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방학 동

안에 외국인 도우미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과 많은 대화를 한 덕분에 일본에 와서 무리 없이 생활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일본 나고야에 도착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간다.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 내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좋은 점

우선,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나고야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나고야대학은 다른 일본의 대학보다 국제교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법학부만 보더라도 캠퍼스 아시아를 비롯하여, 일본어로 학부수업을 듣지 않고도 영어로 된 전공 수업을 들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G30 프로그램, 비교법 연구를 위한 LL.M / LL.D 과정, 나고야대학만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NUPACE가 있다. 그 외에도 동남아국가와의 법학교류를 위한 캠퍼스 아세안 사업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한다.



PSI 수업

다른 점을 비교하고 의문점을 해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의 두 수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일본학생들에게 더 글로벌적인 시각을 갖추게 하려는 나고야 대학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이와 같이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나고야 대학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을 위해서 학교 내의 수업 이외에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내년 1월 7~8일, 도쿄에 있는 일본 최고 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일본변호사연합회관 등 법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견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동안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일본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일본 기업과 이야기를 조율하고 있는 중에 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7일 (月) 643 Monday Jan 7	名古屋大学農田講堂前・集合 / Assembling in front of the Nagoya University Toyoda Auditorium	
7:00	早上7시부터東京へ出発 / Departure for Tokyo by a chartered bus	
	昼食 (各自) / Lunch (with your own expense)	
13:30-14:45	公正取引委員会 訪問 / Visit to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http://ftc.go.jp
	13:30-13:45 審判庭を申請に施設見学 / Facility tour (hearing courtroom)	http://ftc.go.jp/e-page/index.html
	13:45 - 14:20 及田道代委員 (前名古屋大学教授) への挨拶 Address from Commissioner Michiko Yamada, former professor of GUL 公正取引委員会及び経済産業省の概要説明 / Overview of the JFTC and the Antimonopoly Act	
15:00	最高裁判所 見学 / Visit to the Supreme Court of Japan	http://www.courts.go.jp/english/
	名古屋地裁第2部 審判 / Meeting with the Judge (Mr. MIYAKAWA Koji)	
17:30	ホテルオークラ チェックイン / HOTEL OKURA check in	http://www.hotelokura.co.jp/kyoto/en/ TEL. 03-3582-0111
	自由時間 / Free Time	
	夕食 (各自) / Supper (with your own expense)	
	朝食 / Breakfast at Hotel	
1月8日 (火) Tues Jan 8	Check-out	
9:00		
9:15	バスにて出発 / Departure by bus	
10:00	国会 見学 / Visit to the National Diet	
	靖国神社にて昼食 (各自) / Lunch at Yasukuni Shrine (with your own expense)	
13:15	日本弁護士連合会 訪問 / Visit to the All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	
15:30	バスにて出発 / Departure for Nagoya by bus	
21:30	名古屋大学 着 / Arrival at Nagoya University (expected)	

도쿄 공공기관 방문 일정표

따라서, 법학부 교육과정 중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을 하는 수업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많은 수업 중에서 두 가지 수업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일본의 유명 신문사 중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각 분야 별로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일본의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수업이 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일본의 현안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는 Peer Support Initiative라는 수업으로 수업방식은 일본학생과 다른 한 나라의 유학생이 그룹을 지어 서로의 법·정치·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 국가 간의

캠퍼스 아시아 주제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유학생들이 일본학생과 교류할 수 있고 일본의 자연환경을 보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키여행도 지원해주고 있다. 단순히 스키를 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에게 문화교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더욱 심층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된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고야 대학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없지는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국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지원하고 있는가하는 점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곳에서는 양국 학생들에게 다른 기숙사를 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다. 한 쪽 국가 학생들에게 시설이 좋고 학교에서 가까운 기숙사를 배정한 것은 다른 국가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동안 양국학생들을 모두 같은 기숙사에 배정하는 것이 무리였겠지만 이는 자칫하면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기 다른 기숙사에 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기숙사비의 차액 지급 및 교통비 보조를 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는 각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나고야 대학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G30 프로그램 중 일부, LL.M / LL.D 과정 중 일부, 일본어로 된 정규학부 수업으로 되어 있다. 일본어로 된 정규학부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인 점을 감안하면 영어로 된 수업은 매우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어수업인 G30 프로그램, LL.M / LL.D 과정 중에서도 실제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수강 선택의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여러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을 듣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한 과목 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한국에서 '이것 하나 해도 상관없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외국에서는 규칙 위반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법일 수도 있다. 이곳의 예를 하나 들자면, 나고야는 한국, 심지어는 다른 일본 지역보다도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임대계약을 할 때도 차도 분리수거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나도 여기에 와서 기숙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각 쓰레기 배출 날짜였다. 한국에서는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가 막상 여기 와서 직접 해보면서 사소한 것 하나도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물품인지 고민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그 사소한 것 하나 구별하지 않고 버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일이 쓰레기 봉지를 뒤져가면서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각되는 순간, 이웃주민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것이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좌지우지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나라를 대표한다는 '민간외교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사에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대학교 학부수업은 세미나, 그룹활동 등 여러 가지 강의형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님께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캠퍼스 아시아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로운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미리 자료를 조사한 다음, 자신이 이해한 내용 중에서 의문이 나는 점을 같이 공유하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수업방식에서 한국에서처럼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공부 방법으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무 위의 과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학습방법보다는 직접 과일을 따려고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일본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과 지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간략

하게 써 보았다. 내가 하고 있는 법·정치 분야는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해이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살펴보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한국에서 간과했던 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의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그러한 인재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또 이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한중일 세 나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 번영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캠퍼스 아시아. 아직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춧돌부터 다져가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 주춧돌을 바탕으로 삼국의 협력이라는 기둥이 세워진다면 먼 훗날 이 세 나라는 세계를 이끄는 리더국으로 우뚝 솟을 것이다.'

Summary of life in Kaist



Yang Ye 중국 칭화대 계공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My name is Yang Ye. I am a junior student from Tsinghua University. I have been studied in Kaist for one semester as an exchange student. Now I am leaving Kaist for China. It is true that life in Kaist is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experiences in my life. And these have a great influence on me. I acquired not only a lot of knowledge but also much improvement in thoughts and style of thinking. Now I want to make a summary of the life in Kaist. My summary is made up of six parts and they are motivation, preparation, life in Kaist, my thoughts, something said to next candidates and acknowledgement.

Motivation

In my second year of university, I have an idea that I would like to go abroad to travel around to see different scene in the world and broaden my horizons. But I have been confused for a time because I didn't know where should I go? I wanted to study in America or Germany.

But for some reasons, I lost the chances. One day I heard that there is an exchange program named "Campus Asia", the participating universities are Tsinghua University, Kaist and Tokyo tech. I was very interested in the program because China, Korea and Japan are three important countries in East Asia, the cooperation the three countries is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I am very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I applied for the opportunity to exchange to Kaist. Fortunately, I made it. So with the aim to see different scenery, I started a new journey in my life.

Preparation

When I knew that I was permitted to exchange to Kaist, I was so excited. I have been prepared for my first exchange life for a long time.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need to prepare, such as passport, visa, different kinds of documents and certificates. And also, I need

to prepare for my language, both English and Korean.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for me to prepare for these things, they took me a lot of time to finish. However the most difficult thing is Korean, because I have never studied Korean before, I didn't have enough time to learn Korean in the training courses, so I had to learn Korean by myself. I learned Korean for several months and I could only read some words and spoke some common sentences. Although it may be boring, but the process to learn Korean is unforgettable.

Life in Kaist

I have been in Kaist for about 4 months, and I am living a happy and relaxed life in Kaist. When I look back the life in the past 4 months, I am touched and happy because I have seen different scenery and met friendly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this part I will talk something about my life, my study and my experience of travel in Korea as an exchange student.

• Routine life

Calling back when I firstly arrived at Kaist, everything to me is new, including eating habits, friends and spoken language, everything is new except for my roommate. Fortunately I lived with Wu Long who is one of my best friends. It is a good thing as well as a bad thing, for I lose the chance to live with a foreign student which would be good for exchange life.

Korean people are very friendly because I



cook noodle

could just speak some simple words of Korean when I came here. In the life of next 4 months Korean people gave a deep impression on me. Many people give me a lot of help when I have any difficulties. In addition to these, Campus Asia office in Kaist supplied many supports and service in life and study, and they make me feel very warm and cordial.

The environment here is very good and the blue sky here impresses me a lot. There is a lot of lawn in the campus. The river outside Kaist is the best place for me to walk around when I am free. Korean food is spicy, and there are a few varieties and that disappointed me when I first came for there are more than 10 canteens in Tsinghua University. Kimchi in Korean is very famous, we can see it everywhere. At first the tasty of Kimchi did not agree with me, then after several weeks I liked Kimchi very much, and I eat Kimchi for every meal.

The dormitory I lived in is well facilitated with microwaves and different kinds of fitness equipment. So in my spare time, I often cook



doing exercise

using microwave, and sometimes, I cook with other China friends in the international kitchen. We often cook some simple food such noodle, toast, eggs and other food that can cooked by microwave.

And also in my spare time, I like to do exercise in the gym to build up my body.

Life In the weekend is more colorful, we often travel around in the weekend, and also we often have dinner with other friends both Chinese and foreign friends, the barbecue here is very delicious and there are many varieties. Sometimes we ask some friends to drink, I found that Korean students like drink in the weekend. We drink beer and sometimes we drink Korean soju. In a word, life in here is very relaxed and happy.

• Study in Kaist

I selected 5 courses this semester as well as Basic Korean for Foreigners. What impress me most is that the professors here are friendly and kind. Professor Kim Jeong-Won teaching the course of Modeling and Control of Engineering



having dinner together with Chinese and Japanese friends

Systems is very kind and humorous, his English is very good and give us chocolate. Professor Kim Soo-hyun teaching mechanism design is also very nice. I visited one of the lab in ME, and selected individual research for this winter program, and I hope that I can do some research in Kaist. Another impression that Kaist leaves on me is that students in Kaist Study very hard, most of them study very late up to 1:00am or 2:00am. And in the class, Korean students are very active, they take notes while listening, and sometimes they ask questions.

• tour and visiting in Korean

It has been more than 4 months for me to stay in Kaist, and during the 4 months I visited many places in Korean. Korea is a small country compared to China, so we can travel around in the weekend, the transportation is very convenient in Korea, and this make our trip very efficient. With these experiences, my life is so interesting.

First of all, Seoul and Busan,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n. We stayed in Seoul for 2



tour in Seoul

days. Seoul is a modern city with a long history, a city like Beijing. But Seoul is less crowded and the environment is much better. There are many places of interest in Seoul. We visited commercial district and historical sites in Seoul.

Busan is a beautiful coastal city. The beach in Busan is so beautiful. We visited Busan in October, but it was still very warm, and we had great fun on the beach of Haeundae.

The night scene of Busan is very beautiful, we took a boat to enjoy the night scene, and the city with decoration of colorful light is so beautiful. We also have tried the seafood in Busan which was very delicious. But some seafood is very scaring, the chopped eel still move when eat them. How terrible! I had never ate raw food before.



having fun on the beach of Haeundae



play instruments

The following is a field trip to Baekje Cultural Festival which was during an important festival in Korean. At first, we visited the palaces of Baekje, and then we visited the museum beside the palace. There are many historical relics in the museum. Through this, I knew more about the history of ancient Korean. We also took part in the festival, which was very interesting. There were many memorial ceremonies honoring the ancestors. The festival was very lively, there many people dressed in traditional clothing, they danced and played different kinds of musical instruments. We joined them, and they taught us



visiting Doosan

how to play them with warm hearts.

The last one is the Technical tour. There are two technical tour, one is visiting POSCO and another is visiting Doosan. Both of them are the representatives of Korean advanced industry and they left a deep impression on me. When we visited POSCO, we visited the steel rolling workshop and witnessed the whole process, which was so magnificent. We visited factories and plants of Doosan, and they also make me very interesting.

My thoughts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study in Kaist, from where I stand, Kaist is a good university, and Korea is a beautiful country with advanced industry. It is really an unforgettable experience in my life. I have made many friends from China

and abroad. I often go out with my friends to travel or have dinner together. I will never forget them. Apart from this, the education style is also different from China, it is first time for me to use English textbooks and, that is amazing for me. The classes are very lively, where every student can ask any questions freely. The study life in Kaist will influence my entire life.

To next candidates

Kaist is a very good university with nice professors and beautiful scenery. The life in Kaist is also very colorful, there are many activities held by school and different kinds of clubs. And also, Korea is a beautiful country, you can travel around by convenient KTX. There are many beautiful cities and sites in Korea which I have introduced above. You are making a good decision if you choose Kaist.

Acknowledge

Campus Asia office and professor Im have provide a lot of supports and help during the whole semester. They make my life easier and more convenient. I want to say thanks to them, thank you very much.

내 인생의 전환점, Campus Asia



이선국 대한민국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서울대 / 포항공대 - 나고야대 / 토호쿠대 - 난징대 / 상하이자오통대)

2012년 5월,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것은 Campus Asia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공고였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 협력의 시작: 화학/소재 과학 기술 영역의 개척”이라는 주제로 한-중-일 6개 대학(포스텍, 서울대, 난징대, 상하이교통대, 나고야대, 토호쿠대)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첫 문장을 보자마자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군 복무를 위해 학교를 휴학한 뒤, 복학하는 첫 학기였기 때문에 잘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학부생으로서 외국 우수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 참여를 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뒤로하고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 국/영문 자기소개서, 공인영어점수, 성적 증명서 등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 뒤, 간절하게 기다린 끝에 6월 중순, 마침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출국 준비가 시작되었다. Campus Asia 담당자들을 통해 Visa를 비롯하여 항공권, 기숙사 등 모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 받고 진행할 수 있었다. Campus Asia의 장학금은 파견되는 국가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본의 경우는 JASSO(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과 같은 금액인 8만 엔을 Campus Asia 측

에서 매달 지원해준다. 더불어 항공권, 기숙사비까지 별도로 지원해주셔서 학생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Campus Asia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

내가 연구 참여를 하게 된 대학은 지원할 때 1지망으로 쓴 나고야대학이다. 나고야대학은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있는 일본의 명문 국립대학교로, 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내가 연구하게 된 연구실도 노벨상 수상자인 Noyori Ryoji 교수님의 Noyori Laboratory다. 참고로 연구실 선택 절차는 나고야 대학 Campus Asia 담당자 분으로부터 나고야 대학 화학, 소재분야 연구실에 관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행 중인 연구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을 선택하고, 학부생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연구실을 선택한다. 나의 경우, 촉매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실을 희망했는데, 마침 Noyori 교수님의 연구실에서도 유기촉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다. Noyori 교수님은 촉매를 이용한 비대칭 합성기법 개발에 대한 업적으로 2001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신 일본의 유기 화학자로, 현재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 연구소인 RIKEN의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시다.

현재 Noyori Lab에는 Noyori 교수님을 비롯한 세



Noyori Ryoji 교수님과 함께

분의 교수님과 15명의 학생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Noyori 교수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매주 수요일 소규모의 Lunch time을 통해 연구실의 학생들에게 연구와 관련된 조언과 상담을 해주신다. 10월 초, 드디어 Lunch time에서 교수님을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만나 뵈기 전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옆집 할아버지와 같은 포근함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개교 25년 만에 세계적인 대학이 된 포스텍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나에게도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할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다.

Campus Asia 학생들에게는 연구실의 선배 1명이 Tutor로 지정되어 실험과 연구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연구주제는 Noyori BINAP ligand를 활용하여 ketone의 asymmetric hydrogenation을 촉진할 촉매를 Design 하는 것인데, 이는 Tutor의 연구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언제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Tutor는 석사 1년 차인 동갑내기 친구로, 9월에 일본에 입국할 때 직접 공항까지 마중 나와 줄 정도로 친절한 친구이다. Tutor뿐만 아니라 모



Noyori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

든 연구실 사람들이 나를 연구실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해주고, 많은 배려를 해준다. 특히 이곳은 스페인,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다양한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있어서 세미나와 회의 등 공식적인 발표 시에는 영어를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연구실 사람들과 함께한 1박 2일 Field Trip 때는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곳 연구실에서 실험하면서 느낀 인상 깊은 점은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약과 기구들이 마트처럼 체계화 되어있는 시스템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고, 업체 관계자들이 매일 연구실을 찾아와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간다. 또한, 각종 실험에 대한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 있어 Noyori Lab에서 처음 연구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차근차근 실험을 배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자주 다양한 세미나가 열려서 자신의 분야 외에도 유기화학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2개 조로 나누어 2주간 자신들이 한 연구에 관해서 토론, 발표하고,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논문을 요약 발표



NUPACE 친구들과 함께 Shirakawago(白川郷)에서



홈스테이 가족들과 김밥을 만드는 모습

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부 사업인 Campus Asia 외에도 나고야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학생 프로그램인 NUPACE (Nagoya University Program for Academic Exchange)에 같이 속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중·일 세 나라만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어울릴 기회가 주어졌다. 얼마 전의 Halloween 때는 다양한 분장을 하면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가을 단풍을 보러 가기 위해 당일치기로 교토에 놀러 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시라카와고에서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일본어 수업을 제공해주는 것인데, 개인의 수업 정도에 따라 Standard와 Intensive course로 각각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NUPACE는 학생들의 일본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관리해주고 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오리엔테이션을 1주일간 실시하여 재류카드등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관련된 사항부터 지진 시 대피 요령, 나고야의 명소 소개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여 문제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

과 안내를 통해 NUPACE 학생들이 원활하게 일상 생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NUPACE 외에도 나고야대학에는 다양한 유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쉽게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잘 되어있다. 지난 11월, 학교와 연계된 홈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2박 3일간 일본식 가정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13살, 11살 남자아이들이 있는 가족의 집에서 함께 김밥도 만들고, 여행도 떠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반갑게도 얼마 전 이곳 나고야대학에서 포스텍을 거쳐 가신 교수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같은 세미나 수업을 듣는 G30(일본의 국비 장학생의 일종) 한국 유학생의 유기화학 담당교수님이 포스텍에서 2년간 연구 조교수를 역임하셨던 교수님이셨다. 이를 계기로 교수님을 만나 뵈게 되었고, 그때부터 물심양면으로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포항에서의 추억을 함께 교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고야에서 새로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Campus Asia 통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과학 기술 영역의 개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My life and study as a Member of Campus Asia Students



Wang Qianqian 중국 복단대학교 국제관계 / 공공사무학원
(사업단 : 고려대 - 복단대 - 고베대)

My name is Wang Qianqian from Fudan University, one of the students in Campus Asia program, and now I'm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for international studies, Campus Asia, whose full name is "Collective Action of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was led by three governments of China, Japan and Korea, aiming to enhance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from three countries. Luckily, Fudan University is in one of the programs and I am also luckily to be enrolled to study at Korea University. The program I joined composes of Fudan University from China, Kobe University from Japan and Korea University from ROK, named as "Program for Careers on Risk Management Experts in East Asia" which specializes at "risk management" study.

Honestly speaking, I have a very good time in Korea, both from academic study and life experience. Because our program is particularly on risk management, Korea University has three classes especially on this theme: human rights,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nflicts, I took two of this classes which helped me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n risk from different aspects. Apart from the classes, we have two amazing trips to DMZ and Jeju Island to understand risks and conflicts. School have arranged TA and coordinator to assist our life, with their help, I could enjoy the life, study and different culture in Korea.

Life in Korea University

The first day we came to Korea was a rainy day that everything was in a mess and we cannot find our dormitory. Luckily, an unknown Korean boy led us to the CJ International House. I mentioned CJ because the dormitory is really good and I have spent much of my spare time living here, cooking, studying and discussing at the studying room, making friends with people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What impressed me is that CJ have organized a field trip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students, I also have a good time at our GSIS department. For GSIS department, only one third of students are Korean and others ar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I have made friends with some Korea students and became a language exchange with a Korean girl that she teaches me Korean and I taught her Chinese. Most of the classes have group work for papers or presentations, while group members will keep the friendship after the group work was done. The most significant experience I had here is that I have a chance to know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I got to know more about Korea and Japan and now I can understand different tradition and customs better. Korea is a very nice place to live, small but exquisite. Different from China, Korea is more delicate with better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China is a big country with large population; it takes time and more energy to refine, while China can learn precious experience from its neighbor Korea.

Study at GSIS, Korea University

In order to study risk management, I chose two courses, one is about human rights, and another is about resource management. Human rights class helped me to form a general picture on what is human right, what kind of human rights violation is happening in the world. This risk happens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there are few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Human right is the

rights bestowed as a human being, thus no one can take our rights away. This is not only political rights, but rights from hunger, fear and violation. This class impressed me a lot that I came to realize that so many people is suffering from human rights violation from different aspects in different regions. I hope that if chance offered, I would work in NGOs to help those victims and suffered people in the future. Another class is about resource management which examines different resources and the energy consumption in the world in order to advocat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regard to the Campus Asia program, professor made detailed comparison on different energy consump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Sustainable development is an inevitable road for future developing mode, Japan and Korea have adopted useful policies on achieving this goal. Korea is especially significant for it has put forward "Green Growth" idea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China, as a later comer and developing country, is the biggest CO2 emitter country and now is also trying to achieve its commitment to reduce CO2 and refine its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For this part, China should learn from other two partners to contribute more to environment preservation as well as continuing economic growth.

Apart from the risk related courses, I picked several core courses and Korean language course. GSIS School has a good educational structure with four different major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ies. There are several core courses like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Business and International Economics. Those classes are a little bit hard for those who have no education background but are quite useful. My major in China is political science, thus it is hard for me to understand International Business. However, I should thank this class because on the torturing process to learn and prepare for the class, I gained basic knowledge on business field. The professor is humorous with profound knowledge while it is a pity that he is not going to start new class next semester. Korean language class is the most interesting class I have taken for this semester. The teacher for Korean class is so nice and patient, it seems that she is going to solve all of our language problems with smile. As a very beginner, I have great interest in learning a new language because I believe language is part of a country's culture and it is better to learn their language if you are going to understand their culture. This class is full of foreign students, so the class is so funny since



sometimes our pronunciation is funny. Also from this class, I got to make friend with many of the foreign students.

Two field trip: DMZ and Jeju Island

For this whole semester, professors organized two field trip related to risk theme, one is to see the tension between ROK and DPRK in DMZ, another one is to see the conflicts resulted from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Jeju Island. These two trips are real experience to feel risks and conflicts in Korea from today and past. It is the first time that I can closely combine what's in books with the real life around me.

• DMZ Trip

On October 24th, 2012, Professor organized a trip for our Campus Asia students to visit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is a strip of land running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at serves as a buffer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runs along the 38th parallel north. The DMZ cuts the Korean Peninsula roughly in half, crossing the 38th parallel on an angle, with the west end of the DMZ lying south of the parallel and the east end lying north of it. We have visit a lot of places and among that three caught my special attention: the Dorasan train station, the Third Tunnel and the Dorasan observatory. The Third tunnel is so dark and wet where water flowing underground. In this tunnel, I can obviously fear the tension in the war time. It is so hard for the soldier to running in this narrow underground way. From the observatory, we can see the North Korea scenery, it is barren land with few people and few trees. The scener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rosperous in South Korea. Among the field, there is a peace village, where villagers used to live in a one country, but now they are separated into two parts, one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poor, another is bestowed with freedom and wealth. The long separation have sharpened the gap between two nations and made it much harder to reunion again.

• Jeju Trip in Gangjeong Village

On December 14th, 2012, led by professor, we students from Campus Asia program went on a field trip in the beautiful Jeju Island, the so called World Peace Island.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which was created entirely from volcanic eruptions approximately 2 million years ago. It contains the natural World Heritage Site like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and different culture. Apart from the amazing scenery and cuisine, it is an island of conflict history that was taken over by Japan, and conflict today exi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The aim of this trip is to see and understand the risk in the Jeju Island, especially in Gangjeong.

Gangjeong village was selected as the naval base by Korea government in 2007, while this construction plan is processed for the lack of democratic process, public support and in the face of severe ecological consequences. In 2011, against the majority of Gangjeong villagers, despite of the ecological value of this area, and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timeframe set up for excavation and removal of any historical, cultural property, the construction began which incurred large opposition from local residents.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have a strategic meaning because of its position, where both near China and Japan. The local people do not want to see the peaceful Jeju became a war base and also do not want to see the natural ecological system to be destroyed by the construction. They keep struggling and



demonstrating against the naval base, some activists have been beaten by the police and some even been sent into jail. We came to the naval base after visit the village, big facilities have been setting up and more is going to be built. It poses a great threat to security the local people as well as neighboring countries.

In essence, Gangjeong village naval base is an international issue which has a big influence on th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regional safety of Asia, while it is a domestic problem that is decided by Korea government. Korea have military treaty with U.S, thus U.S are justified to use or even set fire on regional security by using naval base. Even though there are great objection of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t is hard for international forces come into interfere with a domestic issue.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activist came to work in the village, while some are arrested by the police. Government claimed this is a domestic issue and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its country safe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economy. I hope in the futu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UN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naval base security. As a Peace Island, I hope the future of Jeju Island can keep its beauty and peace image.

Conclusion and Small tips

Thanks to the Campus Asia program, I would have a nice time to study in Korea. For this whole semester, what I have learned is not only about academic study on risk management, but more and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nations and cultures, especially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ampus Asia program is a good chance for student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what I experienced is that Korea University has a good arrangement both on courses and activities. While, I think more interaction is needed to continue the communication. As I am studying at Korea, thus more study is about Korea and lack the study of Japan. Thus, I am wondering if there could be some courses co-taught by professors from three schools as a seminar, this can be a tele-education. Or, if there could be some chances for students from three schools to study together, liking a visit or meeting, it might be great.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I hope in the future more chances would be possible for students to interact together. One of my former professor said, every day at abroad is learning. Indeed,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sparities, the more possibilities for us to cooperate and unite together.

일본 동경공대에서 2달간의 교환학생을 마치며.



정광우 대한민국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처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경공대에 있는 연구실에서 경험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우선 일본은 기계공학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독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가장 문화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연구실 문화와 한국의 연구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인연을 통해 먼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우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친구 한 명과 함께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수가 매우 적어서 처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참석수가 적었던 기계과 설명회와는 달리 전산학과에서 열렸던 설명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고 선발과정에서도 경쟁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 준비과정은 어느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자신의 지원동기, 지원분야, 연구계획, 성적표 등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직원 분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

다. 하지만 교수님, 직원 분들의 도움으로 지원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연구주제를 잡는 것이었는데 2달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힘들었다. 일본 지도교수님께 메일도 여러 번 보내고, 그 연구실과 가장 비슷한 KAIST의 연구실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하여 어떤 연구주제가 좋을 지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로봇의 두 다리를 최소한의 에너지로 작동시키는 방법인 Passive Walking에 대하여 진행 중인 simulation을 수정해 보는 것으로 주제로 잡았다.

사실 지원을 마무리하고 나니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다. 특히 일본은 방사능 문제, 반한감정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만류하시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에 비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봄 학기가 끝나고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강을 하자마자 일본대사관에 비자를 받으러 갔다. 사실 3개월 이내로 체류 시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장학금이나 학생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사실 2009년에도 도쿄, 요코하마주변을 혼자 여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익숙했었다. 그렇지만 친절하게도 각 연구실에서 지정된 튜터(Tutor)들이 함께 갔던 2명의 친구들과 나를 약속장소에서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동경공대에서 지정해 준 숙소를 찾아 갔다. 처음 본 숙소는 많이 오래된 곳이라 사실 걱정이 되었다. 2층 건물이었지만 외관은 판자로 둘러 쌓여있고 내부에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기도 했다. 이런 건물은 한국이나 동양계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아왔던 것이고 2009년에 요코하마에 살던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었다.

그렇게 일본에 도착한 첫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다. 나의 지도교수님은 Yamakita교수님이었다. 나 역시도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시절부터 박사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신 지금까지 동경공대에서 계신분이라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영어도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였고,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셨다.

내가 다니던 일본의 연구실은 위의 사진의 모습과 같다. 정말 내가 KAIST에서 학부생 연구과제도 수행을 했었고 여러 대학원생분들, 교수님들을 만나러 가보았지만 KAIST의 여러 연구실을 다녀보았기 때문에 동경공대의 연구실 모습은 약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연구실이 있었던 건물이 가장 낡은 곳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개인의 Privacy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실에서 KAIST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연구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연구에 대한 열정만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우리학교의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처음 한 달은 수업이 없이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통해 이번 연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숙달을 연습했다. 나의 튜터는 동경공대로 학부유학을 간 한국인으로 나이도 나와 같았기 때문에 정말 나와 많이 친해졌고, 생활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편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어 나의 멘토가 되었던 박사과정 일본인 학생은 영어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지만 귀찮아하는 모습 없이 정말 성심성의껏 나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오히려 본인이 영어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모습에 더욱 고맙게 느껴졌다.



일본 연구실의 모습

KAIST와 많이 달랐던 것은 일단 학부 4학년이 되면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연구실에 배속이 되어 대학원생처럼 연구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연구실에서는 점심시간마다 교수님께서 학부생들이 알면 좋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학부생과 함께 토론하며 도시락을 연구실에서 같이 드시곤 하셨다.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고 밥을 먹는데 집중할 수 없다는 단점을 들 수 있지만 매일 다른 주제로 학생들의 생각의 범위를 넓여주시려는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그 곳에 도착한 지 일주일일이 채 되지 않아 찾아볼 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나를 불러 조만간 나의 환영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알고 있다고 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영파티를 한다면 주로 음식점에 나가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학교에서는 각 연구실마다 취사시설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 음식의 재료를 사와서 함께 만들어서 먹는 문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전이나 청결상의 문제로 하지 않겠지만 함께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그곳에서는 맛보다는 함께 일을 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차려진 결과를 즐기기보다는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도와가며 결과는 약간 미약할 순 있어도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보기 좋았다.

동경공대에는 생각보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게다가 출국 전에 한국인 튜터와 연락이 닿아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아 한국 유학생들 모임에서 함께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유대감도 정말 좋았고 처음 보는

학생이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친근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 자칫 지루하고 외로운 타지 생활이 될 수 있었던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덧 한 달이 지나고 캠퍼스아시아에서 마련한 수업을 듣는 7월달이 다가왔다. 나는 Survival Japanese 2&3, Advanced Technology at Tokyo Tech, Modern Japan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들었다. 이 과목에서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다 같이 수업을 들었다. 일본어 수업에서는 단연 한국학생들이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고등학교시절에 배우는 곳이 많고, 특히 한국인은 일본어를 발음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나머지 두 과목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동경공대 내부의 실험실, 혹은 SONY나 Mitsubishi 등 여러 회사와 연구소를 둘러보며 그곳의 기술을 확인해 보는 과목이었다. 사실 일본의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비교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강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렵듯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인턴이나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의 업무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오히려 일본이 더 열악하지 않나 생각된다. 연구하는데 있어 주변 복지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이 창출하는 연구 결과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만한 대상으로 복지나 시설 쪽의 측면을 주로 살펴보게 된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신생기업들이 많고 정확한 속 내용은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지만 겉 표면 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적어도 내가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연구소나 회사의 전반적인 상

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환경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7월 초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연구실 여행을 다녀왔다. 도쿄 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니이지마'라는 섬에 약 8시간을 가야하는 긴 여정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군 생활을 육지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섬에서 했기 때문에 여객선을 타고 섬에 간다는 설렘은 덜했다. 하지만 새로운, 그것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일본의 시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음식도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일본인들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교수님과 연구실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수업을 통해서나 같은 숙소를 사용하면서 만난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는 주로 여행을 자주 다녔다. 특히 주말을 통해 도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쉬면서 각자의 대학에 대한 소개와 일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등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학생들의 생각들을 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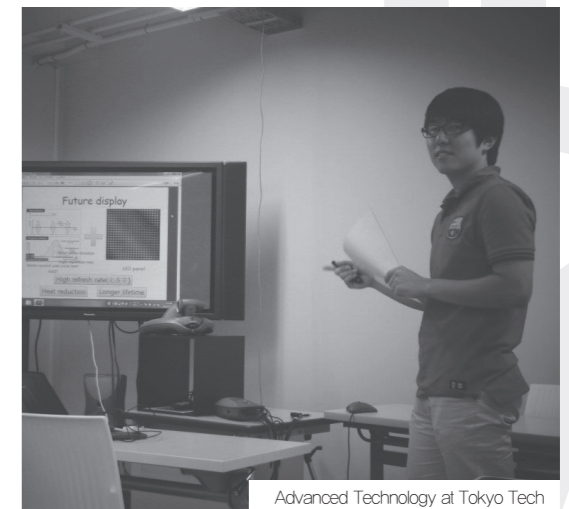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일본에서 가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그 때 당시 한참 열이 올랐던 런던 올림픽으로 인한 반한감정에 대해 걱정하곤 하셨다. 나는 다행히 올림픽 한일전이 있던 당시 한국에 귀국했지만 더 오래 일본에 남아 있었던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축구 한일전에서 한국의 승리로 인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그 당시의 일반인들에게는 약간의 반한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 인 것 같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게 한국인을 대해주며 그곳의 교수님, 캠퍼스아시아 staff들은 우리가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도 더 친절하게 해결해 주었다.

돌아보면 두 달이라는 과정은 매우 짧았다. 특히 마지막 한 달은 수업을 들으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 이 후부터 밤늦게까지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나와 같이 퇴근하는 연구실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좋아해서 하는 일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번



SONY 본사 방문



Advanced Technology at Tokyo Tech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인 성취보다는 일본의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느꼈던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한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는 것과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한감정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듯 했으며 특히 최근에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대학생들 역시 학생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측면에 있어 풍요로움은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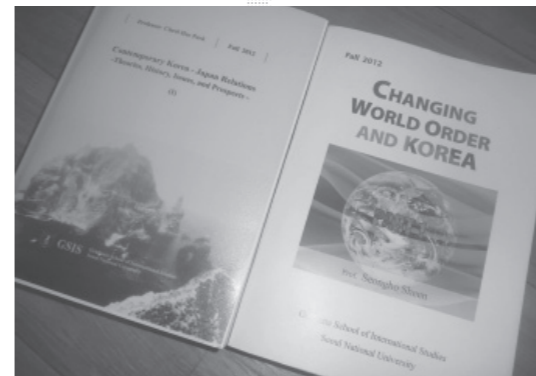
아볼 수 없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층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교환학생을 온 학생들이 모두 쉽게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찾아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하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학생들의 친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Following My Pan-Asian Dream



Yuto Ono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Consortium: SNU-PKU-U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or providing us with the opportunity to study in Korea with extensive support, both financially and logistically. Below are my personal comments and suggestions on the Campus Asia Program. I hope that my unique experiences as a Japanese student based in Chinese university exchanging to Korea can contribute to the better future of not only the Program itself but also the entire Northeast Asian community.

Academic Life (courses taken)

During my semes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d enrolled for two graduate courses: Changing World Order and Korea taught by Professor Sheen Seongho and Contemporary Korea-Japan Relations taught by Professor Park Cheol Hee. The former was a lecture-based class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while the latter was a discussion-based seminar on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 especially enjoyed the latter as the professor-leading scholar in the field with vast knowledge and first-hand experiences in inter-governmental dialogues—was willing to discuss with students about sensitive subjects such as “comfort women” issue or Dokdo/Takeshima controversy. Throughout the course, I became more optimistic about Korea-Japan relations as the statements made by the professor were generally non-biased and the reading materials assigned for every session were reflective of the

different claims made by the two countries. It was unfortunate that I was unable to register for more cour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sis preparation for my home institution (Peking University).

Campus life

As the most prestigious institu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offered a wonderful environment both in terms of academic standards and campus life. Every week, students would receive mass number of invitations to the various events held on campus through e-mail and I had personally attended the distinguished lectures by US Ambassador to Korea (Kim Sung) and World Bank President (Kim Yong). Many of these lectures were conducted in English and open to the entire campus community for free of charge, which were truly valuable experiences for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like myself. With regard to campus life, students had at least a dozen cafeterias (each with two or three menus) to choose from, which were not only cheap (ranging from 2,500 to 4,000KRW) but also very tasty.

One negative critique would be that we were only able to apply for Student ID after we had obtained the Alien Registration Card, which meant that campus facilities such



as the central library could not be accessed during the first month of our stay in Seoul.

Your impression of visiting country

As a Japanese national, I would have to confess that my impressions of Korea were not very positive before my arrival in Seoul as the stereotypical images I had toward the Korean people were that they were very nationalistic and also anti-Japanese. However, such prejudices were soon overturned when I saw with my own eyes how developed the country was and how disciplined the people were. Unlike in Beijing where some parts of the city were much more developed than the other parts, the entire city of Seoul was equally developed and most public places had offered free wireless Internet. The Korean people for the most part have been very polite and kind to me, although I did discover that average Korean people—particularly older generations but also some younger generations—could only understand basic English phrases. Together with the fact that many signs (including bus routes) were only provided in Korean, these challenges had presented the initial difficulties when we first settled in Seoul.

As the title of my essay suggests, the sole reason why I had applied for the Campus Asia Program was to pursue my dream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Community along the lines of the European Union. In an effort to enhance my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people, I paid visits not only to tourist attractions like Gyeongbokgung Palace or Nami Island but also to historical sites such as Seodaemun Prison or Independence Hall in Cheonan. Perhaps my only encounter with a group of anti-Japanese activists had been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when a group of Korean protestors had mistaken me as Chinese because I was wearing a Peking University school bag and offered to shake hands as a show of friendship. This was, by far, my most memorable experience in Seoul because they must have treated me very differently if only they had known that I was in fact Japanese.

Opinion on the CAMPUS Asia Program

Overall, I was extremely satisfied with the Campus Asia Program because it had helped me to improve my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people, which I believe is crucial for developing global leaders equipped with global minds.

Aside from taking class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affs a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d kindly organized a field trip in mid-October where students from China, Japan and Korea wer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each other outside of their regular classrooms. Our two-day trip had included a visit to Suwon Fortress and Samsung Digital City, as well as a pottery experience in Icheon, which presented us with a mixture of Korea's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technology. In early November, students were divided into groups of four or five and each team had prepared a presentation that focused on a certain issue involving Northeast Asia. Our presentation titled "Education in Northeast Asia" had discussed the education system in each country and concluded with a possible solution to the issue of "brain drain" (migration of skilled students or professionals to foreign countries), that is especially serious in China and Korea but Japan is also not an exception. Other groups had addressed the issues of aging society or cultural door opening, and these presentations had



made us aware of the common challenges that Northeast Asia faces.

Having said this, I do have two possible suggestions for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Campus Asia Program in the coming years. The first is regarding our monthly stipend of 900,000KRW, which may have been sufficient for

students living in the dormitory but not for those students who lived off-campus. As the monthly rent for an officetel in Gwanak-gu could easily exceed 650,000KRW unless one chooses to live in a tiny koshtel (around 400,000KRW), this left only a small portion of money to spend on food, utility fees and bus fare. The second concerns the referral of some internship opportunities at relevant institutions (e.g.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lthough I was initially very eager to apply for internships during my stay in Seoul, I had to give up this idea since there were only a few months remaining by the time we had obtained the Alien Registration Card. If we could be provided with the option to intern on the days that we do not have class, I feel that this would allow us to translate our knowledge and experiences into more practical skills.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민경식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 / 서울대 · 인민대 / 청화대 / 상해교통대 · 나고야대)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본에 온지 곧 세 달이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삼국에서 뽑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경쟁한다는 사실에 아직도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한국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많이 배워가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때문이기도 합니다. 한중일 공통법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성균관대, 인민대학, 나고야대학의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법형성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의 당사자로서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른 길 일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일본을 이해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정치와 법에 대한 지식부터 문화의 뿌리인 언어를 배워가는 것과 일본인의 생활을 익혀나가는 것 까지 일본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배움의 방법 중에서 아무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삼개월 동안 배운 일본의 사회체계와 언어, 생활에 대해 얻은 가르침을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입니다.

일본에 와서 언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구조적으로 한국어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기초부터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한국어의 기초도 들여다 보게 됩니다. 한국어로 당연히 떠올렸던 단어들도 일본어 단어 공부를 하면서 음운단위의 한자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도 있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게 단순히 외국어 하나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반추해 보는 기회가 되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어 단어는 주로 한자의 훈독으로 나타나는 일본고유어, 한자의 음독으로 나타나는 고전외래어, 근대화 시기의 언어로 느껴졌습니다. 일본 고유어의 경우에도 한국어와 음운의 유사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자의 유입 이전부터 양국이 유사언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되고 한반도에서의 언어가 일본으로 유입이 되었을거라고 보았습니다. 일본의 정세도 느끼고 일본어 공부도 하겠다는 의미로 요미우리신문이나 닛케이신문의 사설을 보고 있는데, 사용하는 단어의 한국어와의 유사함을 보면 놀랍습니다. 근대의 제도와 관련된 단어의 대부분은 유사함을 넘어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되돌아 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에게 개설된 강좌 중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 예를 들면, 캠퍼스아시아 학생과 나고야대학의 G30 학생을 대상으로한 정치경제 세미나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의 방식은 일주일에 두명씩 자신이 읽은 일본의 정치, 경제관련 기사들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친구들의 관심사도 듣고 가치관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아시아 소속의 중국학생들의 주제선정과 내용전개를 보면서 법을 공부하는 중국의 우수한 친구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지 볼 수 있어 서로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다총리의 의회해산과 12월 선거의 자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선거공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환태평양경제협력(TPP)과 헌법개정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헌법9조의 집단적 자위권인정과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는 우경화 경향과 일본의 경제위기극복의 필요조건인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어떻게 조우될 수 있는 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비록 정치외교적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서로를 증오하지 말자는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없었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기자들에 의한 수업도 있습니다. 매주 요미우리신문의 편집자부터 기자까지 정치, 사회, 문화, 생활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살아있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갑니다. 대부분 영어가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지만 저희를 위해 강의 준비를 많이 해오십니다. 특히 센카쿠 문제와 독도 문제가 나오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곤 합니다. 현직의 기자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독도에 관해서도 한국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논리와 제3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논리가 구분됩니다. 이 수업에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준비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영토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다 해결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일본의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의 논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고야대학 스모부에서 일주일에 삼일 두시간씩 일본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찌다가 그런 곳에 들어갔는 지 묻는 사람이 많지만 일본에 와서 한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체육부는 엄격한 곳이었습니다. 클럽(부)과 씨클이 구분되는데 클럽만이 학교의 이름을 걸고 대학연맹의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클럽의 활동은 생각 이상의 수준으로 열성적이고 선후배 관계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스모부의 특징은 식사하는 것이 훈련의 일부처럼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곱배기에 해당하는 오모리(おもり)를 두개를 시켜서 한시간 가량 먹습니다. 신입생은 보통 어마어마한 양에 익숙치 않아서 삼십분가량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섯시에 시작한 것이 세시간의 운동과 샤워, 식사



를 모두 끝내면 금새 열시에 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일본의 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운동,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며 멋지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유학생이 아닌 일본인으로서의 대학생활 속에 들어가볼 수 있었습니다. 제한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부대끼고 대화할 수 없었다면 이와 같은 빠른 시간 내의 일본인과의 교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가노시에 가서 캠핑도하고 카이야킹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자연 속에서 숨쉬고 왔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다만 차로 이동 중에 엉덩이가 뻘뻘 원숭이를 두눈으로 목격했을 때는 일본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카이야킹했던 호수는 원래 호수가 아니라 평지였다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지형이 바뀐 곳이라 나무들이 호수에 서 있습니다. 또 수면 아래에는 도로 형태가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제도 이전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이전에 자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벗어나 일본 본유의 자연을 엿보았고 저에겐 큰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사회와 사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간이지 않았나 합니다.

토요타시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강연도 하였습니다. 식습관부터 케이팝까지 두루두루 이야기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케이팝과 드라마의 영향 때문입니다. 준비해간 씨름과 태권도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말미에는 같이 태권도 발차기 연습도 하였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일본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상의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지내면서 배울점도 찾고 우리 나라의 장

점을 재발견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법 내지 규율에 대한 태도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규칙으로써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좀 더 융통성이 있는 편이지요. 크게 보면 일본은 그런 태두리를 잘 유지해나가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만큼 활동성은 적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느꼈던 사회적 활기를 일본사회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오늘 있던 양국의 선거과정을 목격하면서 정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슬로건처럼 아직 대한민국은 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와 아직 젊은 조국이 함께 커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구개월 길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

다.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생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잘배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저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그 때 꿈꾸었던 화합하는 한중일이 희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삼개월 동안 느꼈습니다. 그 화합의 중심에 캠퍼스아시아 학생들이 서있길 기원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손기식 원장님과 권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힘쓰고 계신 류일현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강문희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학교 - 오카야마 대학 - 길림 대학)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문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도 캠퍼스아시아에 지원·합격하여 일본의 오카야마 대학에서 1년 예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에 온지도 9개월째입니다. 4월에 와서 만발한 벚꽃을 보며 감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캠퍼스아시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즉 일본에 오게 된 동기는 사실 처음 매우 단순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좀 더 넓은 필드에서는 어떻게 받

아들여질 수 있으며,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학문의 일국적(一國的) 시각을 벗어나,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을 획득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아직 해외에서 수학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며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 부족하나마 합격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왔습니다.

2012년 4월, 부푼 마음과 걱정을 끌어안고 도착한 오카야마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환경. 혼자서 산다는 것(一人暮らし), 한국에서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든지 혼자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살짝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물 다르고 낯선 외국.. 그건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을 터지요. 그러한 저희를 위해 캠퍼스아시아 측에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했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아시아 측에서 마련해 주신 숙소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생활면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셔서 1년을 지내기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어에 “눈이 돌아간다(目が回る)”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첫 달인 4월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일본, 특히 오카야마에서 자전거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통수단입니다. 캠퍼스아시아 측에서 마련해 주신 집은 자전거를 타면 학교까지 불과 3~5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카야마 대학의 츠시마 캠퍼스는 일본 내에서도 3번째로 넓은 캠퍼스라고 합니다. 들은 대로, 역시 매우 넓기 때문에 자전거를 마치 ‘마이카’처럼 언제나 타고 다녀야 합니다. 또 짐구를 비롯한 주방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구입하고 학생증, 도서관 출입증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일이 처음인 저도 어떻게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그러저럭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년에 올 참가자들은 더욱 수월하리라 봅니다. 자전거를 비롯해서 간단한 가구 등은 저희가 한국에 가져가기 곤란하니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생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일본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였는지를 묻는다면 저는 ‘언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라고까지 할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여기에 올 때 일본어를 그리 잘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생활면에서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가장 곤란했습니다. 일본에서 그저 생활만 한다면 덜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수업을 듣기만 한다면 괜찮았다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원생이고, 여기서 근대문학에 대한 자료취급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학문적 경향을 반드시 배워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오카야마 대학 ‘사회문화과학연구과’에

서 특별청강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몇 개의 수업 중, 일본근대문학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전기(1학기)와 후기(2학기) 연속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첫 시간,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신의 전공이라든가 관심 분야에 대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날 매우 당황했고, 그날 이후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저는 언제나 자기의 관심 분야 혹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분야가 없거나, 혹은 있지만 알게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저는 당연히,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지만 제가 석사과정 때부터 공부해온 것이 있었고, 또 그 주제 이외에도 여러 다른 분야도 탐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황설수설했습니다. 그 강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요점을 명료하고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실 일본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전기에 그 수업에서 세 번의 발표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나의 연구 테마에 관한 것, 두 번은 정해진 텍스트를 정리,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연구 테마에 대한 발표에서 또 다시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발표문을 작성할 때 한국어로 쓴 다음 일본어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발표 직전까지 매우 급하게 작성했고, 표현 또한 일본어답지 않은 표현이 많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다루는 주제는 일본의 아나키즘 사상이 어떠한 번역행위에 의해 구성되었는가, 였고, 일례로서 한 일본 사상가의 텍스트를 참조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어로 생각하면 안 되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발표문은 반드시 처음부터 일본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캠퍼스아시아 참가자 중, 문학 전공을 하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자료를 취급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저의 첫 발표는 실패였는데 그것은 일본어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료를 취급하는 방법에서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며 느낀 점 중 하나는 ‘느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자료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어 텍스트, 자료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소설 하나를 다루더라도 거기에 자기의 분석/해석을 신중히 덧붙입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용어나 개념을 말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혹여,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질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개념이라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신경 써서 생각하고 쓰는 것입니다. 겸손하다고나 할까요. 모두가 수업 시간엔 동갑이라도, 후배라도, 예의를 차려서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한편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깊은 토론이 진행되는 일이 드뭅니다. 학부에는 아예 질의·응답시간이 없는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요. 혹은 질문을 해도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생님들은 자그마한 질의용지를 만들어 매시간 돌려서 받아 보신다고 합니다. 한국인인 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일본의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느리지만 여유롭게, 자료를 그대로 음미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곱씹어 보는 일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대하는 태도만큼은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기 오카야마에서 인상적인 것을 또 한 가지 떠올려보자면, 일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태도입니다. 주지하듯, 일본의 마츠리(祭り) 문화는 유명합니다. 저도 7월에 있었던 타나바타 마츠리(七夕祭り, 칠석제), 8월 초에 있었던 오카야마 마츠리에 ‘참가’했었습니다. 제가 굳이 그냥 갔다고 하지 않고 ‘참가’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츠리 때 해당 지역의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히 준비합니다. 설사 규모가 작을 지라도, 거르지 않고 매년 합니다. 오카야마 대표 마츠리 외에도 동네 단위로 가끔 무언가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행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유래, 의미 등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무언가를 한다는 포스터가 길거리에 붙어있거나 합니다. 오카야마 마츠리 때, 이 곳은 우라자(うらじゃ)라는 춤을 춥니다. 이것은 오카야마만의 것으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올해가 19회째!) 그러나 축제 몇 달 전부터, 학교, 회사 등지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꾸립니다. 정식으로 협회에 등록을 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춤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저도 사실 기회는 있었으나, 춤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후회됩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12.12.13. 미즈시마(水島)에 위치한 JFE 스틸 공장 앞에서. 한·중·일 학생들이 모두 함께

1) <http://uraja.jp/> 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축제 당일, 유카타를 입고 가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며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했습니다. 가히 '참가'라고 말할 수 있을 법 했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끝난 후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고 깨끗하게 뒷정리를 합니다.

캠퍼스아시아 측에서 준비한 행사에 세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옛날에는 유교의 학습기관이었던 '시즈타니 학교(関谷学校)²⁾와 '소겐지(曹源寺)'라는 절에 가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전통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의 수업에 참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오카야마 내에 위치한 '미즈시마'라는 곳에 가서 제철공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처음의 두 행사도 물론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의 행사에서는 지역 경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장단지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으로 인한 공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의해 재단이 생기고, 그 재단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미즈시마의 환경을 보호·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³⁾ 지역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그 태도에 감명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만큼의 태도들을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발견한, 혹은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사소한 것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당국의 행정상 신속하지 못한 처리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카야마 대학 내 캠퍼스아시아 사무국 또한 일처리가 늦거나 서투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아시아 사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참가자들이 모든 면에서 서툰 것처럼, 그들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까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여기서의 9개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라는 자성도 해봅니다.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도 큼니다. 하지만, 지나친 부담은 오히려 일을 느리게 하는 말도 있듯이, 저는 과거는 탓하지 않기로 하고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공통의 고전에 대한 탐색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해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캠퍼스아시아에 관련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2) 에도시대(1670년)에 오카야마의 번주인 이케다 미츠마사(池田光政)가 서민들을 위해 지은 학교, 지금은 특별사적으로, 강당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우에, 질서, 예의'를 주요 신념으로 삼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3) 그들은 이것을 "환경재생·도시만들기(環境再生・まちづくり)"라고 표현합니다.



김소연 대한민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사업단 : 성균관대학교 - 오카야마 대학 - 길림대학)

2012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오카야마대학으로 파견되는 것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12년 1월 중순, 처음 캠퍼스 아시아 모집 공고를 보고 유학을 마음먹고 접수를 마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때였다.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동안 계속해서 망설이던 학부 교환유학을 포기한 채 최대한 단계에 졸업해 일본으로의 석사유학을 준비하던 내게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그동안 체념했던 교환유학생의 꿈에 다시금 불을 지핀 새로운 계기가 되어주었다. 동아시아 고전학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학문을 지칭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 때, "동아시아 현안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슬로건은 동아시아 역사·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당시 막연하기만 했던 나의 연구 테마와도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졸업까지 한 해 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반 학기 휴학을 할 필요 없이 합격하기만 하면 그해 4월 바로 일본으로 파견된다는 빠른 진행은 무엇보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유학시의 생활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월 8만엔의 장학금 및 생활비, 기숙사 지원 등의 혜택 역시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제 막 시범된 사업의 1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가진 채로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지원했고 빠르게 들려온 합격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유학생활의 준비로 약 이 개월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정신 차려보니 이미 오카야마에 도착해 있었다.

유학을 떠난 이후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현지 언어 실력이 얼마나 되어야 하냐는 질문이었다. 캠퍼스 아시아 면접 심사 때도 면접에 임하기 이전에 기본 언어 테스트를 보았으며 심지어 면접 시에도 일본어로 묻고 대답하는 항목도 있었다. 합격 이후에도 언어 실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학교에서 개설한 일본어 수업을 들어야했고 그중에는 일본어로 쓰인 책을 스스로 번역하는 시간도 존재했다.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을 완벽히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체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문을 읽을 수 있고, 논문까지는 어려워도 가벼운 레포트 정도는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일본어실력이 필요하다. 수업 역시 현지어로 현지학생에 맞춰진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리스닝 실력 역시 필요하다. 한국에 비해 직접 말해야 하는 디스커션 시간은 적기 때문에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

트 및 전공과목 수확이 주목적이라면 사실 스피킹 능력은 가장 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 하자면 JLPT 1급 정도의 리스닝에 일본어로 된 소설책을 느리지만 읽을 수 있을 정도, 읽고 난 후에 감상문을 짧은 문장으로나마 A4 한 장 정도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가자마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학할 수 있는 정도이며, 한국인에게 일본어는 워낙 익숙하고 배우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일본어의 문외한이 아닌 이상 시간은 걸릴지언정 1년 정도 수학하고 돌아올 때는 일본 대학의 수업을 듣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실력이 될 때까지 낭비되는 시간이 있으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전에 미리 언어를 닦아두고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오카야마 대학으로 지원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슬로건을 보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향후 내가 일본으로 석사 유학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 졸업 후 정말 일본으로 바로 석사를 가도 될까 하는 불안감에 먼저 일본 대학에 가서 학부 수업을 미리 들으면서 스스로의 실력을 측정하고, 가고자 하는 대학의 교수님께 컨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일본 쪽으로의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부생이라면 굳이 학부 때 교환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그 시간을 단축하고 스스로의 실력을 쌓아 바로 석사를 가는 편이 나으며, 오히려 교환유학을 가 있는 시간동안 비록 언어 실력은 이전보다 향상 될지 모르나 전공공부는 한국에서 배우는 편이 더 심도 깊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유학을 가서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한국에는 잘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거나 한국과

는 다른 각도의 시각의 수업을 다양하게 배워 보고 싶다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 단순히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대학원을 진학해서 수업을 듣는 편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 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취지에 공감하여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여 가는 경우, 관련 수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규로 수업은 개설되어 있으며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다. 내가 유학했던 오카야마 대학의 경우, 처음에는 동아시아 고전학에 대한 정규 수업이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방학 때의 1박 2일의 세미나 형식으로 두 차례 진행된 것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커리큘럼이 세미나 직전에 배부되어 정규수업이라기보다는 캠프의 성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또 동아시아의 고전학이라기보다 일본 내의, 보다 국소적인 범위의 '오카야마의 유학'에 대해 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 고전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고 참여한 나로서는 어느 정도 당황스러운 측면도 존재했다. 동아시아 역사·문화공동체의 형성과 오카야마의 유학자에 대한 공부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 않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사전에 그 학교에서 어떤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수학만이 전부는 아니며 해외에서의 생활로 스스로의 국제적 감각이나 비전을 넓힐 수 있다는 그 외의 장점 역시 존재한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슬로건에 모두 공감하고 언어나 전공적인 부분이 모두 맞는 준비된 인재로 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일은 아니며, 그보다 외국에서의 체험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언어의 실력을 늘리고 향후 동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일 년의 경험은 나에게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의 문화와 정치, 역사인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격화되었던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은 그동안 영토분쟁이나 역사분쟁을 특별히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일본인 친구에게 그 문제와 관련된 호기심을 갖도록 했고, 그 덕분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으나 그래도 주로 피하는 민감한 화제인 영토/역사분쟁에 대해 열띤 토론이 가능했다. 또 현지에서 직접 배우는 일본 정치, 동북아시아의 고대사, 메이지 헌법, 아시아주의에 대한 인식 등의 수업은 먼 땅 한국에서 단지 글자로 접한 '일본인의 인식'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직접 귀로 들은 생생한 인식을 가능케 했다. 그런 의미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숙사 제공 및 월 8만엔이라는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은 먼저 출발하기 전 유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고, 실제로 일본에 가서도 생활비의 부족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장학금 액수도 학교마다 다를 것이고 역시 지역마다 물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유학했던 오카야마현에서 집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8만엔의 생활비는 기초 생활비와 식비를 제외하고도 상당 부분이 남을 정도로 풍족한 금액이었다. 남은 금액의 운용방법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내가 주로 택했던 것은 일본 각지로의 여행이었다. 학점과 성적에 큰 제약이 없는 학부생의 입장, 이수 과목 수가 많지 않은 교환유학생의 입장 덕분에 일반적인 유학생이

나 현지 학생보다 생활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장학금 덕분에 생긴 금전적 여유 덕분에 틈만 나면 오카야마현이나 그 외의 곳으로 여행을 다녔다. 일 년 동안 다녀온 곳은 다음과 같다. 오사카, 교토, 시가, 다카야마, 나고야, 카가와, 도쿄, 가마쿠라, 홋카이도, 히로시마, 큐슈, 오키나와 등. 한 달에 적어도 한군데 이상은 오카야마 현 밖의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했으며 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했다. 여행의 이점은 낯선 곳에서 전혀 다른 성별, 연령, 직업의 사람들과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꼭 일본인만이 아니라 일본을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체류한지 오래 되어 많이 현지화 된 사람들도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쉽게 나눌 수 없던 이야기를 들려준 재일교포도 있었으며,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처럼 늘 한국에 대해 호감만 가지고 있던 사람만 존재하지도 않았다. 대화의 화제들 역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한류, 한국 음식이나 연예인 등 가벼운 이야기에서부터 한일 관계나 한국 젊은이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영토 분쟁, 북한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한 주제였다. 그중에는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만났던 사람들은 늘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 일본'에 대해 궁금해 했고 그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일관계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재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연령, 직업, 사고방식 등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있는 편이다. 그 외의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내가 택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방법은 역시 여행이었는데,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의 와중에서도 스스로의 일본어 실력이나 논리의 한계를 느

끼고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야말로 학교에서 하는 공부 외의 공부가 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향후 캠퍼스 아시아를 참여하게 될 사람들에게는 먼저 가기 전 될 수 있는 한 언어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고 스스로가 지원한 학교의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과 잘 맞는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사업 내용이 맞지 않거나 잘 알아보지 않았을 경우에 막상 수업을 들을 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지로 떠난 이후에는 자신

이 얻은 장학생이라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신이 얻은 돈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스스로가 일본 혹은 중국으로 떠나는 목적은 무엇인지 출발하기 전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년 또는 일 년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지 않은 돈과 짧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겪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고 돈이 없을 땐 시간이 없다지만 우리는 젊음과 돈과 시간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Ding Guo 중국 칭화대 기계공학과
(사업단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 칭화대 · 동경공업대)

My name is Ding Kuo and I'm from Tsinghua University for the TKT Campus Asia

Program, I write this article to say something about my life in KAIST, including the daily life, studies, communications, travels, feelings and so on.

I came here on Aug 31st, 2012. I heard that there was a typhoon just the day before we arrived so we were lucky.

Before we came to Korea, a student from Campus Asia Office emailed us that he would meet us at the airport and guide us to KAIST. However, he gave us another email soon right before we left which is saying he can't meet us and we should find the way ourselves. When the plane landed, because of no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we asked a lot to get the right way. Though there was trouble, the experience was impressive and I will never forget that.

Finding the right way is never a problem actually. When you stay in Korea for some time, you will find it is very easy to get approach to the

places you want. If you fall in some trouble, you just need to find a beautiful lady around and ask her. Then she will help you out. I think it is fit for many situations where you are in a foreign country. By the way, be polite!

OK, we were at the gate of KAIST after a long travel. We took a taxi to KAIST and the taxi driver asked us which building we lived in. I didn't remember that I was told any building number and room number. The student that should have met us at the airport said in the email that we need call him when we arrived at the campus. Our phone couldn't work and we asked a beautiful lady to help us. After many calls, finally he get it up! Then at 11:00 pm we got the dormitory! We were very excited at that time.

With the help of my roommate, I could surf the internet using the campus net easily. And with the help of my roommate, I could select my courses in time. My roommate is also a Chinese. He is an exchange student from Harbin. He knows all the important things from a book which

was given by KAIST OASIS. For us, we had no books and we knew the things later by email from Campus Asia Office. I think Campus Asia Office should improve this situation and should prepare more before the students come. I think it's very natural for the Office because it's the first time and everything is new. I can also feel that the Office has made many efforts. I am very glad that I can participate in improving the program by being the first generation of students.

Beyond all these things, I'm prepared and my KAIST life starts!

I want to say something about the campus at first. KAIST has good scenery both in autumn and winter. The pictures followed are taken in the dormitory on the evening. We can see KAIST and some buildings out of KAIST.



Though KAIST campus is not so big as Tsinghua, it is quiet, lovely and beautiful.

You can see geese and rabbits in the campus and there is a hill and a river in the campus! The picture on the right is the geese on the campus.



Living in KAIST is a very enjoyable thing. The dormitory is very good. There is many facilities in the dormitory that ensure your needs such as exercises, doing some laundry and so on. You can even have a small party at the B1 floor. The cafeteria is good. I am not familiar with some of the food of the cafeteria but the other food is good for me. Now there is two new restaurants in the cafeteria one of which is selling noodles. I like it so much! After having meals in the cafeteria, you can take a cup of cafe with friends, talking and enjoying the sunlight outside.

In the autumn, there is a lot of rain and in the winter, there is a lot of snow. Rain is plain



in China and I can see it often but snow is not so constant in my hometown. When I was young, I saw several times of big snow. When I grow up, I hardly ever see big snow. Fortunately I see big snow in KAIST this year. Korea people say that the snow is big this year and we just come into it. My friends and I all think that the snow of Korea is beautiful for the style it falls down. In my home, it falls with the wind while in Korea the snow falls slowly without much effect by the wind.

The picture below is the rabbit on the campus.

As for studying in KAIST, I select five courses one of which is about the Korean Language. Before coming to KAIST, my teacher, who had studied as a master student for a couple of years in KAIST, told me that every course in KAIST could make you suffer a lot. He recommended me not to select more than 3 courses. Prof. Im also recommended me to take fewer courses after knowing I had selected 5 courses. What I thought at that time was that one of the 5 courses was Korean and it must be easy. So I just took 4

courses, only one more than normal. I thought I could handle it at that time. Actually I handle it at last but there is less time for me to make more Korean friends. I used a lot of time to study.

And I think it is good to teach all the courses in English. Courses taught in English can make the students international and happy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I haven't taken any courses given in English before except for English courses. So at first it is difficult for me. With practice, now I'm familiar with English articles, though not skillful. It is a very good thing for me.

Korean people are very kind and helpful. Once a time I walked on the road and I found Korean people bow to each other when they met. They bow almost everywhere. They are so polite that older people will always be honorable and younger people will always be respectful. This is a good society atmosphere.

The teachers that gave lectures to us are very nice. They will explain things carefully and again and again until nobody asks a question. Teachers in Tsinghua University also behave similarly.

The students of KAIST work very hard and that is an impressive thing to me. I will work as hard as KAIST students when I come back to Tsinghua.

And there is a person I must show the most thank to. He is Professor Im. He takes very good care of us so we can enjoy our living, study and travels. He is very kind and approachable like my father. He has arranged several farewell parties

for us and taken us to his house for a family meal for two times.

I also travel a lot with friends during my stay in Korean. We have gone to Seoul, Busan and other cities. One the way, I can feel the Korean life and the Korean culture.



Travel to Busan

And I make a lot of friends by a lot of means in Korea. Some of them are Korean, others are not. Sometimes a foreign friend can show you a foreign culture.



A foreign friend

At last what I want to say is that KAIST has a very good swimming pool and many places for other kind of sports. There is an international kitchen and cookers for Chinese in the closet. If you want to eat something instead of the cafeteria food, you can cook there or go to find some food outside of the west gate. If you are TKT program student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the Chinese students to use the things we have prepared already.

That is a shortcut of my KAIST life. If you want some informal advice from me,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by email. My email address is dkuo10@163.com.

Thank you!

Through Campus Asia Program



Kazumi NAKATA 일본 고베대학교 국제협력대학원
(사업단: 고려대 - 복단대 - 고베대)

Campus Asia Program gets me to realize again that having communication is very important to make peaceful world and reduce conflicts. Sharing our ideas is variable.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claim the most.

I came from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Studies, Kobe University to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through Campus Asia Program. In Korea, I had joined two classes related to Campus Asia Program. One is human rights and another one is international conflict class. Human rights class always gives us time to think about fundamental question such as what human rights is. There are many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t the class, so I could notice everyone was not always having same common sense even if we are same Asian countries like China,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conflict class was very small and had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 cannot say what they say is what all Korean or

Chinese people think, but at least I could know the difference ideas about various things such a nationalism at individual level. Then I could consider fears which may be one of factors of conflicts from philosophical point of view.

I also appreciate that I could have the chances to visit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Jeju Island. To be honest, if we did not have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I might have no chance to know about the conflicts which Korea faces.

I did not know about the situation whic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The DMZ shows us the containment of war between Koreas. I also could understand why Korean people have military service. When I went to DMZ, I felt the nervous between South and North. I never say that the place is interesting, but visiting there is very important. It can be a very sad place, but it makes us think what peace is. I heard that some tunnels which North Korea

made were discovered already, but still there may be more tunnels around South Korea. From these kinds of doubts, I do not think that forever the containment of war continues. It means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something happen again. Through DMZ tour, I felt that not only Korea but also the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need to think the conflict more seriously. People think that when something happen out of their countries, they tend to think it is not their problem, yet most of issues relate to several countries. Education may be also one of the ways to improve our ideas to figure out various issues in our society.

In Jeju Island, we visited to Gangjung village, peace museum, international peace center, anti Japan memorial hall and so on. In Gangjung village, I felt very strong passion from villagers. Now there is a conflict between Gangjeong villagers, Jeju Island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eople in Jeju have been suffering and fighting against an unjust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The villagers assert that South Korean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has been unjust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the villagers opposed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In addition, geographically Gangjeong village is not an appropriate location for a naval base. In spite of these negative factor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Defense have been pushing forward the plan, ignoring villager's opinions.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all kinds of conflicts not only within the

community but in the whole island. Neighbors who have different opinions are turning their backs on one another, and human relations used to be close but recently there is no good relationship. Villagers also mention that Jeju Island has two paths to take. One is a militarized Jeju Island that will in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like Okinawa in Japan. The other is a peaceful island where the breath-taking beauty of nature is well-preserved so all the peace-loving people from the world come to appreciate the environment. I could understand how much villagers love their nature, but I cannot judge without hearing the opinions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or some villagers who agree with South Korean government. In my opinion,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governmental motive.

Everyone all over the world has different opinions and common sense. Understanding each other is one of steps to solve some conflicts. In Korea, I am living with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When I fell something strange, I can



talk and share with them. Especially with Chinese friends belonging to Campus Asia program, I have been having a lot of chance to have talk. Recently China and Japan have had territorial issue. A further aggravation of the problem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is summer. I could learn a lot from Chinese friends through exchanging opinions about the timely topic. This is truth that my view has changed a lot about China and Chinese people. I believe that to live with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to sharing our ideas, to know the other common sense help me improve and make full use of my future job. If it is possible to have conference with all members

of Campus Asia Program, We can get to know the achievement more because I often have a chat with friends in China and Japan through social networks and can learn many things from them. Moreover, actually we, Campus Asia students do not have enough time to contact with many people, so it is better to join internship or volunteer work during vacations.

I thank people who give me this chance to join Campus Asia Program. People around me told me beneficial stories. I could make good use of my first semester at Korea University, so I hope my second semester will be wonderful as same as first semester.

CAMPUS Asia 체험수기



마츠모토 토모야 일본 입명관대학 일본사학과
(사업단 : 동서대 - 광동외어외무대 - 입명관대)

지원 동기

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한 데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있었다.

- 첫째, 어학.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특히 회화.
- 둘째, 학술. 석사 논문을 위한 한국 측 자료를 수집한다.
- 셋째, 인간. 유학생들의 영향.

• 첫 번째에 관해서.

한국어는 지금까지 거의 독학으로 해 왔으며, 시간만 들이면 어느 정도의 독해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대학교 도서관을 찾으면 얼마든지 한국어로 된 논문은 구할 수 있고, 한국어 web 사이트에 들어가면 텍스트 자체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독학으로 공부 할 수 있고, 그러할 방침이기 때문에 독해에 관해서는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현시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적고, 독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화이다. 역시 살아있는 말이라는 것은 대화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만은

독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가 필요하다. 회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몸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둘째와 관련하여.

현재는 인터넷을 사용하면 “조선 왕조 실록”등 어느 정도의 사료는 일본 국내에 있어도 수집 가능하다. 그러나 역시 인터넷만으로는 아무래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역시 한국에 가서 자신이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닥 달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상당히 충실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또한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공기를 접하고 현장 감각을 기르게 되어 역사를 쓸 때의 상상력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프로그램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최종 목표는 혼자 힘으로 한국어로 된 문학·사료를 수집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석사 논문 주제가 17 세기 후반기의 동아시아 표류민의 동향 분석으로, 도쿠가와 일본·조선·류큐 왕국·명청 교체기의 중국이라는 다른 입장에서 해당 시기의 동아시아 세계의 동향을 동태적·다면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 조선 측의 분석이 일정부

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본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 연구가 석사논문을 집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셋째와 관련해서.

리츠메이칸 대학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고, 내 소속 세미나도 대부분이 유학생이다. 그들은 비 모국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다루어, 날마다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 그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서인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나 자신도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왔고,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학생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 이러한 이유로 본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했다.

한국에 갈 때까지의 어떤 준비를 했는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는 않았다. 현지에 가서 학습 효율성을 생각해서, 한국어 문법의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했다. 그 외에 한국에 도착하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는 등 사전 분석을 주로 했다.

한국에서의 체험담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의 노력하는 모습에 매우 자극을 받았다. 처음 만난 시점부터 일본어 학습을 시작하지 아직 반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와 유창하게 대화 할 수 있고, TA의 업무를 겪는 중에서도 점점 일본어가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어도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기에 매우 감복하고 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나도 한국어 학습을 열

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아났다.

연구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한국의 연구자들과 몇몇 교류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흥분되었다. 교수님의 책을 받거나, 문헌이나 사료를 가르쳐 주셔서 향후 연구에 매우 유용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 생활의 노하우

나는 원래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는 곳곳의 모임에 참가하고 교류를 넓혀 가려고 했지만, 역시 원래의 성격이 재앙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당연히 이대로는 대화가 좀처럼 늘지 않았고, 그렇다고 술자리 또한 좋아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내 경우 잘 혼자 거리에 나오거나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주말은 거의 서면의 영광도서나 교보문고 등에 가서 책을 보거나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했다. 또한 가끔 혼자 기차를 타고 진주 가거나 서울에 놀러가기도 했다. 혼자서 여행을 가는 불안도 컸지만,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뛰어들어 생활하는데에도 조금 자신감이 붙게 되었다.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사항

• 장학금

장학금이 들어가는 날을 미리 명시 해 주었으면 했다. 입국 후 즉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일본에서 돈을 지참해 오지 않았다. 곧 돈이 부족하게 되어 친구와 교수님들에게 빚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협상도 “다음 주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말할 뿐 결국 입국 후 한 달이 지난 후 장학금이 들어왔다. 외국인 등록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등록이 완료된 후

에야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줬다면 대책을 세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입국 후 즉시 장학금이 지급 된다”는 인식이 위험하다는 것이 공부가 되었다. 향후 장기간 체류할 때는 미리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다.

• 캠퍼스 아시아 TA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본에서 미리 들었던 이야기와 한국에 와서 들은 이야기가 약간 달라서 혼란이 있었다. 그와 관련한 연계를 확실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일본에서는 확실히 “귀국 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협력해야한다”고 들었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도착 후 일정이나 무엇을 할 지 등이 전체적으로 불투명 도착 후 좌지우지되는 것이 많았다는 인상이 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할 일을 미리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후배 참가자에게 조언

내가 올해 경험한 바로 판단하자면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에는 일본어가 유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고 해도 일본어로 가득한 환경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으면 일본에 있는 것과 다른 생활을 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모처럼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특히 어학과 관련된 학습 목적뿐이라면 환경에 휩쓸려 버려 본말 전도될 수 있다. 말을 잘 하려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자주 듣는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모임을 좋아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혼자 거리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공부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CAMPUS Asia Program Essay



Fabiana Fong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eking University
(Consortium: SNU-PKU-UT)

It seems like yesterday when I start recalling the memories that I have made since I arrived the Gimpo airport on the first of September. I still remember clearly how my first day adventure like with my fellow comrades – how lost we felt when we first arrive the huge campus of SNU, how thrilled we were when we first entered our nice dormitory and how curious we were when we first ate in the cafeteria. Three months have now passed, I can now order food and go traveling using simple Korean; I now prefer makgeolli or soju instead of beer every time when I hang out with my Korean friends; I read The Korea Herald everyday so to catch up with the latest news in the country. I enjoy my life in Korea so much that I have actually extended my stay for two more months.

I am always proud to be an Asian and adore Asian cultures and values, this makes East Asian studies a natural choice for my graduate studies. CAMPUS Asia program simply offers a

perfect chance for me to get enrolled in the best universities of Korea and Japan, and explore the two countries with our elite neighbors. As the pioneer candidates of this program, the exchange lives in SNU and UT were definitely something to look forward.

There is a Chinese saying “traveling a thousand miles beats reading a thousand books”. As a fan of cultural exchange and traveling, I took up an intensive Korean language course with the generous financial support from SNU GSIS so as





Hanbok wearing experience during "Chuseok"



The completion of Korean intensive course Level 1

to equip myself with the basic language skills so to have simple conversations with the locals during my adventures. At the same time, I selected two academic courses in GSIS: one trained my thesis writing skills and the other introduced me the development of Korean modern society. While the courses were truly interesting and inspiring, the packed study timetable – 4 hours per day, 5 days per week language class together with weekly assignments and presentations from the two academic courses – was indeed far from the leisurely exchange life that I had originally planned.

Some may get disappointed and driven off by this seemingly excruciating life, but sometimes thing does not turn out what we had expected does not mean that it will not be satisfying. While the workloads of my academic courses were undeniably demanding and challenging, the contexts and professors of the courses that I had chosen were exceptionally motivating and inspiring. My thesis writing course did not only guide me to search for my real research interest,

but also horn my critical thinking skills and ignite my academic passion. The well-designed syllabus and insightful discussions in class make it to be one of the best courses that I have ever taken.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fulfill my backpacker plans, I worked harder and had better time-management so as to squeeze out the maximum amount of traveling time before winter comes. Right after I completed my Korean language course in the early November, I went traveling every weekend with my SNU schoolmates and made our adventures to more than seven cities in a month time, including Andong, Buyeo, Jeonju, Suncheon, Yeosu, Busan and Gyeongju. My intense language training enables me to have simple conversations with the friendly locals, and my course on Korean development provides me with vital knowledge in observing and understanding the country. What I have learned in SNU amplifies my joy and gains in Korea, and a new adventure has started right after my final exams, as I am now working as a public diplomacy intern in The Korea Foundation



Hahoe village at Andong



The Baekje ancient palace at Buyeo

with the generous recommendation from Professor Park Cheol-hee. The best things come when you least expect them to.

This semester is definitely one of the most unforgettable and fruitful semesters that I have ever had. I have fulfilled far more than what I expected before my arrival in Korea, and I am truly grateful to all the opportunities and supports that I have given. There are so much I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future participants that even hundred more pages might not be enough to conclude all. However, if there is any "magic" that helps me go through from all these challenging adventures, it is the choices that I had made – I choose what I want, and I work hard on and enjoy

with what I choose. Choices are not always easy to make, and my SNU exchange experience is a journey of searching and choosing. After all, it is not what we "need" but what we "want" that makes life pleasurable and rewarding, and it is more important to be enthusiastic than energetic.

What I have harvested from this program is not only a broader understanding on East Asian affairs, but also better understandings on my generation and myself; not only unforgettable experiences and memories, but also lasting inspirations and friendships. It is the brilliant people who I have met in this program consolidate my obligation and optimism to our future –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만든사람들

| 교육과학기술부 |

구연희 (글로벌협력전략팀 과장)

최문기 (글로벌협력팀 사무관)

류경숙 (글로벌협력팀 주무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정희 (국제협력팀 팀장)

조준범 (국제협력팀 선임전문원)

2012 한·중·일 CAMPUS Asia 시범사업 체험수기

| 인 쇄 | 2013년 2월

| 발 행 | 2013년 2월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3-803 서울시 금천구 서부셋길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 6919-3800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 ISBN | 978-89-6609-393-9

| 자료번호 | RM 2013-2-566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